2026
KCTI 데이터 포커스 제4호

데이터로 본 한국 의료관광의 가치

- 인바운드 관광의 질적 성장을 위한 국가별 시장 분석

오서경(데이터정책본부 데이터전략실 차석전문원)

osg4580@kcti.re.kr
Tel : 02-2669-6908

한국문화관광연구원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요 약

□ 방한 관광이 양적 회복을 넘어 질적 성장으로 전환해야 하는 시점에서, 의료관광은 방한객의 지출을 높이는 고부가가치 분야로 인바운드 관광의 전략적 가치를 지님

○ 본 분석은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카드 의료소비, 외래관광객조사를 연계하여 의료관광 시장의 규모·성장, 진료수요, 소비구조 및 관광행태를 종합적으로 살펴봄

- 외국인환자 유치실적으로 국가별 환자 규모와 진료수요의 변화를, 카드 의료소비로 소비 규모와 주요 소비 분야 및 건당 소비금액을 분석함
- 외래관광객조사는 방한 목적이 '여가·위락·휴식' 또는 '친구·친지 방문'에 한하여 미용 또는 치료·건강검진 활동의 고려·참여 여부를 기준으로 의료관광 유형을 구분하고, 국가별 참여 구조와 체류기간·지출경비·관광활동을 비교함
- 시장의 최근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2023~2025년을 중심으로 분석하되, 유치실적은 코로나19 이전과의 비교를 통해 구조적 변화를 함께 살펴봄

□ (외국인환자 시장) 코로나19 이후 외국인환자 시장은 단순 회복을 넘어 급성장하였으나, 성장의 상당 부분이 중국·일본·대만·미국과 피부과에 집중되는 구조를 보임

○ 외국인환자 수는 2023년 60만 6천 명에서 2025년 201만 2천 명으로 2년간 약 3.3배 증가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함

- 2025년 중국(61만 9천 명)이 일본(60만 명)을 추월하여 최대 시장으로 부상하였으며, 대만은 2년간 14.5배 증가하며 미국을 넘어 3위 시장으로 성장함
- 2023~2025년 증가분의 84.5%가 중국·일본·대만·미국에서 발생하여, 4개국의 시장 비중이 64.3%에서 78.4%로 상승함

○ 진료수요는 내과·검진 등 치료·건강관리 중심에서 피부과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었으며, 특정 국가와 진료과목에 대한 집중 현상이 동시에 심화됨

- 2025년 피부과 환자는 131만 3천 명으로 전체 진료과목별 환자의 62.9%를 차지하며, 2023~2025년 환자 증가분의 76.2%가 피부과에서 발생함
- 특히 피부과 환자 증가분의 84.2%가 중국·일본·대만·미국에서 발생하여, 핵심 4개국의 피부과 수요가 전체 시장의 성장을 주도함
- 내과통합·검진센터는 절대 규모는 증가하였으나 비중은 하락하였으며(내과통합 2019년 19.2% → 2025년 9.2%), 신경외과·소아청소년과·정형외과 등은 2019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함

□ (의료소비) 의료소비는 이용 규모의 확대와 함께 건당 소비금액도 증가하였으나, 국가별 진료수요와 소비 강도에 따라 경제적 가치가 서로 다르게 나타남

○ 외국인 의료 소비금액은 2023년 5,817억 원에서 2025년 1조 7,228억 원으로 약 3.0배, 소비건수는 약 2.3배 증가하였으며, 건당 소비금액은 35.1만 원에서 45.0만 원으로 상승함

- 피부과(9,391억 원)와 성형외과(4,114억 원)가 2025년 전체 소비금액의 78.4%를 차지하며, 피부과는 2024년 이후 성형외과를 넘어 최대 소비 분야로 부상함
- 대학·종합병원 소비금액도 874억 원에서 1,220억 원으로 39.6% 증가하여, 치료형 소비는 비중은 낮아졌으나 절대 규모는 확대됨

○ 국가별로는 미용 집중(중국·대만·태국·싱가포르·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미용 집중·저단가(일본), 미용·치료 병존(미국·캐나다·호주·중동), 치료 중심(몽골·카자흐스탄), 치료 전환(베트남) 등 서로 다른 구조를 보이며, 환자 규모와 실제 소비 규모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음

- 미국은 2025년 소비금액 3,794억 원으로 최대 소비시장이며, 중국은 건당 77.7만 원으로 주요국 중 최고 단가를 보임
- 대만은 소비금액이 2년간 18.5배 증가하여, 환자 수가 중국의 30% 수준임에도 소비금액(2,318억 원)이 중국(2,248억 원)을 상회함
- 일본은 피부과 건당 소비금액이 가장 낮은 다빈도·소액형 반면, 중국·대만은 피부·미용 분야의 고액 소비가 집중되는 특성을 나타냄
- 몽골·카자흐스탄은 환자 수 기준으로는 저성장 시장이나, 대학·종합병원 중심의 치료형 소비가 이루어져 시장의 경제적 가치를 환자 수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움을 보여줌

□ (외래관광객의 의료관광 참여 및 행태) 의료관광 참여가 사전 계획형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참여자의 지출 수준도 높게 나타났으나, 높은 지출이 체류기간 연장이나 관광활동 확대로 반드시 이어지지는 않음

○ 의료관광 참여율은 2023년 15.0%에서 2025년 19.5%로 상승하여 방한객 약 5명 중 1명이 참여하였으며, 치료·건강검진 참여율도 4.2%에서 7.3%로 지속 상승함

- 방한 전 의료관광을 고려하고 실제 참여한 '고려·참여형'은 2023년 9.2%에서 2025년 13.2%로 증가하여 의료관광 참여 확대를 주도함
- 의료관광 참여자 중 사전 계획형 비중도 61.4%에서 67.7%로 상승하여, 의료서비스 이용을 방한 전부터 고려하는 수요가 확대됨

○ 의료관광 참여자는 비참여자보다 대체로 높은 지출 수준을 보였으나, 참여경로에 따라 체류기간과 관광활동에 뚜렷한 차이가 나타남

- '고려·참여형'은 평균 체재기간이 5.7일로 짧지만 1인 1일 지출경비는 366.9달러로 가장 높은 단기 집중소비형 특성을 보임
- 반면 '비고려·참여형'은 평균 체재기간 7.5일로 가장 길고 다양한 관광활동에 참여하여 일반 관광과 의료관광의 연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2025년 의료관광 참여자의 1인 평균 지출경비는 베트남을 제외한 주요국에서 비참여자의 약 1.3~2.0배로 나타났으나, 체류기간과 관광활동 수의 차이는 국가별로 상이함

□ (국가별 시장 특성) 의료관광시장은 환자 규모와 성장성뿐 아니라 의료소비의 집중도, 참여경로, 관광 연계 수준에 따라 서로 다른 특성을 보이며, 국가별 차별화된 전략이 요구됨

○ (중국) 대형 고성장·고단가 시장으로, 환자 규모와 의료소비가 빠르게 확대되는 가운데 피부·미용 소비가 집중되었으며, 치료·건강검진 수요도 함께 성장함

○ (일본) 대형 성숙형 뷰티·미용 시장으로, 사전 계획형 비중(83.9%)이 가장 높고 짧은 체류 동안 다빈도·중저단가 의료소비가 이루어지는 특성을 보임

○ (대만) 급성장 고단가 미용집중 시장으로, 피부·성형외과 중심의 의료소비가 빠르게 확대되었으나 의료관광 참여율(11.3%)은 상대적으로 낮아 참여 저변 확대의 여지가 있음

○ (미국) 치료·미용 복합형 시장으로, 의료소비 규모가 가장 크고 치료·건강관리 수요가 함께 성장하며 비교적 긴 체류와 다양한 관광활동을 보임

○ (몽골·중동) 의료관광에 대한 사전 고려와 참여 수준이 높고 참여자의 지출 수준도 높은 고관여 시장으로, 치료·건강관리 수요와 참여자의 지출이 비참여자의 약 2배(몽골)로 지출 측면의 가치가 큰 시장

○ (동남아시아·장거리) 태국·싱가포르·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캐나다·호주 등은 의료관광시장이 확대되는 후속 성장시장으로, 상대적으로 비고려 참여 비중이 높아 일반 관광과 의료서비스 이용을 연결하는 전략이 중요함

○ (베트남) 의료관광 참여자의 체류기간과 관광활동은 상대적으로 많지만 1인 1일 지출경비는 비참여자보다 낮아, 단순한 참여 확대와 구분되는 소비 활성화 전략이 요구됨

□ (종합) 한국 의료관광시장은 코로나19 이후 피부·미용을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하였으며, 국가별 의료수요와 소비구조, 관광행태의 차이를 고려한 전략적 접근이 인바운드 관광의 질적 성장을 위해 필요함을 보여줌

□ (시사점) 의료관광을 인바운드 관광의 질적 성장을 위한 전략 분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핵심시장 고도화와 수요 기반 다변화를 병행하고, 국가별 참여·소비 특성에 맞는 관광 연계 전략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수요 기반 다변화) 핵심 4개국과 피부·미용 중심의 성장구조를 유지·고도화하는 동시에 동남아시아·장거리 후속 성장시장과 치료·건강관리 수요를 새로운 성장축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음

- 국가별 유치 규모 확대와 함께 진료과목별 수요의 다변화를 추진하여 특정 국가와 의료서비스에 집중된 시장구조를 완화할 필요가 있음

○ (관광 연계 강화) 의료관광 참여자의 높은 지출이 관광소비 확대와 체류의 경제적 가치 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료서비스 이용 전후의 관광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사전 계획형 비중이 높은 일본·중국 등은 의료서비스 예약 단계에서 숙박·쇼핑·문화체험 등 관광 일정을 함께 계획하도록 지원함
- 현지 추가 참여가 활발한 동남아시아·장거리 시장은 관광객의 주요 방문 동선에서 신뢰할 수 있는 의료관광 정보를 제공하고 일반 관광과 의료서비스의 연계를 확대함
- 단기 고소비 시장은 관광활동과 비의료 소비 확대를, 장기 체류 시장은 체류기간의 경제적 가치 제고를 중심으로 차별화된 전략을 추진함

○ (정책적 활용) 의료관광시장을 환자 수 중심의 단일 지표가 아닌 시장 규모·소비 강도·관광 연계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국가별 전략시장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 의료관광이 고부가가치 소비를 창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일반 관광의 지출 확대, 관광 경험 다양화 및 재방문 수요로 연결되도록 의료·관광 분야 간 정책 연계 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1. 들어가며

□ (연구배경) 의료관광은 인바운드 관광시장의 질적 성장을 견인할 고부가가치 분야로 주목받고 있으나, 단일 데이터에 의존한 기존 접근으로는 시장의 규모, 소비, 관광행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워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한 국가별 시장의 다각적 분석이 요구됨

○ 방한 외래관광객은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하며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넘어섰으나, 방한 외래관광객 규모의 확대가 1인당 지출 증가로 이어지지 못하면서 인바운드 관광의 질적 성장의 한계가 드러남

- 2025년 방한 외래객은 약 1,894만 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하였으나, 외래관광객조사 결과 방한 외래관광객의 체재기간이 단축되고 1인당 평균 지출경비가 감소하는 등 방한 외래객 규모의 확대가 외래관광객의 1인당 소비 증가로 이어지지 않음
- 외래관광객의 체재기간, 지출경비, 재방문율 등은 관광의 경제적 가치와 지속가능성을 판단하는 주요 지표로, 방한객 수의 증가만으로 인바운드 관광의 질적 성장을 담보하기 어려움을 보여줌
- 이에 따라 관광객 유치 규모의 확대와 함께 방한 목적의 다양화, 관광소비의 고부가가치화, 재방문 수요 창출 등을 통해 관광의 경제적 효과를 높이는 접근이 요구됨

○ 의료관광은 의료서비스 이용을 통해 독립적인 방한 수요를 창출하는 동시에 관광 및 연관산업의 소비를 유발하는 고부가가치 융복합 분야로, 인바운드 관광의 질적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전략적 가치를 지님

- 의료 이용은 그 자체로 방한의 목적이 될 수 있어 새로운 방한 수요를 창출하며, 시술·검진 이후의 사후관리와 재진이 재방문의 계기가 될 수 있음
- 또한 일반 관광과 결합될 경우 체류 중 소비를 높이고 관광 경험을 확장할 수 있어, 방한 관광의 소비 구조를 고도화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음

○ 실제로 한국의 외국인환자 유치시장은 코로나19 이후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며 새로운 성장단계에 진입함

-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한국의 외국인환자 수는 2009년부터 2019년까지 연평균 23.5% 증가하였으며, 2024년 연간 외국인환자 수는 100만 명을 넘으면서 2025년 200만 명을 돌파하며, 누적 외국인환자 수가 706만 명에 도달함
- 이러한 성장은 한국 의료서비스에 대한 해외 수요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며, 의료관광이 향후 인바운드 관광시장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기능할 가능성을 시사함

○ 다만 외국인환자 시장의 양적 확대가 곧 의료관광의 경제적 가치 확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국가별 의료수요와 소비 특성, 관광 연계 행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음

- 외국인환자 유치 규모가 확대되는 가운데 국가별 주요 진료과목, 의료서비스 이용 목적, 소

비 수준 등이 서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며, 이러한 차이는 의료관광이 창출하는 경제적 가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또한 의료서비스 이용이 방한의 주된 목적인지, 일반 관광 중 의료서비스를 함께 이용하는지에 따라 체재기간, 지출경비, 관광활동 등 방한 행태에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따라서 외국인환자를 단일한 시장으로 접근하기보다 국가별 의료수요와 소비 특성, 관광 연계 수준을 구분하여 시장의 성장 가능성과 전략적 가치를 파악할 필요가 있음

○ **그러나 기존 의료관광 관련 논의는 주로 외국인환자 유치 규모와 진료과목별 실적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국가별 시장의 경제적 가치와 관광 연계 특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외국인환자 유치실적은 국가별 시장 규모와 진료수요를 파악하는 데 유용하지만 실제 의료소비 규모와 방한 중 관광행태를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의료소비 데이터 역시 소비의 규모와 특성은 보여주지만 의료서비스 이용자의 방한 목적과 관광활동을 직접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움
- 반면 외래관광객조사는 의료관광에 대한 사전 고려 및 실제 참여 여부와 체재기간, 지출경비, 관광활동 등을 파악할 수 있으나, 세부 진료과목별 유치실적이나 실제 의료서비스 소비 규모를 확인하는 데 제약이 있음
- 이에 따라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의료소비 데이터, 외래관광객조사를 상호 보완적으로 활용하여 국가별 의료관광 시장의 규모·소비·관광행태를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시장별 특성과 전략적 가치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음

□ (연구목적) 본 연구는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카드 의료소비 및 외래관광객조사를 연계하여 국가별 의료관광 시장의 성장과 수요·소비 구조, 관광행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시장별 특성을 반영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음

○ (시장 변화 파악) 국가별 외국인환자 규모와 진료과목별 변화를 분석하여 의료관광 시장의 성장 기반과 수요 재편 양상을 확인함

○ (의료소비 특성 분석) 국가별 의료 소비건수와 소비금액, 건당 소비금액 및 주요 소비 분야를 살펴보고, 환자 유치실적에서 나타난 시장 특성이 의료소비에서도 확인되는지 비교함

○ (참여·관광행태 분석) 의료관광의 사전 고려와 실제 참여 여부를 구분하여 국가별 참여 구조를 파악하고, 참여자의 체류기간·지출경비·관광활동 특성을 분석함

○ (국가별 종합 특성 도출) 세 자료의 결과를 종합하여 국가별 시장의 공통점과 차이를 도출하고, 의료관광과 방한 관광 소비의 연계를 고려한 시장별 접근 방향을 제시함

2. 분석대상 및 분석방법

□ 분석대상 및 분석방법

○ **(분석자료)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외국인 의료소비 데이터, 외래관광객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국가별 의료관광시장의 규모와 성장, 소비구조, 참여경로 및 관광행태를 종합적으로 분석함**

-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보건복지부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통계'를 활용하여 2016~2025년 국가별 외국인환자 수와 진료과목별 환자 수를 분석함
- (외국인 의료소비) 한국관광데이터랩의 외국인 의료관광 카드소비 데이터를 활용하여 2023~2025년 국가별·진료과목별 의료 소비건수와 소비금액을 분석함
- (외래관광객조사) 2023~2025년 외래관광객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여 방한 목적이 '여가·위락·휴식' 또는 '친구·친지 방문'인 응답자를 대상으로 의료관광(뷰티·미용, 치료·건강검진)에 대한 방한 전 고려 여부와 실제 참여 여부, 체재기간, 관광활동, 지출경비 등을 분석함

○ **(자료별 특성) 세 자료는 각각 파악할 수 있는 범위와 한계가 상이하므로, 이를 상호 보완적으로 활용하여 의료관광시장의 규모·소비·관광행태를 다각적으로 분석함**

-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국가별·진료과목별 외국인환자 시장의 양적 규모와 성장 추이를 파악할 수 있으나, 등록 유치기관의 보고에 기반한 통계로 미등록 기관 이용 등을 포함한 전체 의료관광 수요를 포괄하지 못하며, 실제 의료 소비 규모를 확인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음
- (외국인 의료소비) 외국인환자 유치실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국가별 의료소비 규모와 추이를 보완적으로 확인할 수 있음. 다만, 카드 결제 기반 자료로 현금, 간편결제 등을 통한 소비가 반영되지 않아 실제 소비 규모보다 과소 추정될 수 있음
- (외래관광객조사) 앞의 두 자료가 의료서비스에 특화된 자료라면, 외래관광객조사는 방한 외래관광객 전체의 관광행태를 조망할 수 있는 자료로, 의료관광 참여자와 비참여자 간의 관광행태(체재기간, 관광활동, 지출경비 등)를 비교할 수 있음

〈표 1〉 분석 자료의 특징

구분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외국인 의료관광 소비 데이터	외래관광객조사
특징	법정 보고에 근거한 공식 통계로 외국인환자의 규모와 진료수요를 파악할 수 있음	실제 결제 기록에 기반한 빅데이터로 국가별·진료과목별·의료소비 금액 규모와 소비 강도를 파악할 수 있음	방한 외래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표본조사로, 의료관광의 사전 고려 여부, 실제 참여, 관광행태와 지출을 함께 파악할 수 있는 유일한 자료임
장점	전수 보고 성격의 자료로 국가별 시장규모 순위와 비중 판단의 기준 자료로 적합	실제 지출 금액 정보를 제공하므로 시장의 경제적 규모와 건당 소비 강도를 파악할 수 있음	수요자 관점의 행태 정보를 제공하며, 의료관광객 고유의 특성을 별도 분석할 수 있음
한계	유치 등록기관만 집계되어 실제 외국인 의료이용보다 과소 집계될 수 있음 진료 외 체류기간, 목적 등에 대한 정보 없음	신용카드 결제만 포함되어 있으며, 결제수단(간편결제, 현금 등) 별 확인이 불가능함에 따라 과소 추정될 수 있음	조사대상의 범위와 소규모 국가의 표본 부족, 자기기입 응답에 따른 오차 등의 한계

자료: 연구진 작성

○ (분석대상 국가) 주요 15개 국가를 기본 분석 대상으로 하되, 자료별 포괄 범위와 표본 규모 등을 고려하여 자료에 따라 분석 대상 국가를 달리 적용함

-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15개 국가·지역의 환자 수 추이를 분석하고, 진료과목별 변화는 진료과목별 자료가 확보된 중국, 일본, 미국, 대만, 태국, 싱가포르, 베트남, 캐나다, 몽골, 중동을 대상으로 2023~2025년을 중점 분석함
- (의료소비) 시장 대표성과 데이터 확보 여부를 고려하여 중국, 일본, 미국, 대만, 태국,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캐나다, 호주, 몽골, 베트남, 카자흐스탄 및 중동 2개국(아랍에미리트·사우디아라비아) 등을 분석함
- (외래관광객조사) 의료관광 고려율·참여율은 외래관광객조사 대상인 주요 20개 국가(중국, 일본, 대만, 미국, 홍콩,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러시아, 중동, 인도네시아, 캐나다, 호주, 영국, 몽골, 독일, 프랑스, 인도, 기타)로 구분하여 산출하고, 참여경로와 관광행태는 표본 규모를 고려하여 카자흐스탄을 제외한 14개 국가(중국, 일본, 미국, 대만, 태국, 베트남, 중동, 몽골,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캐나다, 호주, 러시아)를 분석함

○ (분석기간) 외국인환자 유치실적은 코로나19 전후의 구조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2016~2025년을 분석하고, 세 자료 간 비교는 외국인환자 시장이 본격적으로 회복·확대된 2023~2025년을 중심으로 함

□ 분석범위 및 분석방법

○ (분석범위) 의료관광시장의 성장과 의료수요, 소비구조, 참여경로 및 관광행태를 단계적으로 분석한 후, 이를 종합하여 국가별 시장을 유형화하고 인바운드 관광 전략 방향을 제시함

- 첫째, 외국인환자 유치실적을 바탕으로 국가별 외국인환자 수와 비중, 증가율 및 진료과목 구성을 분석하여 성장경로와 주요 의료수요에 따라 국가별 시장을 유형화함(3장)
- 둘째, 의료소비 데이터를 바탕으로 국가별 소비건수·소비금액·건당 소비금액과 진료과목별 소비 비중을 분석하고, 소비규모와 소비강도에 따라 국가별 시장을 유형화함(4장)
- 셋째, 외래관광객조사의 방한 전 고려활동과 실제 참여활동을 연계하여 의료관광 참여경로를 구분하고, 참여경로별 체재기간, 관광활동, 지출경비를 분석하여 국가별 시장을 유형화함(5장)
- 넷째, 자료별 유형화 결과를 종합하여 국가별 시장규모, 성장성, 의료수요, 소비강도, 참여경로를 다각적으로 비교하고, 국가별 의료관광시장의 특성을 도출함(6장)
- 다섯째, 국가별 시장 특성을 바탕으로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시장별 전략 방향을 제언함(7장)

○ (분석지표) 자료별 분석 목적에 따라 다음 지표를 활용함

- (외국인환자) 국가별·진료과목별 환자 수, 시장 비중, 전년 대비 증감률, 증가분 기여율
- (의료소비) 소비건수, 소비금액, 전체 외국인 의료소비 대비 비중, 건당 소비금액(소비금액÷소비건수), 진료과목별 소비 비중
- (외래관광객조사) 의료관광 고려율·참여율, 참여경로 유형(고려·참여형, 고려·미참여형, 비고

려·참여형, 비고려·미참여형), 의료관광 전환율·계획형 비중·현지 추가 참여율, 평균 체재기간, 의료관광 외 관광활동 수, 1인 평균 및 1인 1일 평균 지출경비 등

○ **(분석방법) 자료별 기술통계 분석을 통해 국가·연도 단위의 수준과 변화를 비교하고, 주요 지표의 상대적 수준을 기준으로 국가별 시장을 유형화한 후 이를 종합함**

- (자료별 분석) 외국인환자 유치실적과 의료소비 데이터는 국가·연도별 수준과 증감을 비교하며, 의료소비의 진료과목별 값은 공표 구성비를 적용하여 추정함. 외래관광객조사는 사전 고려 여부와 실제 참여 여부를 교차분석하여 참여경로를 구분함
- (유형화) 자료별 핵심 지표의 국가 간 상대적 수준(전체 평균 대비 높고 낮음 등)을 기준으로 국가별 시장을 유형화함
- (종합) 세 자료는 조사대상과 집계단위가 달라 절대수치를 직접 비교하지 않고, 국가별 증감 방향의 일치 여부와 자료별 유형화 결과를 교차하여 국가별 시장 특성을 도출함

□ 데이터 전처리 및 정제

○ **(공통)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카드 의료소비, 외래관광객조사는 각각 환자 수, 카드 결제, 관광객 응답을 기준으로 작성되는 자료이므로, 자료별 단위와 범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연도·국가·의료분야를 정리하여 비교가 가능하도록 전처리함**

-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국가별 환자 수는 실환자 기준이며, 진료과목별 환자 수는 한 환자가 여러 진료과목을 이용한 경우 각각 집계되므로 진료과목별 합계는 국가별 환자 수 합계와 일치하지 않음
- (의료소비) 진료과목별 소비건수와 소비금액은 연간 총계에 공표 구성비를 적용한 추정치를 활용함. 단, 약국 소비는 처방약 외 일반의약품·건강 관련 제품 구매가 포함될 수 있어, 국가별 소비 특성 분석에서는 약국을 제외한 의료기관 소비를 중심으로 해석하고 약국 소비는 부가 소비 참고지표로 활용함
- (외래관광객조사) 의료관광이 방한 관광의 일부로 선택되는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방한 주요 목적이 '여가·위락·휴식' 또는 '친구·친지 방문'인 응답자(이하 관광목적 방한객)로 분석대상을 한정함. 따라서 본 분석의 고려율과 참여율은 전체 방한객이 아닌 관광목적 방한객 중 의료관광을 고려하거나 참여한 비율을 의미함

○ **(외래관광객조사 변수 구성) 의료관광은 뷰티·미용 또는 치료·건강검진 활동으로 정의하고, 사전 고려 여부와 실제 참여 여부를 교차하여 참여경로 변수를 구성함**

- (사전 고려) 방한 전 고려활동 1~3순위 중 뷰티·미용 또는 치료·건강검진을 하나 이상 선택한 경우
- (참여) 방한 중 실제 참여활동(복수응답) 중 뷰티·미용 또는 치료·건강검진을 하나 이상 선택한 경우
- 고려활동은 상위 3순위까지만 응답하는 반면 참여활동은 복수응답이므로, 국가에 따라 참여율이 고려율보다 높게 나타날 수 있으며, '비고려'는 사전 관심이 전혀 없었음을 의미하지 않음
- 외래관광객조사 가중치를 적용하였으며, 고려 여부와 참여 여부에 모두 유효하게 응답한 사례를 기준으로 비율을 산출하고, 문항 비해당에 따른 결측은 '비고려' 또는 '미참여'로 분류

하지 않음

- 체재기간과 지출경비는 조사자료의 공식 처리기준에 따라 산출하였으며, 지출경비는 국제교통비 포함·제외 기준을 함께 산출함

○ **(자료간 연계) 세 자료는 조사대상과 집계단위가 다르므로 개인 단위로 직접 결합하지 않고, 국가-연도 단위의 수준과 변화 방향을 비교하여 종합적으로 해석함**

- 세 자료가 공통으로 확보된 2023~2025년과 분석대상 국가를 기준으로 국가명과 의료 분야(뷰티·미용, 치료·건강검진 등) 구분을 정리하여 비교 기준을 맞춤
- 외국인환자 수, 의료소비액, 의료관광 참여율의 변화 방향이 일치하는 경우 해당 시장의 성장 또는 위축 신호가 일관된 것으로 해석하고, 불일치하는 경우 저단가화, 결제수단 차이, 관광목적 방한객 외 수요 등 자료 특성에 따른 요인을 함께 검토함

  * 소비건수는 카드 결제건수이므로 외국인환자 수와 동일하게 해석할 수 없으며, 건당 소비금액 역시 환자 1인당 의료비가 아닌 결제 1건당 평균금액임

〈표 2〉 자료별 분석범위 및 분석방법

구분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외국인 의료관광 소비 데이터	외래관광객조사
출처	보건복지부	한국관광데이터랩	문화체육관광부
분석기간	2016~2025년	2023~2025년	2023~2025년
활용목적	시장 규모와 진료수요 파악	의료소비 규모·강도와 소비구조 파악	의료관광의 계획·실행 여부 및 관광행태 파악
주요지표	국가별 환자 수, 진료과목별 환자 수	국가별·진료과목별 소비금액, 소비건수, 건당 금액	방한전 고려 활동, 실제 참여활동, 체류기간 및 지출경비 등
분석내용	• 코로나19 전후 외국인환자 시장 규모 변화 • 국가별 환자 수 비중과 증감률, 증가분 기여율을 통한 성장성 및 시장 집중도 분석 • 국가별 주요 진료과목 구성과 진료수요 구조 변화 • 국가별 의료관광시장의 성장 경로와 주요 의료수요 도출	• 국가별 의료소비 규모(소비건수·소비금액)와 시장 비중 • 건당 소비금액을 통한 국가별 소비강도 비교 • 진료과목별 소비 비중을 통한 국가별 소비구조 분석 • 외국인환자 증가와 의료소비 증가의 방향 일치 여부 확인	• 국가별 의료관광 고려율과 참여율 • 참여경로 유형(4가지)별 비중 및 전환율·계획형 비중·현지 추가 참여율을 통한 참여경로 분석 • 참여경로 유형별 체재기간, 관광활동 수, 지출경비 비교 • 국가별 의료관광의 계획·실행 특성과 관광 연계 수준 도출
유의사항	등록 유치기관 보고 기준으로 실제 의료이용보다 과소 집계될 수 있음	카드 결제만 포함되어 실제 소비보다 과소 집계 될 수 있으며, 건당 금액은 1인당 의료비가 아님	관광목적 외래관광객 기준으로 지출경비는 의료비를 포함한 전체 지출임

자료: 연구진 작성

3. 국가별 외국인환자 유치시장

□ 한국의 외국인환자 유치시장은 코로나19 이후 급격한 양적 성장과 함께 중국·일본 중심의 시장 집중과 후속 성장시장의 확대가 나타남

○ 코로나19 이전 외국인환자 수는 2016년 36만 4,189명에서 2019년 49만 7,464명으로 증가하였으며, 2016~2019년 외국인환자 수의 연평균 증가율은 약 11.0%로 나타남

○ 외국인환자 시장은 2023년부터 코로나19 이전 성장을 크게 상회하며, 회복을 넘어 새로운 성장 단계로 진입함

- 외국인환자 수는 2019년 49만 7,464명에서 2020년 11만 7,069명으로 76.5% 감소한 후 점진적으로 회복되다 2023년 60만 5,768명으로 2019년 수준을 넘어섬
- 2024년 외국인환자 수는 117만 467명(전년比 +93.2%)으로 100만 명을 돌파하였으며, 2025년 201만 1,822명(전년比 +71.9%)으로 200만 명을 넘으며 최대 실적을 기록함

〈표 3〉 2016~2025년 국가별 외국인환자 현황

(단위 : 명)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중국	127,648	99,837	118,310	162,868	31,084	28,021	43,923	112,135	260,641	618,973
일본	26,702	27,283	42,563	68,411	14,077	3,305	21,757	187,711	441,112	600,009
대만	1,287	1,282	1,731	2,353	550	502	1,327	12,828	83,456	185,715
미국	48,788	44,440	45,213	58,358	18,004	28,889	44,095	76,925	101,733	173,363
태국	3,933	6,137	8,998	14,162	6,047	7,287	20,408	30,844	38,152	58,124
싱가포르	2,452	2,544	2,566	2,971	354	521	3,772	13,499	26,666	43,222
인도네시아	2,338	2,385	3,270	5,716	705	1,542	2,911	6,449	10,388	21,257
말레이시아	1,398	1,334	1,440	1,566	282	419	1,284	3,247	5,843	12,086
캐나다	4,123	3,966	4,098	4,996	1,127	2,333	4,718	9,377	14,847	23,624
호주	2,129	2,179	2,192	2,676	536	646	2,321	6,660	13,783	20,006
몽골	14,798	13,872	14,042	17,918	6,102	9,145	14,148	22,080	25,731	35,586
베트남	8,746	7,447	7,532	15,133	5,586	10,829	14,665	20,371	20,382	23,133
러시아	25,533	24,859	27,185	29,897	6,246	6,412	9,616	14,720	16,622	20,262
카자흐스탄	15,010	12,566	12,987	13,424	3,102	3,484	7,290	11,810	14,475	15,188
기타	79,304	71,443	86,840	97,015	23,267	42,507	55,875	77,112	96,636	161,274
합계	364,189	321,574	378,967	497,464	117,069	145,842	248,110	605,768	1,170,467	2,011,822

출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통계분석 보고서」

○ 2025년 중국과 일본이 시장 확대를 주도하며 전체 외국인환자의 60.6%를 차지하였으며, 특히 중국이 일본을 추월하면서 최대 시장으로 부상함

- 중국의 외국인환자는 2023년 11만 2,135명에서 2024년 26만 641명(전년比 +132.4%), 2025년 61만 8,973명(전년比 +137.5%)으로 증가하였으며, 시장 비중도 2023년 18.5%

에서 2025년 30.8%로 상승하며 외국인환자 증가를 견인함

- 일본의 경우 2023년 18만 7,711명에서 2024년 44만 1,112명(전년比 +135.0%), 2025년 60만 9명(전년比 +36.0%)으로 증가하였으나 시장 비중은 2024년 37.7%까지 상승 후 2025년 29.8%로 낮아짐

○ **대만은 최근 가장 빠르게 증가한 국가로, 2025년 미국을 넘어 세 번째 규모로 성장함**

- 대만의 경우 2023년 1만 2,828명에서 2025년 18만 5,715명으로 증가하였으며, 2년 사이 약 14.5배 확대된 것으로 나타남
- 한편, 미국 외국인환자 규모는 꾸준히 증가하며 안정적인 성장 시장('23년 7만 6,925명 → '25년 17만 3,363명)으로 나타났으나,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3년 12.7%에서 2025년 8.6%로 하락함

○ **동남아시아 중 태국이 가장 큰 시장을 형성한 가운데 싱가포르·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가 빠르게 증가함**

- 태국은 2023년 3만 844명에서 2024년 3만 8,152명(전년比 +23.7%)으로 증가하였으며, 2025년에는 5만 8,124명(전년比 +52.3%)으로 동남아시아 국가 중 가장 큰 규모를 유지함
- 싱가포르('24년 2만 6,666명 → '25년 4만 3,222명) 인도네시아('24년 1만 388명 → '25년 2만 1,257명), 말레이시아('24년 5,843명 → '25년 1만 2,086명) 등도 증가하며 성장 가능성을 보여줌
- 반면 베트남은 2024년 2만 382명(전년比 +0.1%), 2025년 2만 3,133명(전년比 +13.5%)으로 타 동남아시아 국가보다 완만한 성장세를 보임

○ **캐나다·호주 등 장거리 시장도 확대된 한편, 러시아·카자흐스탄은 상대적으로 더딘 회복세를 보임**

- 캐나다의 외국인환자는 2024년 1만 4,847명(전년比 +58.3%), 2025년 2만 3,624명으로 59.1% 증가하였으며, 호주는 2024년 1만 3,783명(전년比 + 107.0%), 2025년 2만 6명(전년比 +45.1%)으로 나타남
- 러시아의 경우 2024년 1만 6,622명(전년比 +12.9%), 2025년 2만 262명(전년比 +21.9%)으로 증가하였으나, 2019년 2만 9,897명의 67.8% 수준에 머물며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함
- 또한, 카자흐스탄은 2024년 1만 4,475명으로 전년 대비 22.6% 증가하였으나, 2025년 1만 5,188명으로 4.9% 증가하는데 그치면서 전체 시장보다 낮은 성장세를 보임

□ 외국인환자의 진료수요는 과거 내과통합이 최대 진료과목이던 구조에서 2023년 이후 피부과 중심으로 빠르게 전환됨

○ **코로나19 이전인 2016~2019년 외국인환자 진료수요는 내과통합이 약 2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가운데, 피부과와 성형외과 수요가 점진적으로 확대됨**

- 내과통합의 외국인환자는 2016년 8만 5,075명에서 2019년 11만 3,442명으로 33.3% 증가

하였으나, 전체 진료과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에서 19.2%로 소폭 하락함

- 검진센터도 같은 기간 3만 9,743명에서 5만 4,185명으로 36.3% 증가했으며, 비중은 9.3%에서 9.2%로 유사한 수준을 유지함
- 반면, 피부과 및 성형외과는 각각 80.0%(′16년 4만 7,340명 → ′19년 8만 5,194명), 89.0%(′16년 4만 7,881명 → ′19년 9만 494명) 증가하며 빠른 성장세를 보임

○ **2023년 이후 외국인환자 유치시장은 급속도로 피부과가 주도하면서 피부·미용 중심으로 재편됨**

- 피부과 환자는 2023년 23만 9,060명으로 전년 대비 563.0% 증가하였으며, 2025년 131만 2,700명으로 전체 진료과목별 환자의 62.9%를 차지함
- 2022~2025년 전체 진료과목별 환자 증가분의 71.2%가 피부과에서 발생하며 외국인환자 시장 확대의 핵심 동력으로 나타남

○ **지난 10년간 외국인환자 시장은 규모가 성장하는 동시에, 수요의 중심이 치료·건강관리에서 피부과와 성형외과로 이동함**

〈표 4〉 2016~2025년 진료과목별 외국인환자 현황

(단위 : 명)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피부과	47,340	43,327	63,671	85,194	15,409	11,979	36,060	239,060	705,044	1,312,700
성형외과	47,881	48,849	66,969	90,494	16,585	16,678	46,314	114,074	141,845	233,100
내과통합	85,075	80,507	89,975	113,442	29,094	47,930	65,424	90,955	124,085	192,208
검진센터	39,743	39,156	41,230	54,185	4,848	18,369	19,260	50,385	55,762	65,228
한방통합	18,011	20,343	22,063	23,273	2,204	2,587	4,462	18,356	33,893	37,087
치과	12,984	13,307	12,483	15,398	3,976	5,749	10,121	15,812	18,313	32,775
정형외과	24,121	22,730	23,864	26,068	7,582	8,994	11,434	15,583	17,031	18,498
산부인과	23,081	20,145	24,472	41,007	8,509	8,964	10,026	14,192	16,387	26,647
안과	12,335	11,402	10,938	13,149	4,312	6,692	8,414	13,591	15,887	22,378
일반외과	13,595	11,238	12,810	15,087	5,241	7,301	9,291	14,154	15,732	19,408
이비인후과	10,980	10,436	10,340	12,555	3,227	3,918	6,908	9,532	8,704	9,650
소아청소년과	15,495	10,535	9,792	12,507	3,490	4,211	6,294	9,821	8,651	8,384
신경외과	12,513	13,068	14,052	15,476	3,695	4,590	6,045	8,234	8,606	8,641
그외진료과	62,226	52,839	61,793	73,031	26,490	33,519	53,297	65,050	74,829	100,696
합계	425,380	397,882	464,452	590,866	134,662	181,481	293,350	678,799	1,244,769	2,087,400

출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통계분석 보고서」

□ 주요 국가의 피부과 수요가 빠르게 확대된 가운데, 내과·건강검진·한방 등 기존 진료수요의 유지 및 성장 양상은 국가별로 차이를 보임

○ 진료과목별 시장 변화가 어느 국가를 중심으로 변화하였는지 파악하기 위해 외국인환자 규모와 성장세, 진료수요의 특성을 고려하여 중국, 일본, 대만, 미국, 태국, 싱가포르, 캐나다, 베트남 및 중동 등을 대상으로 주요 진료과목별 환자 수 변화를 살펴봄

- 외국인환자 시장이 본격적으로 회복·확대된 2023~2025년 동안 주요 국가별 주요 진료과목 환자 수를 중점적으로 확인함

○ (중국) 피부과 중심의 미용 의료 수요가 폭발적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내과통합·검진센터 등 치료·관리형 수요가 함께 성장하는 복합형 시장으로 나타남

- 피부과 환자는 2023년 4만 5,412명에서 2024년 17만 2,014명으로 278.8% 증가하였으며, 2025년 45만 9,521명으로(전년比 +167.1%) 2023년의 약 10.1배 확대됨
- 성형외과 환자의 경우 피부과보다는 규모가 작지만 2025년 성장세가 크게 확대됨(′23년 1만 6,566명 → ′24년 2만 6,537명, 전년比 +60.2% → ′25년 5만 7,121명, 전년比 +115.3%)
- 치료·건강관리형 수요도 함께 확대되어, 내과통합 환자는 2023년 1만 6,734명에서 2024년 2만 5,835명(전년比 +54.4%), 2025년에는 5만 2,420명으로 102.9% 증가함
- 같은 기간 검진센터 환자도 6,737명에서 7,581명, 8,916명으로 각각 12.5%와 17.6% 증가하며 치료 및 건강관리 목적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성장한 것으로 나타남

〈표 5〉 중국 외국인환자의 주요 진료과목 변화(2023~2025년)

(단위 : 명, %)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환자 수	환자 수	전년대비 증감률	환자 수	전년대비 증감률
피부과	45,412	172,014	278.8	459,521	167.1
성형외과	16,566	26,537	60.2	57,121	115.3
내과통합	16,734	25,835	54.4	52,420	102.9
검진센터	6,737	7,581	12.5	8,916	17.6

자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통계분석 보고서」를 바탕으로 연구진 재구성

○ (일본) 피부과 환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며 주요 진료수요를 형성한 가운데, 성형외과와 내과통합 환자도 함께 증가함

- 일본의 피부과 환자는 2023년 12만 746명에서 2024년 30만 8,116명으로 155.2% 증가하였으며, 2025년에는 39만 9,964명으로 전년 대비 29.8% 증가함
- 성형외과 환자도 2025년 9만 7,847명으로 전년 대비 58.0% 증가하여 피부과와 함께 피부·미용 수요의 확대를 뒷받침함
- 내과통합 환자는 2024년 2만 7,963명(전년比 +102.6%)에서 2025년 3만 7,855명(전년比 +35.4%)으로 증가하며 일본의 치료 목적 수요도 지속적으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남
- 한편, 한방통합은 2024년 150.9% 증가한 후 2025년 12.2% 감소하였으나, 일정 규모의 의료수요를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남

- 과거 일본의 주요 진료과목은 피부과, 성형외과, 내과통합, 한방통합 등으로 수요가 비교적 분산되어 있었으나, 최근 피부과 환자가 급증하며 피부과 중심으로 강하게 집중됨

〈표 6〉 일본 외국인환자의 주요 진료과목 변화(2023~2025년)

(단위 : 명, %)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환자 수	환자 수	전년대비 증감률	환자 수	전년대비 증감률
피부과	120,746	308,116	155.2	399,964	29.8
성형외과	37,558	61,918	64.9	97,847	58.0
내과통합	13,800	27,963	102.6	37,855	35.4
한방통합	10,649	26,716	150.9	23,450	-12.2

자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통계분석 보고서」를 바탕으로 연구진 재구성

○ **(대만) 피부과 환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며 주요 국가 중 피부과 집중도가 가장 높은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성형외과·내과통합 수요도 함께 확대됨**

- 피부과 환자는 2023년 6,042명에서 2024년 6만 7,487명(전년比 +1,017.0%), 2025년 14만 9,126명(전년比 +121.0%)으로 증가하여, 2년간 약 24.7배 확대됨
- 성형외과 환자는 2023년 5,566명에서 2024년 1만 269명(전년比 +84.5%), 2025년 1만 6,453명(전년比 +60.2%)으로 2년간 약 3.0배 증가함
- 내과통합 환자는 2023년 228명에서 2024년 3,715명, 2025년 1만 1,621명(전년比 +212.8%)으로 증가하여 성형외과의 약 70% 수준까지 성장함
- 대만의 안과 환자는 2023년 60명에서 2024년 747명(전년比 +1,145.0%), 2025년 2,137명(전년比 +186.1%)으로 증가하며 환자 규모는 피부과·성형외과보다 작지만, 2년간 약 35.6배로 확대되어 내과통합과 함께 피부·미용 외 진료수요의 증가가 확인됨

〈표 7〉 대만 외국인환자의 주요 진료과목 변화(2023~2025년)

(단위 : 명, %)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환자 수	환자 수	전년대비 증감률	환자 수	전년대비 증감률
피부과	6,042	67,487	1,017.0	149,126	121.0
성형외과	5,566	10,269	84.5	16,453	60.2
내과통합	228	3,715	1,529.4	11,621	212.8
안과	60	747	1,145.0	2,137	186.1

자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통계분석 보고서」를 바탕으로 연구진 재구성

○ **(미국) 피부과 수요가 가장 크게 확대된 가운데, 내과통합·검진센터 등 치료·건강관리 수요도 꾸준히 증가하는 균형형 시장으로 나타남**

- 미국의 내과통합 환자는 2023년 1만 6,048명에서 2024년 1만 7,324명으로 8.0% 증가하였으며, 2025년에는 2만 5,551명(전년比 +47.5%)으로 증가함
- 같은 기간 검진센터 환자도 1만 548명에서 1만 1,780명(전년比 +11.7%), 2025년 1만 5,695명(전년比 +33.2%)으로 증가하며 건강검진과 질환 관리 목적의 의료 수요가 지속적

으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남

- 한편, 피부과 환자는 2023년 1만 7,486명에서 2025년 8만 5,493명으로 약 4.9배 확대되었으며, 같은 기간 내과통합과 검진센터 환자도 증가하여 기존 진료수요와 피부과 수요가 함께 확대된 것으로 확인됨

〈표 8〉 미국 외국인환자의 주요 진료과목 변화(2023~2025년)

(단위 : 명, %)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환자 수	환자 수	전년대비 증감률	환자 수	전년대비 증감률
피부과	17,486	39,894	128.1	85,493	114.3
내과통합	16,048	17,324	8.0	25,551	47.5
성형외과	14,299	11,250	-21.3	17,993	59.9
검진센터	10,548	11,780	11.7	15,695	33.2

자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통계분석 보고서」를 바탕으로 연구진 재구성

○ (태국) 피부과와 성형외과가 환자의 80% 이상을 차지하며, 피부과 중심으로 재편되는 미용 특화 시장으로 최근 내과통합 수요도 빠르게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남

- 피부과 환자는 2025년 3만 9,667명으로 전년 대비 62.0% 증가하며 주요 진료과목 중 가장 큰 규모로 나타났으며, 2023년(1만 4,262명)의 약 2.8배로 확대됨
- 성형외과의 경우 2024년 전년 대비 42.3% 감소(6,438명) 한 후, 2025년 일부 회복되었으나, 2023년(1만 1,160명) 수준보다 낮음
- 한편, 내과통합은 2025년 6,156명으로 전년 대비 77.5% 증가하며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치과도 연간 1천명 이상의 환자 규모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9〉 태국 외국인환자의 주요 진료과목 변화(2023~2025년)

(단위 : 명, %)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환자 수	환자 수	전년대비 증감률	환자 수	전년대비 증감률
피부과	14,262	24,492	71.7	39,667	62.0
성형외과	11,160	6,438	-42.3	8,358	29.8
내과통합	2,143	3,469	61.9	6,156	77.5
치과	1,152	1,395	21.1	1,208	-13.4

자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통계분석 보고서」를 바탕으로 연구진 재구성

○ (싱가포르) 피부과 중심의 미용의료 수요가 압도적인 가운데, 최근 내과통합·안과 수요도 빠르게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남

- 피부과 환자는 2023년 6,826명에서 2024년 2만 1,295명(전년比 +212.0%), 2025년 3만 3,402명(전년比 +56.9%)으로 약 4.9배 확대됨. 2025년 4개 주요 과목 환자의 81.3%를 차지하며 수요가 피부과에 집중됨
- 성형외과는 2023년 5,206명에서 2024년 2,706명(전년比 -48.0%)으로 크게 감소한 뒤, 2025년 3,843명(전년比 +42.0%)으로 반등했으나, 2023년 대비 26.2% 낮은 수준임

- 내과통합은 2023년 367명에서 2024년 1,011명(전년比 +175.5%), 2025년 3,315명(전년比 +227.9%)으로 약 9.0배 확대되었으며, 주요 진료과목 중 가장 빠른 증가 속도를 보이며 신규 수요 분야로 부상함
- 안과는 2023년 156명에서 2024년 222명(전년比 +42.3%), 2025년 502명(전년比 +126.1%)으로 약 3.2배 증가하며, 절대 규모는 작으나 뚜렷한 증가세를 보임

〈표 10〉 싱가포르 외국인환자의 주요 진료과목 변화(2023~2025년)

(단위 : 명, %)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환자 수	환자 수	전년대비 증감률	환자 수	전년대비 증감률
피부과	6,826	21,295	212.0	33,402	56.9
성형외과	5,206	2,706	-48.0	3,843	42.0
내과통합	367	1,011	175.5	3,315	227.9
안과	156	222	42.3	502	126.1

자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통계분석 보고서」를 바탕으로 연구진 재구성

○ **(캐나다) 피부과 중심의 미용의료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검진센터·내과통합 등 건강관리 수요도 꾸준히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남**

- 캐나다의 피부과 환자는 2023년 2,619명에서 2024년 7,520명으로 전년 대비 187.1% 증가 하였으며, 2025년 1만 3,246명(전년比 +76.1%)으로 약 5.1배 늘며 최대 수요 분야로 자리 잡음
- 검진센터는 2023년 1,974명에서 2024년 2,165명(전년比 +9.7%), 2025년 2,837명(전년比 +31.0%)으로 증가하였으며, 2025년 진료과목 중 두 번째로 큰 규모로 건강검진 수요가 안정적으로 이어짐
- 성형외과는 2023년 1,794명에서 2024년 1,718명(전년比 -4.2%)으로 소폭 감소했으나, 2025년 2,704명(전년比 +57.4%)으로 크게 반등하여 2023년 대비 약 1.5배 수준으로 확대됨
- 내과통합은 2023년 1,234명에서 2024년 1,415명(전년比 +14.7%), 2025년 2,160명(전년 比 +52.7%)으로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표 11〉 캐나다 외국인환자의 주요 진료과목 변화(2023~2025년)

(단위 : 명, %)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환자 수	환자 수	전년대비 증감률	환자 수	전년대비 증감률
피부과	2,619	7,520	187.1	13,246	76.1
검진센터	1,974	2,165	9.7	2,837	31.0
성형외과	1,794	1,718	-4.2	2,704	57.4
내과통합	1,234	1,415	14.7	2,160	52.7

자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통계분석 보고서」를 바탕으로 연구진 재구성

○ (베트남) 피부과가 최대 진료과목으로 부상하였으나, 내과통합·치과 등 치료 수요의 비중이 높아 주요국 중 진료수요가 가장 분산된 시장으로 나타남

- 피부과 환자는 2023년 2,059명에서 2024년 3,660명(전년比 +77.8%), 2025년 5,224명(전년比 +42.7%)으로 약 2.5배로 증가하였으며, 2025년 진료과목 중 가장 큰 환자 규모를 형성함
- 성형외과는 2023년 3,655명에서 2024년 2,777명(전년比 -24.0%)으로 감소했으나, 2025년 3,783명(전년比 +36.2%)으로 반등하며 2023년 수준을 회복함
- 내과통합은 2023년 3,682명에서 2024년 3,848명(전년比 +4.5%), 2025년 4,641명(전년比 +20.6%)으로 꾸준히 증가한 반면, 검진센터는 2024년 2,911명(전년比 +45.3%)으로 증가한 뒤 2025년 1,480명으로 49.2% 감소함
- 치과는 2023년 3,496명에서 2024년 2,060명(전년比 -41.1%)으로 감소한 뒤, 2025년 2,638명(전년比 +28.1%)으로 증가하였으나, 2023년 대비 24.5% 낮은 수준임

〈표 12〉 베트남 외국인환자의 주요 진료과목 변화(2023~2025년)

(단위 : 명, %)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환자 수	환자 수	전년대비 증감률	환자 수	전년대비 증감률
피부과	2,059	3,660	77.8	5,224	42.7
내과통합	3,682	3,848	4.5	4,641	20.6
성형외과	3,655	2,777	-24.0	3,783	36.2
치과	3,496	2,060	-41.1	2,638	28.1

자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통계분석 보고서」를 바탕으로 연구진 재구성

○ (중동) 내과통합 수요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가운데, 피부과를 중심으로 성형외과와 한방통합 수요가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남

- 중동의 내과통합 환자는 2023년 1,297명에서 2025년 1,342명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남
- 피부과는 2023년 855명에서 2024년 2,288명(전년比 +167.6%), 2025년에는 5,017명(전년比 +119.3%)으로 2023~2025년 약 5.9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성형외과 환자는 2024년 639명으로 전년 대비 16.7% 감소하였으나, 2025년 949명(전년比 +48.5%)으로 증가하며 피부과의 급성장과 함께 미용 의료 수요가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남
- 한편, 중동의 한방통합 환자는 2023년 275명에서 2025년 803명으로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환자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지만 2년간 약 2.9배 증가하며 한방 치료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남

〈표 13〉 중동 외국인환자의 주요 진료과목 변화(2023~2025년)

(단위 : 명, %)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환자 수	환자 수	전년대비 증감률	환자 수	전년대비 증감률
피부과	855	2,288	167.6	5,017	119.3
내과통합	1,297	1,330	2.5	1,342	0.9
성형외과	767	639	-16.7	949	48.5
한방통합	275	453	64.7	803	77.3

자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통계분석 보고서」를 바탕으로 연구진 재구성

□ (소결) 한국의 외국인환자 유치시장은 코로나19 이후 단순 회복을 넘어 빠르게 확대되고 있으나, 성장의 중심이 주요 국가와 피부과에 집중되면서 시장 규모의 확대와 수요 기반의 다변화가 서로 다른 양상으로 나타남

○ (성장구조) 한국의 외국인환자 시장은 중국, 일본, 대만, 미국 등 주요 국가와 피부과 수요가 견인하는 구조로 국가와 진료과목의 집중이 심화됨

- 외국인환자 수는 2023년 60만 5,768명에서 2025년 201만 1,822명으로 2년간 약 3.3배 증가하였으며, 같은 기간 증가분의 84.5%가 4개국(중국, 일본, 대만, 미국)에서 발생하여 4개국의 시장 비중은 64.3%에서 78.4%로 상승함
- 진료과목별로도 환자 증가분의 76.2%가 피부과에서 발생하였으며, 피부과 증가분의 84.2%가 다시 4개국에서 나타나, 국가 집중과 진료과목 집중이 '핵심시장의 피부과 수요'라는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짐

○ (수요 재편) 피부과의 급성장으로 치료·건강관리 수요가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아지며 진료과목별 격차가 확대됨

- 내과통합과 검진센터는 환자 수가 증가하였으나 비중은 각각 19.2%에서 9.2%, 9.2%에서 3.1%로 하락하였으며, 이는 해당 수요의 감소보다 피부과의 급성장에 따른 결과임
- 피부과 외 진료과목의 환자 증가율도 2024년 22.7%에서 2025년 43.5%로 높아졌으나, 피부과 증가율(86.2%)에는 미치지 못하여 피부과 비중은 56.6%에서 62.9%로 상승함
- 반면 산부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소아청소년과, 이비인후과 등은 2025년에도 2019년 규모를 회복하지 못하여, 시장 확대가 모든 진료 분야의 회복으로 이어지지는 않음

○ (국가별 차이) 핵심시장 집중 속에서도 국가별 성장 속도와 진료수요 구성은 뚜렷하게 다르게 나타남

- 핵심시장 내에서도 중국은 피부과 주도 속 다양한 진료과목이 함께 확대되고, 일본은 대규모 피부·미용 수요가 유지되나 성장이 둔화되었으며, 대만은 피부과 중심의 급성장, 미국은 치료·건강관리 수요 기반 위에 피부과 수요가 더해지는 구조임
- 태국,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와 캐나다, 호주는 빠르게 성장하며 유치 국가의 저변을 넓히고 있으나, 피부과 수요의 비중이 높아 국가 다변화가 진료수요의 다변화로 이어지지는 못함

- 몽골, 베트남, 카자흐스탄은 전체 시장보다 성장 속도가 낮으며, 러시아는 2019년 규모의 67.8%에 머물러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함

○ **(국가별 시장 유형) 외국인환자 유치실적의 환자 규모, 성장성, 진료수요 구성을 기준으로 국가별 시장을 유형화한 결과는 〈표 14〉와 같음**

- (1단계 : 시장 구분) 2025년 환자 규모, 2023~2025년 증가배수, 2019년 대비 회복 수준을 기준으로 핵심시장, 성장시장, 신흥 성장시장, 장거리 성장시장, 전통 유치시장, 회복 지연시장, 관찰시장으로 구분함
- (2단계 : 세부 유형) 진료과목별 환자 구성과 변화를 기준으로 피부·미용 수요와 내과통합·검진센터 등 치료·건강관리 수요의 비중 및 증가 양상에 따라 세부 유형을 구분하였으며, 진료과목별 자료가 제시되지 않은 국가는 1단계 기준으로만 유형을 구분함
- 본 유형은 외국인환자 유치실적만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의료소비와 관광행태를 반영하면 국가별 위상이 달라질 수 있으며, 세 자료를 종합한 유형은 6장에서 제시함

〈표 14〉 외국인환자 유치실적으로 본 국가별 시장 유형 및 주요 특징

국가	유형	핵심 특징
중국	(핵심시장) 미용견인 복합성장형	- 2025년 61.9만 명으로 최대 시장으로 부상 - 피부과가 성장을 주도하며 내과통합, 성형외과, 검진센터에 대한 수요도 증가함 - 피부과 집중 심화와 다분야 진료수요의 확대가 병행됨
일본	(핵심시장) 대규모 미용수요 유지형	- 피부과의 대규모 수요(주요 4개 과목 중 71.5%) - 2025년 증가율 36.0%로 둔화되며 시장 비중 하락(37.7% → 29.8%) 하였으나, 시장의 절대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됨
대만	(핵심시장) 미용특화 초고속 성장형	- 2025년 미국을 넘어 3위 시장으로 부상 - 피부과 환자가 2023년 대비 2025년 24.7배 증가하며 시장 확대를 주도
미국	(핵심시장) 치료기반 미용결합형	- 내과통합, 검진센터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피부과수요가 빠르게 확대됨 - 기존 치료·건강관리 수요 기반과 함께 미용에 대한 수요가 공존 - 주요국가 중 수요 구성이 가장 균형적
태국	(성장시장) 미용주도 치료확장형	- 2025년 5.8만 명으로 동남아시아 최대 시장 - 피부과가 성장을 주도하며 내과통합도 함께 증가 - 성형외과는 2023년 수준을 밑도는 반면, 내과통합은 2023년 대비 2025년 최고 증가율을 기록하며 치료수요가 확대됨
싱가포르·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신흥 성장시장) 소규모 고성장형	- 핵심시장보다 규모는 작으나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으로 유치 국가의 저변을 넓힘
캐나다·호주	(장거리 성장시장) 원거리 수요 확산형	- 2개국 합계 '25년 4.4만 명. '19년 대비 5.7배로 전체 시장(4.0배)을 상회 - 전체 시장의 2.2%를 차지하며, 미국과 함께 장거리 국가의 수요 기반을 넓힘
몽골·베트남 ·카자흐스탄	(전통 유치시장) 저성장형	- 환자수는 증가하였으나, 전체 시장의 성장 속도에 미치지 못함 - 기존 수요 기반은 유지되지만 최근 시장 확대에 대한 기여는 상대적으로 제한적
러시아	(회복 지연시장) 구조적 회복 지연형	- '25년 2.0만 명(+21.9%)이나 '19년의 67.8% 수준 - 최근 환자수가 증가하고 있으나, 코로나19 이전 규모를 회복하지 못함
중동	(관찰시장) 치료기반 미용전환형	- 내과통합 수요가 유지되는 가운데 피부과, 성형외과, 한방통합이 증가함 - 기존 치료수요의 증가보다 피부과를 중심으로 한 수요 확대가 두드러짐

자료: 연구진 작성

4. 외국인 의료소비 현황과 국가별 특성

□ 외국인환자 유치실적에서 확인된 국가별 시장 규모와 성장 특성을 의료소비 측면에서 살펴보기 위하여 시장 대표성, 데이터 연계성 및 유형 대표성을 고려하여 국가를 선정하고 국가별 의료소비 특성을 파악함

○ 앞에서 살펴본 외국인환자 수는 시장의 규모와 진료수요를 보여줄 뿐, 실제 지출 규모와 소비 구조는 보여주지 않으므로, 환자 수의 증가를 곧 의료관광의 가치 확대로 해석하기는 어려움

- 이에 한국관광데이터랩의 의료관광 관련 지표 중 국가별·진료과목별 카드 의료소비 데이터를 활용하여, 외국인환자 유치실적에서 확인된 국가별 시장 규모와 진료수요의 변화가 실제 의료소비의 규모, 단가, 진료과목 구성으로도 나타나는지 살펴봄

○ 분석 대상은 시장 대표성, 데이터 연계성 및 유형 대표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함

- (핵심시장) 중국, 일본, 대만, 미국은 외국인환자 유치 규모와 최근 성장 기여도가 높은 핵심시장으로 2025년 4개국 외국인 환자는 전체의 78.4%(157만 8,060명)를 차지함. 주요 핵심국가의 의료소비 건수, 소비금액, 건당 소비금액의 변화와 주요 진료과목별 소비 비중을 살펴보고 유치실적에서 확인된 진료수요와 소비구조를 비교함
- (후속 성장시장) 동남아시아의 태국,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와 장거리 시장인 캐나다, 호주는 최근 환자 유치가 빠르게 확대된 시장으로, 환자 유치 확대가 어떠한 소비구조의 의료소비 증가로 이어지는지 살펴봄
- (기존 수요시장) 몽골, 베트남, 카자흐스탄은 코로나19 이전부터 일정 규모의 환자를 유치해 온 시장으로, 핵심시장과 비교하여 소비 규모와 주요 소비 분야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함
- (중동) 한국관광데이터랩에서 의료소비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아라비아 2개국을 대상으로 하며, 기존 치료 관련 소비와 진료과목 구성의 변화를 살펴봄
- 그 밖의 국가는 자료 확보 여부와 국가별 집계 범위의 일치 여부를 검토하여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참고자료로 활용함

○ 분석기간은 세 자료 간 비교 기준과 동일하게 외국인환자 시장이 본격적으로 회복·확대된 2023~2025년으로 설정함

○ (약국 소비의 처리) 카드 의료소비에는 약국 결제가 포함되나, 약국 소비는 처방약 외에 일반의약품과 건강 관련 제품 구매가 포함될 수 있어 의료기관 이용과의 연계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움

- 이에 전체 의료소비 현황에는 약국을 포함하여 제시하되, 국가별 소비구조와 건당 소비금액은 약국을 제외한 의료기관 소비를 중심으로 해석하고 약국 소비는 참고지표로 활용함

〈표 15〉 의료소비 분석 지표

구분	지표	정의 및 활용
규모	소비건수, 소비금액	- 국가별 카드 결제건수와 결제금액 - 시장규모와 성장 속도 파악
	소비금액 비중	- 전체 외국인 의료소비 대비 국가별 비중으로 시장 내 위상 변화를 파악
구조	진료과목별 소비 비중	- 의료기관 소비금액 중 진료과목별 비중으로 미용·치료 소비 구조를 파악
단가	건당 소비금액	- 소비금액 ÷ 소비건수
	의료기관 건당 소비금액	- 약국을 제외한 의료기관 소비금액 ÷ 소비건수

□ 외국인 의료소비는 2023년 이후 소비건수와 소비금액 모두 빠르게 증가하며 시장 규모가 급격하게 확대됨

○ 2023~2025년 외국인의 의료소비 현황을 살펴본 결과, 소비건수는 2023년 165만 9천 건에서 2025년 383만 2천 건으로 약 2.3배 증가함

○ 같은 기간 의료 소비금액은 5,817억 원에서 1조 7,228억 원으로 약 3.0배 확대되었으며, 연평균 소비금액 증가율은 72.1%로 빠르게 증가함

○ 건당 소비금액 역시 2023년 35만 1천 원에서 2024년 40만 9천 원, 2025년 45만 원으로 상승하였으며, 약국을 제외한 의료기관 건당 소비금액은 2023년 66만 5천 원에서 2025년 100만 8천 원으로 51.6% 증가해 의료서비스 자체 단가 상승이 뚜렷하게 나타남

〈표 16〉 2023~2025년 외국인 의료소비 현황

구분	2023년	2024년	전년 대비	2025년	전년 대비	2023년 대비
소비건수(건)	1,659,088	2,536,768	52.9	3,832,383	51.1	131.0
소비금액(원)	5,817억	1조 388억	78.6	1조 7,228억	65.9	196.2
건당 소비금액(원)	35.1만	40.9만	16.8	45.0만	9.8	28.2

자료: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 데이터랩 「의료관광 현황」의 외국인 의료소비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진 재구성

□ 외국인 의료소비는 피부과를 중심으로 급성장하였으며, 피부과와 성형외과가 전체 의료소비 금액의 84.6%를 차지함

○ 피부과 소비건수는 2023년 30만 7천 건에서 2025년 85만 건으로 176.6% 증가하였으며, 소비금액은 1,910억 원에서 9,391억 원으로 391.7% 증가해 핵심 성장 분야로 확인됨

- 피부과 소비금액은 2023년에는 성형외과보다 적었으나, 2024년 성형외과를 넘어 최대 의료소비 분야로 부상하였으며, 2025년 의료기관 소비금액의 58.8%를 차지함
- 피부과의 건당 소비금액은 62만 1천 원에서 110만 4천 원으로 77.8% 상승하여, 이용 확대와 함께 단가도 빠르게 높아짐

○ **성형외과의 성장 속도는 피부과보다 낮으나, 가장 높은 단가의 고액 소비 분야로 확인됨**

- 성형외과 소비건수는 2023년 14만 6천 건에서 2025년 21만 7천 건(+48.7%)으로 증가하였으며, 소비금액 역시 2,113억 원에서 4,114억 원(+94.7%)으로 증가함
- 한편, 2025년 성형외과의 건당 소비금액은 189만 3천 원으로 모든 진료과목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치료 관련 진료과목의 비중은 낮아졌으나, 절대적인 규모는 꾸준히 확대됨**

- 대학·종합병원 소비금액은 2023년 874억 원에서 2025년 1,220억 원으로 39.6% 증가하였으며, 치과(375억 원 → 689억 원)와 안과(123억 원 → 319억 원)도 각각 약 1.8배, 2.6배 늘어남
- 다만 대학·종합병원이 의료기관 소비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5.8%에서 7.6%로 낮아져, 피부·미용의 빠른 성장 속에서 상대적 비중은 축소됨

○ **한편, 약국 소비건수는 2023년 82만 6천 건에서 2025년 224만 7천 건으로 늘어 2025년 전체 의료 소비건수의 58.6%를 차지하나, 소비금액 비중은 7.3%에 그침**

〈표 17〉 2023~2025년 진료과목별 외국인 의료 소비 현황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소비 건수 (만건)	소비 금액 (억원)	건당 금액 (만원)	소비 건수 (만건)	소비 금액 (억원)	건당 금액 (만원)	소비 건수 (만건)	소비 금액 (억원)	건당 금액 (만원)
피부과	30.7	1,910	62.1	62.1	4,982	80.2	85.0	9,391	110.4
성형외과	14.6	2,113	144.6	19.3	3,021	156.7	21.7	4,114	189.3
대학·종합병원	20.6	874	42.5	21.2	979	46.1	24.3	1,220	50.2
치과	9.0	375	41.4	11.4	505	44.1	14.3	689	48.3
안과	2.8	123	44.2	3.8	214	56.2	4.8	319	66.0
한의학과	5.3	143	27.1	6.7	195	29.1	8.1	236	29.2
한방병원	0.2	1.2	5.0	0.3	1.0	4.1	0.3	1.7	5.6
의료기관 소계	83.3	5,539	66.5	124.8	9,898	79.3	158.5	15,970	100.8
약국	82.6	278	3.4	128.9	490	3.8	224.7	1,258	5.6
전체	165.9	5,817	35.1	253.7	10,388	40.9	383.2	17,228	4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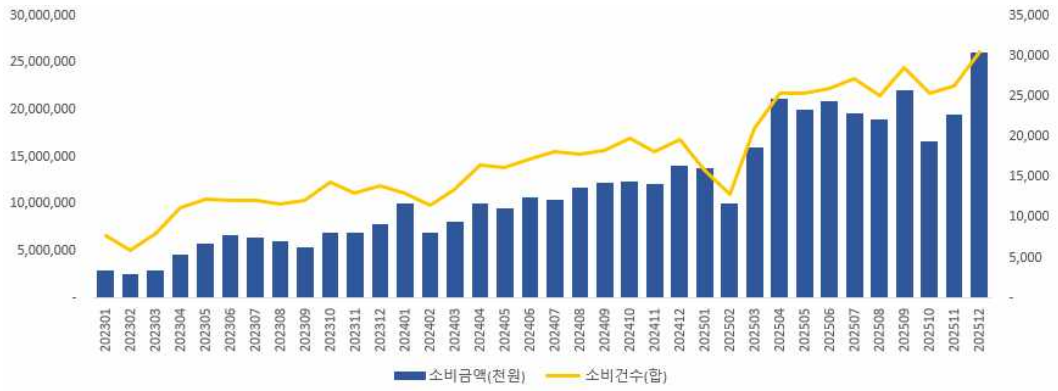
주) 진료과목별 소비건수와 소비금액은 연간 총계에 공표 구성비를 적용한 추정치로, 구성비 반올림에 따라 실제 집계값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소비건수와 건당 소비금액은 각각 카드 결제건수와 결제 1건당 평균금액임
자료: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 데이터랩 「의료관광 현황」의 외국인 의료소비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진 재구성

□ (중국) 소비건수 대비 소비금액이 증가하면서 고액 피부·미용 소비시장으로 나타남

○ 중국의 의료 소비건수는 2023년 13만 4,282건에서 2024년 48.8% 증가한 19만 9,764건으로 나타났으며, 2025년에는 28만 9,409건으로 전년 대비 44.9% 증가함

- 전체 외국인 의료소비 중 소비건수 비중은 8.1%에서 7.6%로 낮아진 반면, 소비금액 비중은 11.2%에서 13.0%로 증가함

○ 건당 소비금액은 48만 4천 원에서 77만 7천 원으로 60.3% 상승하여 분석 국가 중 가장 높으며, 약국을 제외한 의료기관 건당 소비금액도 111만 5천 원에서 194만 7천 원으로 증가함



[그림 1] 2023~2025년 중국의 월별 의료소비 추이

출처: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 데이터랩「의료관광 현황」

〈표 18〉 2023~2025년 중국의 의료소비 현황

구분	2023년	2024년	전년 대비	2025년	전년 대비	2023년 대비
소비건수(건)	134,282	199,764	48.8	289,409	44.9	115.5
전체 외국인 소비건수 대비 비중(%, %p)	8.1	7.9	-0.2	7.6	-0.3	-0.5
소비금액(억원)	650	1,284	97.5	2,248	75.0	245.6
전체 외국인 소비금액 대비 비중(%, %p)	11.2	12.4	1.2	13.0	0.6	1.8
건당 소비금액(만원)	48.4	64.3	32.8	77.7	20.8	60.3

자료: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 데이터랩「의료관광 현황」의 외국인 의료소비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진 재구성

○ 중국의 의료 소비는 피부과를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는 가운데 최대 소비 분야로 성장함

- 중국의 피부과 소비건수는 2023년 2.5만 건에서 2025년 7.3만 건으로 약 2.9배, 소비금액은 333억 원에서 1,621억 원으로 약 4.9배 증가하였으며, 의료기관 소비금액 중 피부과 비중은 2023년 54.3%에서 2025년 75.0%로 높아짐
- 건당 소비금액도 132만 원에서 223만 4천 원으로 69.2% 상승하여, 이용 확대와 함께 고액 시술 중심으로 소비가 이루어짐

○ 성형외과의 2025년 건당 소비금액은 272만 1천 원으로 진료과목 중 가장 높으나, 의료기관 소비금액 중 비중은 29.4%에서 19.8%로 낮아짐

○ 치료 관련 소비 규모는 정체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피부·미용 집중이 심화됨

- 대학·종합병원 소비금액은 2023년과 2025년 모두 52억 원으로 나타났으며, 소비건수는 1.2만 건에서 0.8만 건으로 줄고 건당 소비금액은 42만 5천 원에서 63만 3천 원으로 증가함

〈표 19〉 2023~2025년 중국의 주요 진료과목별 소비 현황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소비 건수 (만건)	소비 금액 (억원)	건당 금액 (만원)	소비 건수 (만건)	소비 금액 (억원)	건당 금액 (만원)	소비 건수 (만건)	소비 금액 (억원)	건당 금액 (만원)
피부과	2.5	333	132.0	4.8	849	178.3	7.3	1,621	223.4
성형외과	0.8	180	219.9	1.2	280	225.3	1.6	427	272.1
대학·종합병원	1.2	52	42.5	0.7	43	57.4	0.8	52	63.3
치과	0.5	28	55.2	0.6	34	59.4	0.7	33	48.8
한의학과	0.3	12	41.9	0.4	15	40.6	0.4	16	39.1
기타	0.2	8	50.4	0.2	10	50.6	0.3	12	46.6

주1) 기타는 안과와 한약방 합계를 의미함
주2) 진료과목별 소비건수와 소비금액은 연간 총계에 공표 구성비를 적용한 추정치로, 구성비 반올림에 따라 실제 집계값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소비건수와 건당 소비금액은 각각 카드 결제건수와 결제 1건당 평균금액임
자료: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 데이터랩「의료관광 현황」의 외국인 의료소비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진 재구성

□ (일본) 대규모 피부·미용 소비 시장으로 전체 의료소비 규모는 빠르게 확대되었으나 전체 시장 내 소비금액 비중은 낮아짐

○ 일본의 의료 소비건수는 2023년 30만 5,299건에서 2024년 57만 874건(전년比 +87.0%), 2025년 83만 142건(전년比 +45.4%)으로 증가하여 2년간 약 2.7배 확대됨

- 소비금액은 2023년 약 1,300억 원에서 2025년 3,154억 원으로 142.6% 증가함
- 전체 외국인 의료소비 중 소비건수 비중은 2023년 18.4%에서 2025년 21.7%로 높아진 반면, 소비금액 비중은 2023년 22.3%에서 2025년 18.3%로 낮아짐



[그림 2] 2023~2025년 일본의 월별 의료소비 추이
출처: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 데이터랩「의료관광 현황」

〈표 20〉 2023~2025년 일본의 의료소비 현황

구분	2023년	2024년	전년 대비	2025년	전년 대비	2023년 대비
소비건수(건)	305,299	570,874	87.0	830,142	45.4	171.9
전체 외국인 소비건수 대비 비중(%, %p)	18.4	22.5	4.1	21.7	-0.8	3.3
소비금액(억원)	1,300	2,343	80.2	3,154	34.6	142.6
전체 외국인 소비금액 대비 비중(%, %p)	22.3	22.6	0.3	18.3	-4.3	-4.0
건당 소비금액(만원)	42.6	41.0	-3.6	38.0	-7.4	-10.8

자료: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 데이터랩 「의료관광 현황」의 외국인 의료소비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진 재구성

○ **약국을 제외한 의료기관 소비는 피부과·성형외과에 고도로 집중되어 있으며, 의료기관 건당 소비금액은 상승함**

- 의료기관 소비금액은 2023년 1,258억 원에서 2025년 2,857억 원으로 약 2.3배 증가하였으며, 건당 소비금액은 62만 9천 원에서 73만 8천 원으로 상승함
- 2025년 피부과·성형외과는 의료기관 소비금액의 94.2%를 차지하여, 치료형 진료가 분산된 복합시장이 아닌 피부·미용에 고도로 집중된 시장으로 확인됨

○ **피부과가 이용 확대를 주도하며 최대 소비 분야로 자리 잡았으나, 건당 소비금액은 다른 핵심시장보다 낮은 수준임**

- 피부과 소비건수는 2023년 13만 건에서 2025년 28만 8천 건으로 늘어, 2025년 의료기관 결제 약 4건 중 3건(74.4%)이 피부과에서 발생하였으며, 피부과 소비금액은 같은 기간 629억 원에서 1,869억 원으로 약 3배 확대되어, 의료기관 소비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0%에서 65.4%로 높아짐
- 피부과 건당 소비금액은 2023년 48만 2천 원에서 2025년 65만 원으로 상승하였으나, 성형외과(2025년 110만 7천 원)의 약 60%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금액의 시술을 자주 이용하는 소비 특성을 보임
- 성형외과는 소비금액이 536억 원에서 823억 원으로 증가하였으며, 건당 소비금액은 105만 9천 원에서 110만 7천 원으로 소폭 상승하여 피부과에 비해 완만한 성장을 보임

○ **피부·미용 외 분야에서는 치과가 고액 진료 분야로 성장함**

- 치과 소비금액은 2023년 31억 원에서 2025년 80억 원으로 약 2.6배 증가하였으며, 건당 소비금액도 66만 원에서 94만 2천 원으로 42.7% 상승하여 피부과·성형외과 이외 진료과목 중 성장세가 가장 뚜렷함
- 반면 대학·종합병원 소비금액은 22억 원에서 17억 원으로 감소하여, 치료 목적의 종합적인 진료 소비는 확대되지 않음

〈표 21〉 2023~2025년 일본의 주요 진료과목별 소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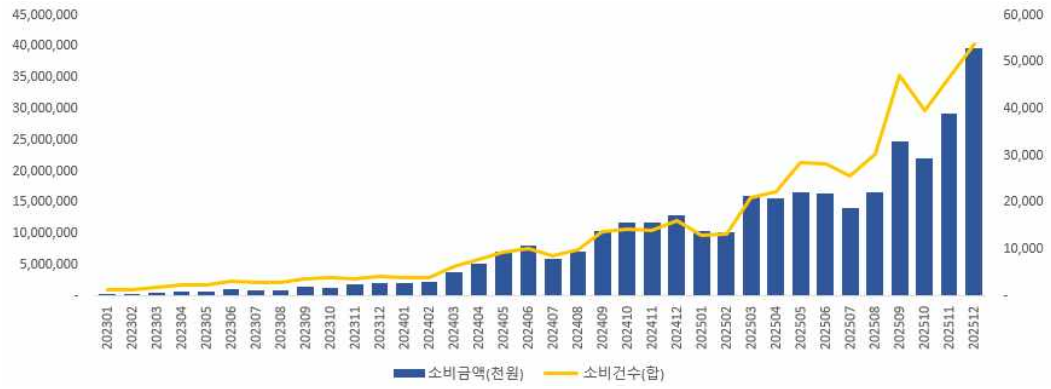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소비 건수 (만건)	소비 금액 (억원)	건당 금액 (만원)	소비 건수 (만건)	소비 금액 (억원)	건당 금액 (만원)	소비 건수 (만건)	소비 금액 (억원)	건당 금액 (만원)
피부과	13.0	629	48.2	26.3	1,376	52.3	28.8	1,869	65.0
성형외과	5.1	536	105.9	7.1	739	103.4	7.4	823	110.7
치과	0.5	31	66.0	0.6	50	83.2	0.8	80	94.2
한의학과	0.7	37	49.7	0.8	43	54.1	1.0	50	52.5
대학·종합병원	0.6	22	38.7	0.4	14	32.4	0.5	17	35.3
기타	0.1	3	25.6	0.2	11	62.2	0.2	18	86.6

주1) 기타는 안과와 한약방 합계를 의미함
주2) 진료과목별 소비건수와 소비금액은 연간 총계에 공표 구성비를 적용한 추정치로, 구성비 반올림에 따라 실제 집계값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소비건수와 건당 소비금액은 각각 카드 결제건수와 결제 1건당 평균금액임
자료: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 데이터랩「의료관광 현황」의 외국인 의료소비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진 재구성

□ (대만) 피부과를 중심으로 최근 가장 빠르게 성장하며 2년 만에 전체 외국인 의료소비 금액의 10% 이상을 차지함

○ 대만의 의료 소비건수 및 소비금액은 모두 급증하며 전체 외국인 의료소비 시장 내 위상이 빠르게 높아짐

- 의료 소비건수는 2023년 3만 3,808건에서 2025년 36만 9,602건으로 약 10.9배, 소비금액은 2023년 약 125억 원에서 2025년 약 2,318억 원으로 약 18.5배 확대됨
- 전체 외국인 의료소비 중 대만의 비중은 2023년에서 2025년 사이 소비건수 기준 2.0%에서 9.6%로, 소비금액 기준 2.1%에서 13.5%로 높아짐
- 전체 건당 소비금액은 2025년 62만 7천 원으로 전년(74만 8천 원)보다 낮아졌으나 이는 약국 결제 증가에 따른 것으로, 약국을 제외한 의료기관 건당 소비금액은 2023년 82만 1천 원에서 2025년 161만 1천 원으로 약 2배 상승함



[그림 3] 2023~2025년 대만의 월별 의료소비 추이
출처: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 데이터랩「의료관광 현황」

〈표 22〉 2023~2025년 대만의 의료소비 현황

구분	2023년	2024년	전년 대비	2025년	전년 대비	2023년 대비
소비건수(건)	33,808	118,267	249.8	369,602	212.5	993.2
전체 외국인 소비건수 대비 비중(%, %p)	2.0	4.7	2.7	9.6	4.9	7.6
소비금액(억원)	125	884	607.4	2,318	162.1	1,754.2
전체 외국인 소비금액 대비 비중(%, %p)	2.1	8.5	6.4	13.5	5.0	11.4
건당 소비금액(만원)	37.0	74.8	102.2	62.7	-16.1	69.6

자료: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 데이터랩 「의료관광 현황」의 외국인 의료소비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진 재구성

○ **대만의 의료소비는 피부과에 고도로 집중되면서 피부과가 성장을 주도함**

- 피부과 소비건수는 2023년 약 7,482건에서 2025년 10만 7,628건으로 증가하였으며, 소비금액 같은 기간 약 60억 원에서 1,711억 원으로 급증함
- 2023~2025년 대만의 피부과 소비건수는 약 14.4배, 소비금액은 약 28.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피부과 건당 소비금액은 2023년 80만 7천 원에서 2025년 159만 원으로 97.0% 상승함

○ **성형외과는 피부과보다는 상대적인 성장 속도는 완만하나,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성형외과의 소비건수는 2023년 약 4,851건에서 2025년 1만 7,704건으로 약 3.6배 증가하였으며, 같은 기간의 소비금액은 약 49억 원에서 342억 원으로 약 7.0배 확대됨
- 건당 소비금액의 경우 2023년 100만 4천 원에서 2025년 193만 3천 원으로 피부과와 함께 지속적으로 소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의료기관 소비 중 피부과·성형외과 비중은 2023년에서 2025년 사이 소비건수 기준 84.7%에서 94.4%로, 소비금액 기준 90.7%에서 95.9%로 상승하며 피부·미용 집중도가 높아짐**

○ **한편, 안과와 치과에 대한 소비 규모는 작지만 고액 시장으로 확인됨**

- 안과 소비건수는 2023년 약 260건에서 2025년 2,772건으로 증가하였으며, 소비금액 역시 약 2억 원에서 55억 원으로 확대됨
- 안과의 건당 소비금액은 2025년 기준 약 196만 5천 원으로 피부과 보다 높고 성형외과와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남
- 치과의 경우 2023년 소비건수는 약 511건에서 2025년 1,848건으로 증가하였으며, 소비금액은 약 2억 원에서 17억 원으로 증가함

〈표 23〉 2023~2025년 대만의 주요 진료과목별 소비 현황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소비 건수 (만건)	소비 금액 (억원)	건당 금액 (만원)	소비 건수 (만건)	소비 금액 (억원)	건당 금액 (만원)	소비 건수 (만건)	소비 금액 (억원)	건당 금액 (만원)
피부과	7,482	60	80.7	49,093	630	128.4	107,628	1,711	159.0
성형외과	4,851	49	100.4	14,003	196	140.1	17,704	342	193.3
대학·종합병원	1,045	7	65.8	1,183	6	52.3	1,737	10	58.7
치과	511	2	31.3	1,100	7	61.1	1,848	17	90.3
한의학과	348	1	28.0	639	2	37.4	850	5	60.0
기타	399	2	42.0	1,762	27	152.1	3,068	55	177.6

주1) 기타는 안과와 한약방 합계를 의미함
주2) 진료과목별 소비건수와 소비금액은 연간 총계에 공표 구성비를 적용한 추정치로, 구성비 반올림에 따라 실제 집계값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소비건수와 건당 소비금액은 각각 카드 결제건수와 결제 1건당 평균금액임
자료: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 데이터랩「의료관광 현황」의 외국인 의료소비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진 재구성

□ (미국) 치료·건강관리형 의료수요가 폭넓게 유지되는 가운데, 최근에는 피부과와 성형외과의 고액 소비가 더해진 복합형 시장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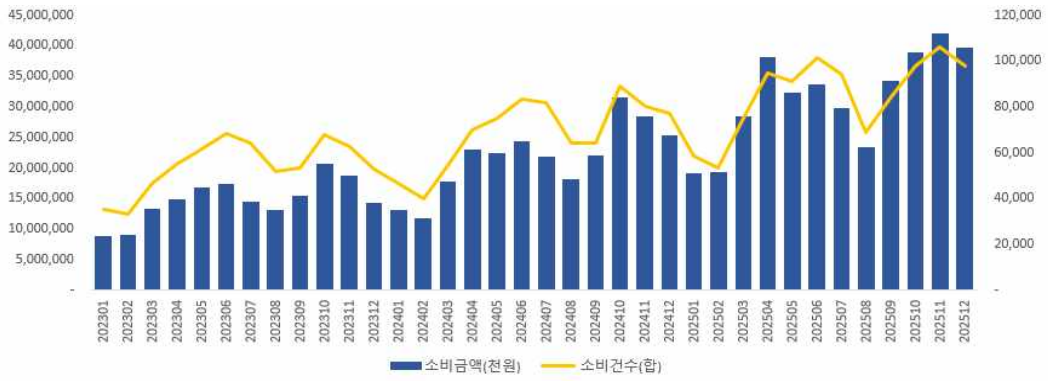
○ 미국의 의료 소비건수는 2023년 65만 2,722건에서 2025년 102만 3,748건으로 56.8% 증가하였으며, 전체 외국인 의료 소비건수의 26.7%를 차지함

○ 소비금액은 2023년 1,774억 원에서 2024년 2,597억 원(전년比 +46.4%)으로 증가하였으며, 2025년도는 3,794억 원으로 전년 대비 46.1% 증가함

- 2025년 미국의 의료 소비금액은 2023년 대비 113.8% 증가하며 꾸준히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건당 소비금액도 2023년 27만 2천 원에서 2025년 37만 1천 원으로 36.3% 증가함

○ 미국의 의료 소비 절대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체 외국인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함

- 전체 외국인 대비 미국의 소비건수는 2023년 39.3%에서 2024년 32.6%, 2025년 26.7%로 하락하였으며, 소비금액 비중도 같은 기간 30.5%, 25.0%, 22.0%로 하락함



[그림 4] 2023~2025년 미국의 월별 의료소비 추이
출처: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 데이터랩「의료관광 현황」

〈표 24〉 2023~2025년 미국의 의료관광 소비 현황

구분	2023년	2024년	전년 대비	2025년	전년 대비	2023년 대비
소비건수(건)	652,722	826,856	26.7	1,023,748	23.8	56.8
전체 외국인 소비건수 대비 비중(%, %p)	39.3	32.6	-6.7	26.7	-5.9	-12.6
소비금액(억원)	1,774	2,597	46.4	3,794	46.1	113.8
전체 외국인 소비금액 대비 비중(%, %p)	30.5	25.0	-5.5	22.0	-3.0	-8.5
건당 소비금액(만원)	27.2	31.4	15.5	37.1	18.0	36.3

자료: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 데이터랩 「의료관광 현황」의 외국인 의료소비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진 재구성

○ **피부과는 2025년 최대 소비 분야로 부상하였으며, 이용 단가 또한 높아짐**

- 피부과 소비건수는 2023년 약 7만 7천 건에서 2024년 11만 8천건, 2025년 14만 9천 건으로 증가함
- 2023년에는 결제건수 기준 대학·종합병원(11.2만 건)이 최대 분야였으나, 2025년에는 피부과(14.9만 건)가 이를 넘어섰으며, 피부과 건당 소비금액도 2023년 55만 7천 원에서 2025년 110만 4천 원으로 약 2배 높아짐
- 한편, 성형외과는 피부과보다 소비건수는 적으나 건당 소비금액은 2023년 152만 7천 원에서 2025년 216만 5천 원으로 증가하며 진료과목 중 가장 높음

○ **대학·종합병원과 치과 등 치료·건강관리형 소비가 안정적으로 확대됨**

- 대학·종합병원 소비건수는 2023년 약 11만 2천 건에서 2025년 12만 6천 건으로 12.5%, 소비금액은 349억 원에서 449억 원으로 28.6% 증가함
- 치과의 경우 같은 기간 약 5만 5천 건에서 8만 1천 건으로 47.6%, 소비금액은 214억 원에서 354억 원으로 65.0% 증가함
- 한의학과와 안과 역시 소비건수가 각각 45.4%, 49.7% 증가하며 특정 진료과목에 국한되지 않고 치료·건강관리 수요가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남

〈표 25〉 2023~2025년 미국의 주요 진료과목별 소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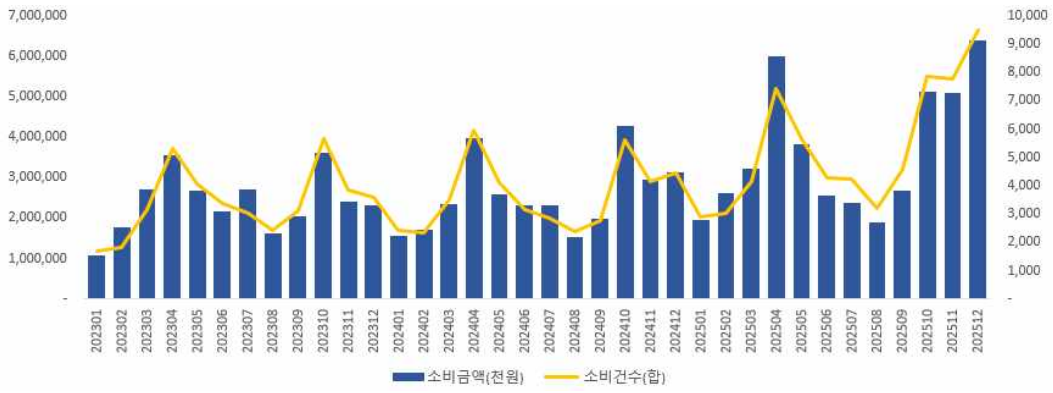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소비 건수 (만건)	소비 금액 (억원)	건당 금액 (만원)	소비 건수 (만건)	소비 금액 (억원)	건당 금액 (만원)	소비 건수 (만건)	소비 금액 (억원)	건당 금액 (만원)
피부과	7.7	430	55.7	11.8	860	73.0	14.9	1,495	110.4
성형외과	3.6	555	152.7	4.2	763	182.7	4.8	1,037	216.5
대학·종합병원	11.2	349	31.2	11.5	382	33.2	12.6	449	35.6
치과	5.5	214	38.8	6.9	275	39.8	8.1	354	43.4
한의학과	3.0	57	18.8	3.9	80	20.6	4.4	92	20.9
기타	1.8	67	37.7	2.3	92	40.6	2.6	110	41.6

주1) 기타는 안과와 한약방 합계를 의미함
주2) 진료과목별 소비건수와 소비금액은 연간 총계에 공표 구성비를 적용한 추정치로, 구성비 반올림에 따라 실제 집계값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소비건수와 건당 소비금액은 각각 카드 결제건수와 결제 1건당 평균금액임
자료: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 데이터랩「의료관광 현황」의 외국인 의료소비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진 재구성

□ (태국) 소비의 중심이 성형외과에서 피부과로 전환되는 가운데, 성형외과는 소수 고액 소비로 재편됨

○ 태국의 의료 소비건수는 2023년 4만 1,129건에서 2024년 4만 3,688건(전년比 +6.2%), 2025년에는 6만 4,445건(전년比 +47.5%) 증가함

- 소비금액도 2023년 286억 3천만 원에서 2024년 306억 9천만 원(전년比 +7.2%)으로 증가한 뒤, 2025년 437억 2천만 원(전년比 +42.4%)으로 증가함
- 그러나 같은 기간 전체 외국인 의료소비가 약 3배로 늘면서, 태국이 차지하는 소비금액 비중은 4.92%에서 2.54%로 절반 수준으로 낮아짐
- 전체 건당 소비금액은 2023년 69만 6천 원에서 2025년 67만 8천 원으로 소폭 낮아졌으나, 약국을 제외한 의료기관 건당 소비금액은 2023년 122만 1천 원에서 2025년 142만 5천 원으로 상승하여 의료서비스 자체의 단가는 높아짐



[그림 5] 2023~2025년 태국의 월별 의료소비 추이
출처: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 데이터랩「의료관광 현황」

〈표 26〉 2023~2025년 태국의 의료소비 현황

구분	2023년	2024년	전년 대비	2025년	전년 대비	2023년 대비
소비건수(건)	41,129	43,688	6.2	64,445	47.5	56.7
전체 외국인 소비건수 대비 비중(%, %p)	2.48	1.72	-0.76	1.68	-0.04	-0.80
소비금액(억원)	286.3	306.9	7.2	437.2	42.4	52.7
전체 외국인 소비금액 대비 비중(%, %p)	4.92	3.01	-1.91	2.54	-0.47	-2.38
건당 소비금액(만원)	69.6	70.3	0.9	67.8	-3.4	-2.6

자료: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 데이터랩 「의료관광 현황」의 외국인 의료소비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진 재구성

○ **피부과는 2024년까지 최대 소비 분야였던 성형외과를 넘어 2025년 핵심 분야로 부상함**

- 피부과 소비건수는 2023년 약 13.44천 건에서 2024년 15.82천 건, 2025년 21.97천 건으로 약 1.6배 증가하였으며, 같은 기간 소비금액은 87억 8천만 원에서 135억 9천만 원, 242억 2천만 원으로 약 2.8배 확대됨
- 피부과가 전체 소비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3년 31.2%에서 2024년 45.2%, 2025년 57.8%로 상승하여 의료기관 소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건당 소비금액도 2023년 65만 3천 원에서 2025년 110만 2천 원으로 68.8% 상승함

○ **성형외과는 건당 소비금액이 가장 높은 고액 의료소비 분야로 확인됨**

- 성형외과 소비건수는 2023년 7.10천 건에서 2024년 4.52천 건, 2025년 4.31천 건으로 감소하였으며, 소비금액은 2023년 183억 4천만 원에서 2024년 153억 9천만 원으로 감소한 뒤, 2025년 165억 원으로 일부 회복하였으나 2023년 수준에는 미치지 못함
- 반면 건당 소비금액은 2023년 258만 4천 원에서 2024년 340만 7천 원, 2025년 382만 7천 원으로 상승하며 태국의 미용의료 소비는 결제건수와 금액이 함께 확대되는 피부과와 결제건수는 줄지만 건당 금액이 높은 성형외과로 서로 다른 변화가 나타남

〈표 27〉 2023~2025년 태국의 주요 진료과목별 소비 현황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소비 건수 (천건)	소비 금액 (억원)	건당 금액 (만원)	소비 건수 (천건)	소비 금액 (억원)	건당 금액 (만원)	소비 건수 (천건)	소비 금액 (억원)	건당 금액 (만원)
피부과	13.44	87.8	65.3	15.82	135.9	85.9	21.97	242.2	110.2
성형외과	7.1	183.4	258.4	4.52	153.9	340.7	4.31	165	382.7
대학·종합병원	1.38	5.7	41.2	1.45	6	41.3	1.71	6.2	36.2
치과	0.66	3.3	49.7	0.63	3.1	49.8	0.84	3.5	42.3
한의학과	0.2	0.6	30.5	0.25	1.1	42.4	0.29	1.2	40.7
기타	0.26	0.5	18.8	0.21	0.4	19.4	0.26	0.7	26.5

주1) 기타는 안과와 한약방 합계를 의미함
주2) 진료과목별 소비건수와 소비금액은 연간 총계에 공표 구성비를 적용한 추정치로, 구성비 반올림에 따라 실제 집계값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소비건수와 건당 소비금액은 각각 카드 결제건수와 결제 1건당 평균금액임
자료: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 데이터랩「의료관광 현황」의 외국인 의료소비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진 재구성

□ (싱가포르) 피부과가 성장을 주도하는 가운데, 성형외과는 건당 소비금액이 상승하며 피부·미용 중심의 성장시장으로 나타남

○ 싱가포르의 의료 소비건수는 2023년 5만 8,661건에서 2024년 10만 8,360건(전년比 +84.7%)으로 증가하였으며, 2025년에는 19만 3,917건으로 전년 대비 79.0% 증가함

- 의료 소비금액은 2023년 252억 1천만 원에서 2024년 501억 7천만 원(전년比 +99.0%), 2025년 924억 2천만 원(전년比 +84.2%)으로 증가함
- 건당 소비금액은 2023년 43만 원에서 2025년 47만 7천 원으로 10.9% 상승하였으며, 약국을 제외한 의료기관 건당 소비금액은 2023년 91만 5천 원에서 2025년 135만 9천 원으로 48.5% 높아짐



[그림 6] 2023~2025년 싱가포르의 월별 의료소비 추이
출처: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 데이터랩「의료관광 현황」

〈표 28〉 2023~2025년 싱가포르의 의료소비 현황

구분	2023년	2024년	전년 대비	2025년	전년 대비	2023년 대비
소비건수(건)	58,661	108,360	84.7	193,917	79.0	230.6
전체 외국인 소비건수 대비 비중(%, %p)	3.53	4.27	0.74	5.06	0.8	1.5
소비금액(억원)	252.1	501.7	99.0	924.2	84.2	266.6
전체 외국인 소비금액 대비 비중(%, %p)	4.33	4.83	0.5	5.36	0.5	1.03
건당 소비금액(만원)	43	46.3	7.7	47.7	2.9	10.90

자료: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 데이터랩 「의료관광 현황」의 외국인 의료소비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진 재구성

○ **피부과는 빠르게 소비규모가 확대되며 2024년 성형외과를 넘어 최대 의료소비 분야로 나타남**

- 피부과 소비건수는 2023년 10.84천 건에서 2024년 26.05천 건, 2025년 41.36천 건으로 약 3.8배 확대되었으며, 소비금액은 같은 기간 98억 4천만 원에서 276억 1천만 원, 565억 4천만 원으로 약 5.7배 증가함
- 전체 의료 소비금액에서 피부과 비중은 2023년 40.7%에서 2024년 57.8%, 2025년 67.67%로 높아졌으며, 건당 소비금액도 2023년 90만 8천 원에서 2025년 136만 7천 원으로 피부과가 결제건수와 건당 금액 증가를 통해 시장 확대를 주도함

○ **성형외과는 결제건수의 변화는 크지 않은 가운데, 건당 소비금액이 증가하였으며, 치과·안과 등의 의료분야의 소비 확대도 나타남**

- 성형외과 소비건수는 2023년 8.84천 건에서 2024년 9.57천 건으로 증가한 후, 2025년 9.37천 건으로 소폭 감소한 반면, 소비금액은 2023년 114억 5천만 원에서 2024년 162억 2천만 원, 2025년 204억 9천만 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함
- 성형외과의 건당 소비금액은 2023년 129만 5천 원에서 2025년 218만 8천 원으로 약 1.7배 상승함
- 치과 소비건수는 2023년 1.90천 건에서 2025년 3.74천 건으로 증가하였으며, 소비금액은 7억 8천만 원에서 21억 7천만 원으로 약 2.8배 확대됨
- 안과와 한약방을 포함한 기타 소비금액은 같은 기간 5억 6천만 원에서 20억 7천만 원으로 약 3.7배 증가함

〈표 29〉 2023~2025년 싱가포르의 주요 진료과목별 소비 현황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소비 건수 (천건)	소비 금액 (억원)	건당 금액 (만원)	소비 건수 (천건)	소비 금액 (억원)	건당 금액 (만원)	소비 건수 (천건)	소비 금액 (억원)	건당 금액 (만원)
피부과	10.84	98.4	90.8	26.05	276.1	106	41.36	565.4	136.7
성형외과	8.84	114.5	129.5	9.57	162.2	169.5	9.37	204.9	218.8
대학·종합병원	3.03	13	43	2.9	11.4	39.2	3.45	18.5	53.6
치과	1.9	7.8	41.1	2.56	11	43	3.74	21.7	58
한의학과	0.87	2.3	26.5	1.07	4.1	37.9	1.63	5.8	35.7
기타	0.92	5.6	61.2	1.56	13	83.3	2.02	20.7	102.7

주1) 기타는 안과와 한약방 합계를 의미함
주2) 진료과목별 소비건수와 소비금액은 연간 총계에 공표 구성비를 적용한 추정치로, 구성비 반올림에 따라 실제 집계값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소비건수와 건당 소비금액은 각각 카드 결제건수와 결제 1건당 평균금액임
자료: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 데이터랩「의료관광 현황」의 외국인 의료소비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진 재구성

□ (인도네시아) 성형외과 중심의 고액 소비구조를 유지하면서 피부과가 빠르게 확대되는 미용의료 시장으로 확인됨

○ 의료 소비건수는 2023년 1만 6,280건에서 2024년 2만 9,675건(전년比 +82.3%) 증가하였으며, 2025년에는 5만 6,333건(전년比 +89.8%) 증가함

- 소비금액도 2023년 116억 4천만 원에서 2024년 216억 7천만 원(전년比 +86.2%) 증가하였으며, 2025년 358억 7천만 원으로 전년 대비 65.5% 증가함
- 약국을 제외한 의료기관 건당 소비금액은 2023년 159만 1천 원에서 2025년 202만 8천 원으로 27.5% 상승하여 의료서비스 자체의 단가는 높아짐



[그림 7] 2023~2025년 인도네시아의 월별 의료소비 추이
출처: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 데이터랩「의료관광 현황」

〈표 30〉 2023~2025년 인도네시아의 의료소비 현황

구분	2023년	2024년	전년 대비	2025년	전년 대비	2023년 대비
소비건수(건)	16,280	29,675	82.3	56,333	89.8	246.0
전체 외국인 소비건수 대비 비중(%, %p)	0.98	1.17	0.2	1.47	+0.3	0.5
소비금액(억원)	116.4	216.7	86.2	358.7	65.5	208.2
전체 외국인 소비금액 대비 비중(%, %p)	2	2.09	0.1	2.08	−0.0	0.1
건당 소비금액(만원)	71.5	73	2.2	63.7	−12.8	−10.9

자료: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 데이터랩 「의료관광 현황」의 외국인 의료소비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진 재구성

○ **성형외과는 전체 의료 소비금액의 60% 이상을 차지하며 인도네시아의 핵심 소비 분야로 확인됨**

- 성형외과 소비건수는 2023년 2.87천 건에서 2025년 5.44천 건으로 증가하였으며, 소비금액은 83억 4천만 원에서 216억 원으로 약 2.6배 확대됨
- 건당 소비금액도 290만 2천 원에서 397만 4천 원으로 상승하여 주요 진료과목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전체 소비금액 비중은 2023년 71.63%에서 2025년 60.23%로 낮아졌으나, 여전히 최대 소비 분야로 나타남

○ **피부과는 성형외과보다 빠르게 성장하면서 미용의료 소비의 저변을 확대함**

- 피부과 소비건수는 2023년 1.70천 건에서 2025년 7.54천 건으로 약 4.4배 증가하였으며, 소비금액은 17억 9천만 원에서 91억 원으로 약 5.1배 확대됨
- 의료기관 소비금액 중 피부과 비중도 2023년 16.0%에서 2025년 28.1%로 상승하였으며, 건당 소비금액은 2023년 105만 3천 원에서 2025년 120만 6천 원으로 높아짐

○ **대학·종합병원과 치과 소비도 증가하였으나, 전체 의료소비는 피부·미용 분야에 높은 집중도를 보임**

- 대학·종합병원 소비금액은 2023년 7억 2천만 원에서 2025년 9억 7천만 원, 치과는 2억 3천만 원에서 4억 6천만 원으로 증가함
- 그러나 피부과·성형외과가 의료기관 소비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0.5%에서 94.7%로 높아져, 미용의료 중심의 소비구조가 강화됨

〈표 31〉 2023~2025년 인도네시아의 주요 진료과목별 소비 현황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소비 건수 (천건)	소비 금액 (억원)	건당 금액 (만원)	소비 건수 (천건)	소비 금액 (억원)	건당 금액 (만원)	소비 건수 (천건)	소비 금액 (억원)	건당 금액 (만원)
성형외과	2.87	83.4	290.2	4.66	152.9	327.9	5.44	216	397.4
피부과	1.7	17.9	105.3	3.55	39.6	111.6	7.54	91	120.6
대학·종합병원	1.4	7.2	51.3	1.38	9.1	65.9	1.43	9.7	67.9
치과	0.62	2.3	37.7	0.67	2.7	40.1	0.86	4.6	54
한의학과	0.23	0.5	22.8	0.31	1	31.7	0.32	1.1	33.5
기타	0.22	0.7	31.5	0.32	0.9	26.8	0.39	1.7	42.7

주1) 기타는 안과와 한약방 합계를 의미함
주2) 진료과목별 소비건수와 소비금액은 연간 총계에 공표 구성비를 적용한 추정치로, 구성비 반올림에 따라 실제 집계값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소비건수와 건당 소비금액은 각각 카드 결제건수와 결제 1건당 평균금액임
자료: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 데이터랩「의료관광 현황」의 외국인 의료소비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진 재구성

□ (말레이시아) 소비 규모는 작으나 2025년 소비가 두 배 이상 늘며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으며, 성형외과에서 피부과로 급격하게 전환된 미용 단일형 시장

○ 말레이시아의 의료 소비건수는 2023년 9,439건에서 2024년 1만 6,913건(전년比 +79.2%), 2025년 3만 4,514건(전년比 +104.1%)으로 증가하여 2년간 약 3.7배 확대됨

- 소비금액은 2023년 30억 2천만 원에서 2024년 54억 5천만 원(전년比 +80.6%), 2025년 110억 6천만 원(전년比 +103.0%)으로 증가하여 2년간 약 3.7배 확대됨
- 소비건수와 소비금액이 비슷한 속도로 증가하면서 전체 건당 소비금액은 2023~2025년 32만 원 수준으로 유지되었으나, 약국을 제외한 의료기관 건당 소비금액은 2023년 94만 1천 원에서 2025년 122만 4천 원으로 30.1% 상승함
- 전체 외국인 의료소비에서 차지하는 규모는 작으나 전체 시장보다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으로 나타남



[그림 8] 2023~2025년 말레이시아의 월별 의료소비 추이
출처: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 데이터랩「의료관광 현황」

〈표 32〉 2023~2025년 말레이시아의 의료소비 현황

구분	2023년	2024년	전년 대비	2025년	전년 대비	2023년 대비
소비건수(건)	9,439	16,913	79.2	34,514	104.1	265.7
전체 외국인 소비건수 대비 비중(%, %p)	0.57	0.67	0.10	0.90	0.23	0.33
소비금액(억원)	30.2	54.5	80.6	110.6	103.0	266.6
전체 외국인 소비금액 대비 비중(%, %p)	0.52	0.52	0.01	0.64	0.12	0.12
건당 소비금액(만원)	32.0	32.2	0.8	32.0	-0.5	0.2

자료: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 데이터랩「의료관광 현황」의 외국인 의료소비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진 재구성

○ **성형외과에서 피부과로 넘어가는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남**

- 2023년에는 성형외과(17억 7천만 원)가 피부과(6억 9천만 원)의 2.6배에 달했으나, 2024년 피부과가 23억 3천만 원으로 성형외과(20억 5천만 원)를 앞질렀고, 2025년에는 56억 9천만 원으로 격차를 벌림
- 피부과 건당 금액도 70만 3천 원에서 118만 8천 원으로 높아져, 고단가 피부 시술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판단됨

○ **성형외과는 소수 고액 소비로 자리를 지키고 있으나, 치료 목적의 소비는 거의 확대되지 않음**

- 성형외과 결제건수는 2년간 1.5배 증가에 그쳤으나 건당 금액은 259만 5천 원으로 주요 진료과목 중 가장 높아, 이용자는 적지만 고액 소비를 유지하는 분야로 나타남
- 반면 대학·종합병원 소비금액은 2억 6천만 원 수준에 머물고 건당 금액은 오히려 낮아졌으며, 치과 소비가 일부 늘었음에도 치료·기타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6.3%에 불과함

〈표 33〉 2023~2025년 말레이시아의 주요 진료과목별 소비 현황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소비 건수 (천건)	소비 금액 (억원)	건당 금액 (만원)	소비 건수 (천건)	소비 금액 (억원)	건당 금액 (만원)	소비 건수 (천건)	소비 금액 (억원)	건당 금액 (만원)
피부과	0.98	6.9	70.3	2.53	23.3	92.2	4.79	56.9	118.8
성형외과	0.84	17.7	210.0	0.90	20.5	227.7	1.26	32.8	259.5
대학·종합병원	0.67	2.6	39.7	0.62	2.7	44.2	0.88	2.6	29.1
치과	0.27	0.7	26.1	0.40	1.5	38.1	0.42	1.9	46.2
한의학과	0.16	0.5	30.9	0.21	2.3	110.2	0.30	1.0	32.0
기타	0.11	0.1	8.1	0.14	0.5	34.2	0.17	0.5	31.4

주1) 기타는 안과와 한약방 합계를 의미함
주2) 진료과목별 소비건수와 소비금액은 연간 총계에 공표 구성비를 적용한 추정치로, 구성비 반올림에 따라 실제 집계값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소비건수와 건당 소비금액은 각각 카드 결제건수와 결제 1건당 평균금액임
자료: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 데이터랩「의료관광 현황」의 외국인 의료소비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진 재구성

□ (캐나다) 성형외과 중심의 소비구조가 피부과 중심으로 전환되었으며, 치과·대학·종합병원 등 치료형 소비도 함께 유지되는 미용·치료 병존 시장

○ 캐나다의 의료 소비건수는 2023년 4만 2,016건에서 2024년 5만 7,384건(전년比 +36.6%), 2025년 8만 1,505건(전년比 +42.0%)으로 증가하여 2년간 약 1.9배 확대됨

- 소비금액은 2023년 119억 원에서 2024년 181억 2천만 원(전년比 +52.4%), 2025년 278억 7천만 원(전년比 +53.8%)으로 증가하여 2년간 약 2.3배 확대됨
- 소비금액 증가율이 소비건수 증가율을 상회하면서 건당 소비금액은 2023년 28만 3천 원에서 2025년 34만 2천 원으로 20.8% 상승하였으며, 약국을 제외한 의료기관 건당 소비금액은 2023년 58만 4천 원에서 2025년 77만 5천 원으로 32.8% 높아짐



[그림 9] 2023~2025년 캐나다의 월별 의료소비 추이

출처: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 데이터랩「의료관광 현황」

〈표 34〉 2023~2025년 캐나다의 의료소비 현황

구분	2023년	2024년	전년 대비	2025년	전년 대비	2023년 대비
소비건수(건)	42,016	57,384	36.6	81,505	42.0	94.0
전체 외국인 소비건수 대비 비중(%, %p)	2.53	2.26	-0.3	2.12	-0.1	-0.4
소비금액(억원)	119.0	181.2	52.4	278.7	53.8	134.2
전체 외국인 소비금액 대비 비중(%, %p)	2.05	1.75	-0.3	1.62	-0.1	-0.4
건당 소비금액(만원)	28.3	31.6	11.6	34.2	8.2	20.8

자료: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 데이터랩「의료관광 현황」의 외국인 의료소비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진 재구성

○ 피부과는 2024년 성형외과를 넘어 최대 소비 분야로 부상하며 소비 확대를 주도함

- 피부과 소비금액은 2023년 28억 1천만 원에서 2024년 62억 6천만 원, 2025년 108억 5천만 원으로 약 3.9배 확대되었으며, 소비건수도 5.39천 건에서 14.04천 건으로 약 2.6배 증가함
- 피부과 건당 소비금액은 같은 기간 52만 2천 원에서 77만 3천 원으로 48.1% 상승하여, 이용 확대와 단가 상승이 함께 나타남

○ 성형외과는 피부과보다 성장 속도는 완만하나, 건당 소비금액이 가장 높은 고액 소비 분야로 나타남

- 성형외과 소비금액은 2023년 43억 1천만 원에서 2025년 87억 3천만 원으로 약 2.0배 증가하였으며, 소비건수는 3.44천 건에서 4.52천 건으로 약 1.3배 증가함
- 건당 소비금액은 125만 3천 원에서 193만 1천 원으로 54.1% 상승하여, 소비건수보다 단가 상승을 통한 성장이 두드러짐
- 의료기관 소비금액 중 피부과·성형외과 비중은 2023년 63.2%에서 2025년 75.9%로 상승하여 피부·미용 중심으로 소비구조가 재편됨

○ 대학·종합병원과 치과 등 치료형 소비도 절대 규모가 증가하며 일정 비중을 유지함

- 대학·종합병원 소비금액은 2023년 18억 8천만 원에서 2025년 24억 8천만 원으로, 치과는 15억 6천만 원에서 23억 8천만 원으로 증가함
- 특히 치과는 2025년 소비금액이 대학·종합병원과 비슷한 수준으로 성장하였으며, 두 분야를 합한 소비금액이 의료기관 소비의 18.8%를 차지함
- 치료·기타 분야 비중은 2023년 36.8%에서 2025년 24.1%로 낮아졌으나, 2025년에도 의료기관 소비의 4분의 1가량을 차지하여 미용 집중 속에서도 치료 수요가 병존하는 구조를 보임

〈표 35〉 2023~2025년 캐나다의 주요 진료과목별 소비 현황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소비 건수 (천건)	소비 금액 (억원)	건당 금액 (만원)	소비 건수 (천건)	소비 금액 (억원)	건당 금액 (만원)	소비 건수 (천건)	소비 금액 (억원)	건당 금액 (만원)
피부과	5.39	28.1	52.2	10.17	62.6	61.6	14.04	108.5	77.3
성형외과	3.44	43.1	125.3	3.81	59.6	156.5	4.52	87.3	193.1
대학·종합병원	4.84	18.8	38.8	4.81	19.6	40.8	5.80	24.8	42.7
치과	3.32	15.6	47.0	4.11	19.0	46.4	4.96	23.8	48.1
한의학과	1.36	2.9	21.1	1.83	3.9	21.4	2.53	4.8	19.2
기타	0.94	4.1	43.9	1.18	6.4	54.7	1.44	8.7	60.1

주1) 기타는 안과와 한약방 합계를 의미함
주2) 진료과목별 소비건수와 소비금액은 연간 총계에 공표 구성비를 적용한 추정치로, 구성비 반올림에 따라 실제 집계값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소비건수와 건당 소비금액은 각각 카드 결제건수와 결제 1건당 평균금액임
자료: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 데이터랩 「의료관광 현황」의 외국인 의료소비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진 재구성

□ (호주) 피부과·성형외과가 함께 성장하는 가운데 치과·안과 등 전문진료 소비가 뒷받침하는 시장으로 나타남

○ 호주는 소비건수와 소비금액이 모두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전체 외국인 의료소비 시장 내 비중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이용 규모와 건당 소비금액이 함께 확대되는 성장세를 보임

- 호주의 의료 소비금액은 2023년 143억 9천만 원에서 2024년 241억 1천만 원, 2025년 407억 원으로 매년 70% 가까이 증가하였으며, 소비건수도 4만 6,280건에서 10만 7,871건으로 2.3배 늘어남

- 전체 외국인 의료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소비건수 기준 2.8%, 소비금액 기준 2.3~2.5% 수준으로 3년간 큰 변화가 없이 전체 시장의 성장 속도를 따라감
- 소비금액 증가율이 소비건수 증가율을 웃돌면서 건당 소비금액은 2023년 31만 1천 원에서 2025년 37만 7천 원으로 21.4% 상승하였으며, 약국을 제외한 의료기관 건당 소비금액은 2023년 69만 2천 원에서 2025년 98만 2천 원으로 41.9% 높아짐



[그림 10] 2023~2025년 호주의 월별 의료소비 추이
출처: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 데이터랩「의료관광 현황」

〈표 36〉 2023~2025년 호주의 의료소비 현황

구분	2023년	2024년	전년 대비	2025년	전년 대비	2023년 대비
소비건수(건)	46,280	71,093	53.6	107,871	51.7	133.1
전체 외국인 소비건수 대비 비중(%, %p)	2.79	2.80	0.01	2.81	0.01	0.03
소비금액(억원)	143.9	241.1	67.6	407.0	68.8	182.9
전체 외국인 소비금액 대비 비중(%, %p)	2.47	2.32	-0.15	2.36	0.04	-0.11
건당 소비금액(만원)	31.1	33.9	9.1	37.7	11.3	21.4

자료: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 데이터랩「의료관광 현황」의 외국인 의료소비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진 재구성

○ **피부과의 급성장과 성형외과의 고액화가 동시에 나타나, 의료기관 소비금액 중 두 분야의 비중은 2023년 72.1%에서 2025년 81.9%로 높아짐**

- 피부과 소비금액은 2023년 33억 7천만 원에서 2025년 175억 1천만 원으로 약 5.2배 늘어 최대 소비 분야가 되었으며, 건당 금액도 2023년 54만 9천 원에서 2025년 92만 1천 원으로 증가함
- 성형외과 소비금액은 2023년 65억 7천만 원에서 2025년 135억 원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건당 금액은 2023년 134만 6천 원에서 2025년 220만 3천 원으로 63.7% 상승함

○ **치료 분야에서는 대학·종합병원보다 치과와 안과의 비중이 크게 나타남**

- 치과 소비금액은 14억 7천만 원에서 27억 4천만 원으로, 안과를 포함한 기타는 8억 2천만 원에서 19억 7천만 원으로 늘어 모두 대학·종합병원(17억 7천만 원)보다 높게 나타남

- 특히 안과를 포함한 기타 분야의 건당 금액은 94만 6천 원으로 피부과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치료 수요가 특정 전문진료를 중심으로 형성된 것으로 나타남

〈표 37〉 2023~2025년 호주의 주요 진료과목별 소비 현황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소비 건수 (천건)	소비 금액 (억원)	건당 금액 (만원)	소비 건수 (천건)	소비 금액 (억원)	건당 금액 (만원)	소비 건수 (천건)	소비 금액 (억원)	건당 금액 (만원)
피부과	6.13	33.7	54.9	12.96	91.5	70.6	19.01	175.1	92.1
성형외과	4.88	65.7	134.6	5.51	89.9	163.2	6.13	135.0	220.3
치과	3.34	14.7	43.9	4.12	18.5	45.0	5.49	27.4	49.9
대학·종합병원	3.34	13.7	40.9	3.38	14.2	42.0	4.06	17.7	43.6
한의학과	1.13	1.9	17.0	1.43	3.5	24.5	1.81	3.8	21.1
기타	1.12	8.2	72.7	1.47	12.1	81.9	2.08	19.7	94.6

주1) 기타는 안과와 한약방 합계를 의미함
주2) 진료과목별 소비건수와 소비금액은 연간 총계에 공표 구성비를 적용한 추정치로, 구성비 반올림에 따라 실제 집계값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소비건수와 건당 소비금액은 각각 카드 결제건수와 결제 1건당 평균금액임
자료: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 데이터랩 「의료관광 현황」의 외국인 의료소비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진 재구성

□ (몽골) 대학·종합병원 중심의 의료소비가 유지되는 가운데, 안과 소비가 빠르게 확대되고 성형외과·피부과 등으로 소비구조가 다변화됨

○ 몽골의 의료 소비건수는 2023년 2만 185건에서 2024년 2만 5,697건으로 전년 대비 27.3% 증가하였으며, 2025년에는 4만 1,702건으로 62.3% 증가함

- 소비금액은 2023년 98억 2천만 원에서 2024년 126억 5천만 원(전년比 +28.9%)으로 증가하였으며, 2025년 209억 5천만 원으로 전년 대비 65.6% 증가함
- 2025년 소비건수와 소비금액은 2023년 대비 각각 106.6%, 113.4% 증가하여 2년간 두 배 이상 확대되었으며, 건당 소비금액은 2023년 48만 6천 원에서 2025년 50만 2천 원으로 3.3% 상승하는 데 그쳐, 전체 소비 확대는 주로 결제건수 증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짐
- 약국을 제외한 의료기관 건당 소비금액도 2023년 85만 4천 원에서 2025년 94만 1천 원으로 10.2% 증가하였으며, 최대 분야인 대학·종합병원의 건당 금액은 2023년 69만 4천 원에서 2025년 66만 7천 원으로 오히려 낮아짐



[그림 11] 2023~2025년 몽골의 월별 의료소비 추이

출처: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 데이터랩「의료관광 현황」

〈표 38〉 2023~2025년 몽골의 의료소비 현황

구분	2023년	2024년	전년 대비	2025년	전년 대비	2023년 대비
소비건수(건)	20,185	25,697	27.30	41,702	62.30	106.6
전체 외국인 소비건수 대비 비중(%, %p)	1.22	1.01	−0.21	1.09	0.08	−0.13
소비금액(억원)	98.2	126.5	28.9	209.5	65.6	113.4
전체 외국인 소비금액 대비 비중(%, %p)	1.69	1.22	−0.47	1.22	0.0	−0.5
건당 소비금액(만원)	48.6	49.2	1.30	50.2	2.0	3.3

자료: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 데이터랩「의료관광 현황」의 외국인 의료소비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진 재구성

○ **대학·종합병원은 몽골의 가장 큰 의료소비 분야로, 소비금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안과의 소비건수와 소비금액이 빠르게 증가하며 주요 의료소비 분야로 나타남**

- 대학·종합병원 소비건수는 2023년 8.20천 건에서 2024년 9.27천 건, 2025년 13.33천 건으로 증가하였으며, 소비금액은 같은 기간 56억 9천만 원에서 66억 7천만 원, 88억 9천만 원으로 확대됨
- 한편, 안과 소비건수는 2023년 0.76천 건에서 2024년 1.26천 건, 2025년 2.66천 건으로 약 3.5배 확대되었으며, 같은 기간 소비금액도 9억 6천만 원에서 17억 원, 36억 7천만 원으로 약 3.8배 증가함
- 의료기관 소비금액 중 안과 비중은 2023년 10.4%에서 2025년 18.9%로 상승하여, 대학·종합병원과 성형외과에 이어 세 번째로 큰 소비 분야로 나타남

○ **성형외과의 고액 소비가 유지되는 가운데, 피부과·치과 소비도 확대되며 의료소비 분야가 다변화됨**

- 성형외과 소비건수는 2023년 0.79천 건에서 2025년 1.88천 건으로, 소비금액은 18억 1천만 원에서 43억 3천만 원으로 각각 약 2.4배 확대됨. 2025년 건당 소비금액은 230만 8천 원으로 주요 진료과목 가운데 가장 높으며, 의료기관 소비금액의 22.3%를 차지함
- 피부과 소비건수는 같은 기간 0.39천 건에서 1.49천 건으로 증가하였으며, 소비금액은 3억

8천만 원에서 15억 9천만 원으로 약 4.2배 확대됨

- 치과 소비금액도 2023년 2억 원에서 2025년 6억 7천만 원으로 증가하였으며, 건당 소비금액은 54만 3천 원에서 97만 1천 원으로 상승한 가운데, 한의학과 소비금액은 2024년 일시적으로 감소한 뒤 2025년 3억 원으로 회복하여 상대적으로 완만한 확대 양상을 보임

〈표 39〉 2023~2025년 몽골의 주요 진료과목별 소비 현황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소비 건수 (천건)	소비 금액 (억원)	건당 금액 (만원)	소비 건수 (천건)	소비 금액 (억원)	건당 금액 (만원)	소비 건수 (천건)	소비 금액 (억원)	건당 금액 (만원)
대학·종합병원	8.2	56.9	69.4	9.27	66.7	71.9	13.33	88.9	66.7
성형외과	0.79	18.1	229.6	1.06	23.2	219.8	1.88	43.3	230.8
안과	0.76	9.6	126.2	1.26	17	135.6	2.66	36.7	137.9
피부과	0.39	3.8	98	0.71	5.5	78.4	1.49	15.9	106.6
치과	0.37	2	54.3	0.4	3.6	90	0.69	6.7	97.1
한의학과	0.35	2.3	65	0.36	2	57	0.63	3	46.6

주1) 진료과목별 소비건수와 소비금액은 연간 총계에 공표 구성비를 적용한 추정치로, 구성비 반올림에 따라 실제 집계값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소비건수와 건당 소비금액은 각각 카드 결제건수와 결제 1건당 평균금액임
자료: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 데이터랩「의료관광 현황」의 외국인 의료소비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진 재구성

□ (베트남) 의료소비의 중심이 미용에서 치료 쪽으로 이동하는 시장으로 나타남

○ 베트남의 의료소비 결제 이용은 꾸준히 늘었지만 소비금액은 2024년 이후 정체되면서, 전체 외국인 의료소비 내 비중이 크게 낮아짐

- 소비건수는 2023년 1만 5,013건에서 2025년 2만 3,983건으로 59.7% 증가한 반면, 소비금액은 50억 5천만 원에서 2024년 56억 2천만 원으로 늘었다가 2025년 55억 4천만 원으로 오히려 1.6% 감소함
- 이에 따라 건당 소비금액은 2023년 33만 6천 원에서 2025년 23만 1천 원으로 2년간 31.4% 낮아졌으며, 약국을 제외한 의료기관 건당 소비금액도 2023년 84만 1천 원에서 2025년 62만 9천 원으로 하락하여, 이용 확대가 소비 규모의 성장으로 이어지지 못함



[그림 12] 2023~2025년 베트남의 월별 의료소비 추이
출처: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 데이터랩「의료관광 현황」

〈표 40〉 2023~2025년 베트남의 의료소비 현황

구분	2023년	2024년	전년 대비	2025년	전년 대비	2023년 대비
소비건수(건)	15,013	19,303	28.6	23,983	24.2	59.7
전체 외국인 소비건수 대비 비중(%, %p)	0.90	0.76	-0.14	0.63	-0.14	-0.28
소비금액(억원)	50.5	56.2	11.4	55.4	-1.6	9.6
전체 외국인 소비금액 대비 비중(%, %p)	0.87	0.54	-0.33	0.32	-0.22	-0.55
건당 소비금액(만원)	33.6	29.1	-13.4	23.1	-20.8	-31.4

자료: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 데이터랩「의료관광 현황」의 외국인 의료소비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진 재구성

○ **성형외과는 여전히 최대 소비 분야이나, 고액 시술 위주의 소비가 줄어들며 시장 전체의 단가 하락을 이끈 것으로 나타남**

- 2023년 의료기관 소비금액의 57.7%를 차지하던 성형외과는 소비금액이 25억 4천만 원에서 15억 원으로 41% 감소하였으며, 결제건수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 가운데 건당 금액이 397만 1천 원에서 221만 4천 원으로 크게 낮아짐

○ **반면 대학·종합병원 소비가 꾸준히 늘며 성형외과와 대등한 수준으로 성장하였으며, 치료 목적 소비의 비중이 높아짐**

- 대학·종합병원 소비금액은 9억 2천만 원에서 14억 1천만 원으로 53% 증가하여 2025년 성형외과(15억 원)와 비슷한 규모를 보임
- 대학·종합병원, 치과, 한의학과 등 치료·기타 분야가 의료기관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3년 29.6%에서 2025년 44.5%로 높아짐

○ **피부과 소비금액은 2023년 5억 6천만 원에서 2025년 9억 1천만 원으로 늘었으나 의료기관 소비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3년 12.7%에서 2025년 21.0%로 증가함**

〈표 41〉 2023~2025년 베트남의 주요 진료과목별 소비 현황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소비 건수 (천건)	소비 금액 (억원)	건당 금액 (만원)	소비 건수 (천건)	소비 금액 (억원)	건당 금액 (만원)	소비 건수 (천건)	소비 금액 (억원)	건당 금액 (만원)
성형외과	0.64	25.4	397.1	0.71	23.6	334.4	0.68	15.0	221.4
대학·종합병원	2.22	9.2	41.4	2.72	12.2	44.8	2.73	14.1	51.6
피부과	0.87	5.6	64.3	1.10	6.2	55.9	1.27	9.1	71.8
치과	0.73	1.8	25.1	1.02	3.0	29.1	1.12	2.8	25.3
한의학과	0.47	1.4	29.1	0.60	1.2	20.0	0.59	1.4	23.3
기타	0.30	0.6	21.1	0.42	0.8	19.4	0.51	1.0	19.5

주1) 기타는 안과와 한약방 합계를 의미함
주2) 진료과목별 소비건수와 소비금액은 연간 총계에 공표 구성비를 적용한 추정치로, 구성비 반올림에 따라 실제 집계값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소비건수와 건당 소비금액은 각각 카드 결제건수와 결제 1건당 평균금액임
자료: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 데이터랩「의료관광 현황」의 외국인 의료소비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진 재구성

□ (아랍에미리트) 고소비형 성장시장으로 피부과 중심으로 수요가 재편되는 가운데, 성형외과·대학·종합병원·한의학과 수요가 공존하는 미용·치료 복합형 시장

○ 아랍에미리트의 의료 소비건수는 2023년 1만 2,943건에서 2024년 1만 8,944건, 2025년 2만 5,514건으로 증가하며 2년간 97.1% 확대됨

- 의료 소비금액도 2023년 58억 원에서 2024년 86억 5천만 원, 2025년 136억 7천만 원으로 증가하며 2023년 대비 135.6% 증가함
- 아랍에미리트의 소비금액 증가율이 소비건수 증가율을 상회하면서 건당 소비금액은 2023년 44만 8천 원에서 2025년 53만 6천 원으로 19.5% 증가하였으며, 약국을 제외한 의료기관 건당 소비금액은 2023년 83만 6천 원에서 2025년 118만 원으로 41.1% 높아짐



[그림 13] 2023~2025년 아랍에미리트의 월별 의료소비 추이
출처: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 데이터랩「의료관광 현황」

〈표 42〉 2023~2025년 아랍에미리트의 의료소비 현황

구분	2023년	2024년	전년 대비	2025년	전년 대비	2023년 대비
소비건수(건)	12,943	18,944	46.4	25,514	34.7	97.1
전체 외국인 소비건수 대비 비중(%, %p)	0.78	0.75	-0.03	0.67	-0.08	-0.11
소비금액(억원)	58.0	86.5	49.0	136.7	58.1	135.6
전체 외국인 소비금액 대비 비중(%, %p)	1.00	0.83	-0.17	0.79	-0.04	-0.21
건당 소비금액(만원)	44.8	45.7	1.8	53.6	17.4	19.5

자료: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 데이터랩「의료관광 현황」의 외국인 의료소비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진 재구성

○ 피부과 소비가 가장 빠르게 확대되는 한편, 건당 소비금액은 성형외과가 가장 높게 나타남

- 아랍에미리트의 피부과 소비건수는 2023년 1.6천 건에서 2024년 3.1천 건, 2025년 4.5천 건으로 증가하였으며, 같은 기간 소비금액은 12억 1천만 원에서 31억 3천만 원, 60억 4천만 원으로 약 5배 확대됨
- 건당 소비금액도 2023년 76만 5천 원에서 2025년 132만 9천 원으로 상승하였으며, 의료기관 중 피부과 비중은 2023년 22.6%에서 2025년 48.3%로 높아져 최대 소비 분야로 부상함

- 성형외과 소비건수는 2023년 1.0천 건에서 2025년 1.2천 건으로 완만하게 증가하는 반면, 소비금액은 2023년 22억 2천만 원에서 2025년 34억 6천만 원으로 확대됨
- 건당 소비금액은 2023년 233만 6천 원, 2024년 227만 8천 원, 2025년 279만 7천 원으로 모든 주요 의료업종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을 보임

○ **대학·종합병원 소비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미용 의료뿐 아니라 치료 목적의 의료수요도 일정 규모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아랍에미리트의 대학·종합병원 소비건수는 2023년 2.5천 건에서 2024년 2.9천 건으로 증가한 후 2025년 2.9천 건을 유지하였으며, 같은 기간 소비금액은 13억 6천만 원에서 15억 6천만 원, 17억 8천만 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함

○ **한의학과의 이용 규모는 작으나, 소비금액과 건당 소비금액이 빠르게 증가하는 성장 분야로 나타남**

- 한의학과 소비건수는 2023년 0.4천 건에서 2024년과 2025년 각각 0.6천 건으로 증가하였으며, 소비금액도 2023년 1억 8천만 원에서 2024년 4억 1천만 원, 2025년 5억 9천만 원으로 확대되며 건당 소비금액도 50만 7천 원에서 97만 9천 원으로 약 2배 상승함

〈표 43〉 2023~2025년 아랍에미리트의 주요 진료과목별 소비 현황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소비 건수 (천건)	소비 금액 (억원)	건당 금액 (만원)	소비 건수 (천건)	소비 금액 (억원)	건당 금액 (만원)	소비 건수 (천건)	소비 금액 (억원)	건당 금액 (만원)
피부과	1.6	12.1	76.5	3.1	31.3	102.4	4.5	60.4	132.9
성형외과	1.0	22.2	233.6	1.1	24.6	227.8	1.2	34.6	279.7
대학·종합병원	2.5	13.6	54.7	2.9	15.6	53.5	2.9	17.8	60.7
한의학과	0.4	1.8	50.7	0.6	4.1	70.4	0.6	5.9	97.9
치과	0.7	3.0	40.7	0.8	3.5	42.2	1.0	4.6	43.7
기타	0.2	0.8	40.9	0.3	1.1	43.0	0.4	1.8	50.2

주1) 기타는 안과와 한약방 합계를 의미함
주2) 진료과목별 소비건수와 소비금액은 연간 총계에 공표 구성비를 적용한 추정치로, 구성비 반올림에 따라 실제 집계값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소비건수와 건당 소비금액은 각각 카드 결제건수와 결제 1건당 평균금액임
자료: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 데이터랩 「의료관광 현황」의 외국인 의료소비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진 재구성

□ (사우디아라비아) 전체 시장 내 비중은 0.4% 미만으로 작으나, 소비금액은 2년간 약 3.9배 증가하며 피부과 중심의 미용의료와 치료형 수요가 공존하는 시장으로 확인됨

○ **사우디아라비아의 의료 소비건수는 2023년 4,937건에서 2024년 9,379건(전년比 +90.0%)으로 증가하였으며, 2025년에는 1만 3,444건(전년比 +43.3%)으로 약 2.7배 규모로 확대됨**

- 소비금액은 2023년 11억 6천만 원에서 2024년 23억 3천만 원(전년比 +100.9%), 2025년 45억 3천만 원(전년比 +94.2%)으로 약 3.9배 확대됨
- 건당 소비금액은 2023년 23만 5천 원에서 2024년 24만 9천 원, 2025년 33만 7천 원으로

2023년 대비 43.3% 상승하였으며, 약국을 제외한 의료기관 건당 소비금액도 2023년 68만 4천 원에서 2025년 94만 2천 원으로 높아짐

- 특히 2025년에는 소비금액 증가율이 소비건수 증가율보다 50.9%p 높게 나타나, 전체 외국인 의료소비 중 소비금액 비중도 2023년 0.20%에서 2025년 0.26%로 상승함



[그림 14] 2023~2025년 사우디아라비아의 월별 의료소비 추이

출처: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 데이터랩「의료관광 현황」

〈표 44〉 2023~2025년 사우디아라비아의 의료소비 현황

구분	2023년	2024년	전년 대비	2025년	전년 대비	2023년 대비
소비건수(건)	4,937	9,379	90.0	13,444	43.3	172.3
전체 외국인 소비건수 대비 비중(%, %p)	0.30	0.36	0.06	0.35	-0.01	0.05
소비금액(억원)	11.6	23.3	100.9	45.3	94.2	290.2
전체 외국인 소비금액 대비 비중(%, %p)	0.20	0.23	0.03	0.26	0.03	0.06
건당 소비금액(만원)	23.5	24.9	5.8	33.7	35.5	43.3

자료: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 데이터랩「의료관광 현황」의 외국인 의료소비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진 재구성

○ 피부과 소비가 급격하게 확대되면서 사우디아라비아 의료소비시장의 성장을 주도함

- 피부과 소비건수는 2023년 약 0.51천 건에서 2024년 1.22천 건, 2025년 2.17천 건으로 약 4.3배 증가하였으며, 같은 기간 소비금액은 4억 1천만 원에서 11억 8천만 원, 26억 8천만 원으로 약 6.6배 확대됨
- 의료기관 소비금액 중 피부과 비중은 2023년 38.7%에서 2025년 66.0%로 높아졌으며, 건당 소비금액도 2023년 80만 8천 원에서 2025년 123만 5천 원으로 상승하여, 피부과 소비는 이용건수와 소비금액, 건당 소비 수준이 모두 증가한 핵심 성장 분야로 나타남

○ 성형외과는 건당 소비금액이 가장 높은 고액 의료소비 분야로 확인됨

- 성형외과 소비건수는 2023년 0.24천 건에서 2025년 0.40천 건으로 증가하였으며, 소비금액은 같은 기간 2억 7천만 원에서 6억 5천만 원으로 약 2.4배 확대됨
- 건당 소비금액은 2023년 109만 8천 원에서 2024년 100만 3천 원으로 소폭 하락했으나,

2025년에는 163만 6천 원으로 크게 상승함

○ 대학·종합병원과 치과·한의학과 소비도 함께 늘어, 의료수요가 미용 분야에만 국한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대학·종합병원 소비건수는 2023년 0.43천 건에서 2024년 0.95천 건으로 증가한 뒤 2025년 0.88천 건으로 소폭 감소하였으나, 소비금액은 2023년 2억 원에서 2024년 2억 6천만 원, 2025년 3억 1천만 원으로 꾸준히 증가함
- 치과 소비금액은 2023년 8천만 원에서 2025년 1억 9천만 원으로, 한의학과는 2023년 9천만 원에서 2025년 1억 9천만 원으로 각각 2배 이상 확대됨

〈표 45〉 2023~2025년 사우디아라비아의 주요 진료과목별 소비 현황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소비 건수 (천건)	소비 금액 (억원)	건당 금액 (만원)	소비 건수 (천건)	소비 금액 (억원)	건당 금액 (만원)	소비 건수 (천건)	소비 금액 (억원)	건당 금액 (만원)
피부과	0.51	4.1	80.8	1.22	11.8	96.7	2.17	26.8	123.5
성형외과	0.24	2.7	109.8	0.37	3.7	100.3	0.40	6.5	163.6
대학·종합병원	0.43	2.0	46.3	0.95	2.6	27.2	0.88	3.1	35.8
치과	0.18	0.8	46.0	0.37	1.9	50.1	0.45	1.9	42.9
한의학과	0.14	0.9	62.5	0.30	1.4	46.9	0.31	1.9	60.9
기타	0.05	0.1	31.7	0.08	0.2	21.5	0.10	0.4	43.1

주1) 기타는 안과와 한약방 합계를 의미함
주2) 진료과목별 소비건수와 소비금액은 연간 총계에 공표 구성비를 적용한 추정치로, 구성비 반올림에 따라 실제 집계값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소비건수와 건당 소비금액은 각각 카드 결제건수와 결제 1건당 평균금액임
자료: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 데이터랩 「의료관광 현황」의 외국인 의료소비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진 재구성

□ (중동 주요 2개국) 중동의 주요 국가는 피부과·성형외과 중심의 미용의료와 대학·종합병원 등 치료형 수요가 결합된 시장으로 나타남

○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아라비아의 의료소비는 2년간 소비건수 약 2.2배, 소비금액 약 2.6배로 확대됨

- 두 국가의 의료 소비건수는 2023년 1만 7,880건에서 2024년 2만 8,323건(전년比 +58.4%), 2025년 3만 8,958건(전년比 +37.5%)으로 117.9% 증가함
- 소비금액은 2023년 69억 7천만 원에서 2024년 109억 8천만 원, 2025년 182억 원으로 161.3% 증가하여, 소비건수보다 빠르게 늘어남
- 약국을 제외한 의료기관 건당 소비금액도 2023년 80만 6천 원에서 2025년 111만 1천 원으로 37.8% 상승함

○ 피부과 소비가 빠르게 확대되면서 피부·미용 중심으로 재편됨

- 두 국가의 피부과 소비금액은 2023년 16억 2천만 원에서 2024년 43억 1천만 원, 2025년 87억 2천만 원으로 약 5.4배 증가하였으며, 의료기관 소비금액 중 피부과 비중은 2023년 25.3%에서 2025년 52.6%로 높아져 절반을 넘어섬

○ 치료형 소비는 비중은 낮아졌으나, 절대 규모는 꾸준히 증가함

- 대학·종합병원 소비금액은 2023년 15억 6천만 원에서 2025년 20억 9천만 원으로 증가한 가운데, 절대 소비금액은 증가하며 치료 목적의 의료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 및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남

□ (카자흐스탄) 의료소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대학·종합병원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의료소비의 중심을 형성함

○ 카자흐스탄의 의료 소비건수는 2023년 3만 6,895건에서 2024년 5만 280건으로 전년 대비 36.3% 증가하였으며, 2025년에는 6만 1,736건으로 22.8% 증가함

- 소비금액도 2023년 253억 4천만 원에서 2024년 319억 1천만 원으로 전년 대비 25.9% 증가하였으며, 2025년 406억 3천만 원으로 전년 대비 27.3% 증가함
- 건당 소비금액은 2023년 68만 7천 원에서 2024년 63만 5천 원으로 감소한 후 2025년 65만 8천 원으로 일부 회복하였으나, 2023년보다 4.2% 낮아 전체 소비 확대는 주로 결제 건수 증가를 통해 이루어짐



[그림 15] 2023~2025년 카자흐스탄의 월별 의료소비 추이

출처: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 데이터랩「의료관광 현황」

〈표 46〉 2023~2025년 카자흐스탄의 의료소비 현황

구분	2023년	2024년	전년 대비	2025년	전년 대비	2023년 대비
소비건수(건)	36,895	50,280	36.3	61,736	22.8	67.3
전체 외국인 소비건수 대비 비중(%, %p)	2.22	1.98	−0.24	1.61	−0.4	−0.6
소비금액(억원)	253.4	319.1	25.9	406.3	27.3	60.3
전체 외국인 소비금액 대비 비중(%, %p)	4.36	3.2	−1.2	2.36	−0.8	−2.0
건당 소비금액(만원)	68.7	63.5	−7.6	65.8	3.7	−4.2

자료: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 데이터랩「의료관광 현황」의 외국인 의료소비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진 재구성

○ **대학·종합병원은 의료기관 소비금액의 약 80%를 지속적으로 차지하며 핵심 소비 분야를 형성함**

- 대학·종합병원의 소비건수는 2023년 20.92천 건에서 2025년 30.09천 건, 소비금액은 191억 7천만 원에서 305억 8천만 원으로 증가함
- 건당 소비금액도 2023년 91만 7천 원에서 2025년 101만 6천 원으로 상승하여 결제건수와 건당 금액이 함께 확대됨
- 의료기관 소비금액 중 대학·종합병원 비중은 2023년 78.0%, 2025년 78.9%로 유지되었으며, 2025년 의료기관 결제의 86.4%가 대학·종합병원에서 발생함

○ **성형외과의 고액 소비와 피부과·치과의 소비 확대가 나타나지만, 대학·종합병원 중심의 소비 구조는 유지됨**

- 성형외과 소비금액은 2023년 36억 7천만 원에서 2025년 52억 원으로 증가하였으며, 2025년 건당 소비금액은 419만 5천 원으로 주요 진료과목 가운데 가장 높음
- 성형외과의 전체 소비건수의 2.01%를 차지했으나, 소비금액 비중은 12.81%로 대학·종합병원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음
- 피부과 소비금액도 같은 기간 6억 9천만 원에서 14억 9천만 원, 치과는 3억 9천만 원에서 6억 9천만 원으로 확대되었으나 두 분야를 합해도 의료기관 소비금액의 5.6%에 그침

〈표 47〉 2023~2025년 카자흐스탄의 주요 진료과목별 소비 현황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소비 건수 (천건)	소비 금액 (억원)	건당 금액 (만원)	소비 건수 (천건)	소비 금액 (억원)	건당 금액 (만원)	소비 건수 (천건)	소비 금액 (억원)	건당 금액 (만원)
대학·종합병원	20.92	191.7	91.7	26.93	248.7	92.4	30.09	305.8	101.6
성형외과	0.91	36.7	404.3	0.98	37.5	382.5	1.24	52	419.5
피부과	0.47	6.9	147.6	0.78	7.2	92.5	1.21	14.9	123.2
치과	0.44	3.9	87	0.82	6.6	80.1	0.97	6.9	70.8
한의학과	0.71	4.4	61.6	0.5	3.4	68.5	0.81	4.3	53.4
기타	0.29	2.1	71.3	0.42	2.8	68.1	0.49	3.7	74

주1) 기타는 안과와 한약방 합계를 의미함
주2) 진료과목별 소비건수와 소비금액은 연간 총계에 공표 구성비를 적용한 추정치로, 구성비 반올림에 따라 실제 집계값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소비건수와 건당 소비금액은 각각 카드 결제건수와 결제 1건당 평균금액임
자료: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 데이터랩 「의료관광 현황」의 외국인 의료소비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진 재구성

□ (소결) 외국인 의료소비는 피부과를 중심으로 규모 확대와 고액화가 함께 진행되었으나, 국가별로 성장 방식, 소비 단가, 진료과목 구성이 뚜렷하게 달라 서로 다른 시장구조를 형성함

○ (성장구조) 소비금액이 소비건수보다 빠르게 증가하며 의료소비 자체의 고액화가 진행됨

- 전체 의료 소비건수는 2023년 165만 9천 건에서 2025년 383만 2천 건으로 131.0% 증가하였으며, 소비금액은 5,817억 원에서 1조 7,228억 원으로 196.2% 확대됨
- 건당 소비금액은 같은 기간 35만 1천 원에서 45만 원으로 28.2% 상승하였으며, 약국을 제외한 의료기관 건당 소비금액은 66만 5천 원에서 100만 8천 원으로 51.6% 높아져 의료서비스 단가의 상승이 더 뚜렷함

○ (소비구조) 피부과가 최대 소비 분야로 부상하고 성형외과는 최고 단가를 유지하는 가운데, 치료 관련 소비의 절대 규모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피부과 소비금액은 2023년 1,910억 원에서 2025년 9,391억 원으로 391.7% 증가하여 2024년 성형외과를 넘어 최대 소비 분야가 되었으며, 건당 소비금액도 62만 1천 원에서 110만 4천 원으로 77.8% 상승함
- 성형외과 소비금액은 2,113억 원에서 4,114억 원으로 94.7% 증가하였으며, 2025년 건당 소비금액은 189만 3천 원으로 진료과목 중 가장 높음
- 2025년 피부과·성형외과는 의료기관 소비금액의 84.6%를 차지하여, 유치실적에서 확인된 피부·미용 중심의 성장이 소비 측면에서도 나타남
- 한편 대학·종합병원(874억 원 → 1,220억 원), 치과(375억 원 → 689억 원), 안과(123억 원 → 319억 원) 소비도 모두 증가하여, 피부·미용의 비중 상승은 다른 분야의 소비 감소가 아닌 분야별 성장 속도의 차이를 반영함

○ (국가별 시장 위상) 전체 시장의 빠른 확대 속에서 국가별 소비금액 비중은 엇갈리게 변화함

- 대만은 소비금액이 2년간 약 18.5배 늘어 비중이 2.1%에서 13.5%로 높아졌으며, 중국(11.2% → 13.0%), 싱가포르(4.33% → 5.36%), 말레이시아(0.52% → 0.64%), 사우디아라비아(0.20% → 0.26%)도 비중이 상승함
- 반면 미국(30.5% → 22.0%)과 일본(22.3% → 18.3%)의 절대 규모는 커졌으나, 비중이 낮아졌으며, 태국(4.92% → 2.54%), 카자흐스탄(4.36% → 2.36%), 베트남(0.87% → 0.32%)의 비중은 크게 줄어듦
- 2025년 소비금액 기준으로는 미국(3,794억 원), 일본(3,154억 원), 대만(2,318억 원), 중국(2,248억 원) 순으로, 4개국이 전체 외국인 의료소비의 66.8%를 차지함

○ (국가별 단가) 같은 진료과목이라도 국가별 소비 단가의 차이가 크게 나타남

- 2025년 의료기관 건당 소비금액은 인도네시아(202만 8천 원), 중국(194만 7천 원), 대만(161만 1천 원)이 높은 반면, 베트남(62만 9천 원), 일본(73만 8천 원), 미국(74만 6천 원), 캐나다(77만 5천 원)는 낮은 수준임

- 피부과 건당 소비금액은 중국 223만 4천 원, 대만 159만 원에서 일본 65만 원까지 최대 약 3.4배 차이가 나며, 일본은 같은 피부·미용 집중 시장이라도 다빈도·소액 소비가 특징임
- 성형외과 건당 소비금액은 카자흐스탄(419만 5천 원), 인도네시아(397만 4천 원), 태국(382만 7천 원)이 높아, 성형외과 이용 규모는 작더라도 1건당 지출이 큰 시장이 존재함
- 성장 방식도 달라, 중국은 결제건수 비중이 낮아지는 가운데 소비금액 비중이 높아진 단가 주도형인 반면, 몽골·카자흐스탄은 건당 금액의 변화가 작아 결제건수 확대가 성장을 이끌었으며, 베트남은 의료기관 건당 소비금액이 하락한 유일한 시장임

○ **(국가별 소비구조) 의료기관 소비의 진료과목 구성에 따라 국가별 소비구조는 다섯 가지로 구분됨**
- (미용 집중) 중국, 대만, 태국,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는 피부과·성형외과가 의료기관 소비금액의 92~97%를 차지하며, 이 중 태국·싱가포르·말레이시아는 소비의 중심이 성형외과에서 피부과로 전환되었고, 인도네시아는 성형외과 중심을 유지함
- (미용 집중·저단가) 일본은 피부·미용 집중도(94.2%)는 높으나 의료기관 건당 소비금액이 전체 평균보다 낮은 다빈도·소액형 시장임
- (미용·치료 병존) 미국, 캐나다, 호주, 중동은 피부·미용이 중심이나 치료·기타 분야가 의료기관 소비금액의 18~28%를 유지하며, 미국은 대학·종합병원, 호주는 치과·안과가 치료형 소비를 이끎
- (치료 중심) 카자흐스탄(78.9%)과 몽골(45.7%)은 대학·종합병원이 최대 소비 분야이며, 몽골은 안과 비중이 10.4%에서 18.9%로 높아지며 소비 분야가 다변화됨
- (치료 전환) 베트남은 성형외과 소비가 41% 줄고 대학·종합병원 소비가 53% 늘면서, 치료·기타 비중이 29.6%에서 44.5%로 높아져 대부분 국가와 반대 방향으로 소비구조가 이동함

○ **(외국인환자 유치실적과 비교) 피부과 중심의 성장구조는 두 자료에서 일관되나, 국가별 시장 위상과 치료 수요의 경제적 비중은 다르게 나타남**
- 환자 수 기준으로는 중국·일본이 최대 시장이나, 소비금액 기준으로는 미국이 최대 시장이며, 대만은 환자 수가 중국의 약 30% 수준임에도 소비금액이 중국을 상회함
- 전체적으로 외국인환자 수(약 3.3배)가 소비금액(약 3.0배)보다 빠르게 늘면서, 환자 1인당 카드 소비금액은 2023년 약 96만 원에서 2025년 약 86만 원으로 낮아짐
- 중국은 환자 수가 약 5.5배 늘었으나 소비금액은 약 3.5배 증가에 그쳤으며, 내과통합·검진센터 환자가 약 2.6배 늘었음에도 대학·종합병원 소비는 52억 원 수준에서 정체되어, 치료 수요의 지출 확대가 확인되지 않음. 이는 간편결제 등 카드 외 결제 비중이 높은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판단됨
- 태국도 내과통합 환자는 늘었으나 대학·종합병원 소비는 정체된 반면, 미국은 치료·건강관리 수요가 환자 수와 소비에서 함께 증가함
- 몽골(환자 1.6배, 소비 2.1배)과 카자흐스탄(환자 1.3배, 소비 1.6배)은 환자 수 기준으로는 저성장 시장이나 소비금액 증가가 환자 증가를 웃돌아, 치료 중심의 소비를 통해 지출 측면의 가치가 확인됨

○ 국가별 의료소비의 진료과목 구성, 단가, 성장 방식을 기준으로 국가별 시장을 유형화한 결과는 〈표 48〉과 같음

- 국가별 유형은 2025년 의료기관 소비금액 중 피부과·성형외과 비중과 대학·종합병원 등의 치료 관련 분야의 비중 및 변화 방향을 기준으로 (1)미용 집중, (2)미용·치료 병존, (3)치료 중심, (4)치료 전환으로 구분함
- 미용 집중 시장 가운데 의료기관 건당 소비금액이 전체 평균보다 낮은 시장의 경우 미용집중·저단가로 별도 구분하였으며, 다음으로 2023~2025년 소비금액과 소비건수의 증가 속도, 최대 소비 분야의 변화, 전체 외국인 의료소비 내 비중 변화를 기준으로 세부 유형을 구분함

〈표 48〉 의료소비로 본 국가별 시장 유형 및 주요 특징

국가	유형	핵심 특징
중국	(미용 집중) 고단가 성장형	- 소비금액이 소비건수보다 빠르게 늘어 결제건수 비중은 하락, 소비금액 비중은 상승함 - 피부과가 의료기관 소비의 75.0%를 차지하며 성형외과에서 피부과로 성장 중심이 이동함 - 피부과 건당 소비금액이 대상국 중 가장 높음
일본	(미용 집중) 다빈도·저변확대형	- 소비 규모는 확대되었으나 결제건수 중심으로 늘어 전체 시장 내 소비금액 비중은 하락함 - 의료기관 소비의 94.2%가 피부과·성형외과에 집중됨 - 피부과 건당 소비금액이 대상국 중 가장 낮은 다빈도·소액 소비 구조임
대만	(미용 집중) 초고속·고액화형	- 소비금액이 2년간 약 18.5배 늘어 전체 시장 내 비중이 2.1%에서 13.5%로 상승함 - 피부과가 의료기관 소비의 80.0%를 차지하여 피부과 집중도가 대상국 중 가장 높음 - 의료기관 건당 소비금액이 약 2배로 높아지며 고액화가 빠르게 진행됨
미국	(미용·치료 병존) 대규모·복합소비형	- 최대 소비시장이나 전체 시장 내 비중은 하락함 - 피부과가 2024년 최대 소비 진료과목으로 부상함 - 대학·종합병원, 치과 등 치료형 소비 규모가 대상국 중 가장 큼
태국	(미용 집중) 성형 고액·피부 전환형	- 소비는 증가하였으나 전체 시장보다 성장이 더뎌 비중이 하락함 - 2025년 피부과가 성형외과를 넘어서며 소비 중심이 전환되고, 피부·성형 비중(97.2%)은 대상국 중 가장 높음 - 성형외과는 건수가 줄어든 반면 건당 소비금액은 상승함
싱가포르	(미용 집중) 피부과 주도·고성장형	- 소비금액이 2년간 약 3.7배 늘어 전체 시장 내 비중이 상승함 - 피부과가 결제건수와 소비금액 성장을 주도하며 2024년 최대 소비 분야로 부상함 - 성형외과는 이용이 정체되었으나 건당 소비금액 상승으로 소비가 확대됨
인도네시아	(미용 집중) 성형 고액·피부 확장형	- 소비금액이 전체 시장과 비슷한 속도로 늘어 시장 내 비중을 유지함 - 성형외과가 의료기관 소비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가운데, 피부과는 2025년 결제건수 기준으로 성형외과를 넘어섬 - 의료기관 건당 소비금액이 대상국 중 가장 높음
말레이시아	(미용 집중) 소규모 고성장·피부 전환형	- 소비 규모는 작으나, 2025년 두 배 이상 늘며 전체 시장 내 비중 증가 - 성형외과에서 피부과로의 소비 전환 폭이 대상국 중 가장 큼 - 의료기관 소비의 93.7%가 피부과·성형외과에 집중된 미용 단일형 구조임
캐나다	(미용·치료 병존) 피부과 주도·치료 병존형	- 소비금액은 2년간 약 2.3배 늘었으나, 전체 시장 내 비중은 하락함 - 피부과가 2024년 성형외과를 넘어 최대 소비 분야로 부상함 - 치과·대학·종합병원 등 치료형 소비가 의료기관 소비의 4분의 1가량을 차지하며, 의료기관 건당 소비금액은 전체 평균보다 낮음
호주	(미용·치료 병존) 피부·성형 동반 성장형	- 소비금액이 2년간 약 2.8배 늘어 전체 시장 내 비중을 유지함 - 피부과의 급성장과 성형외과의 고액화가 동시에 나타남 - 치료형 소비의 경우 치과 및 안과를 중심으로 형성됨
몽골	(치료 중심) 종합병원·안과 확장형	- 대학·종합병원이 의료기관 소비의 45.7%를 차지하는 최대 소비 분야임 - 안과 비중이 18.9%로 높아지고 성형외과·피부과도 늘어 소비 분야가 다변화됨 - 성형외과·피부과 소비도 확대되며 소비 분야가 다변화됨
베트남	(치료전환) 저단가·생활형 이용 확대형	- 결제 건수는 늘었으나 소비금액이 정체되어 건당 소비금액이 31.4%로 하락함 - 고액 성형외과 소비가 줄고 대학·종합병원 소비가 늘어 치료·기타 비중이 44.5%로 상승함 - 국가 중 유일하게 소비구조가 미용에서 치료로 이동함
중동	(미용·치료 병존) 미용 전환·고액형	- 피부과 비중이 25.3%에서 52.6%로 높아지며 피부과 중심으로 소비구조가 재편됨 - 대학·종합병원 등 치료형 소비가 일정 규모로 유지됨 - 성형외과를 중심으로 고액 소비 특성이 나타남
카자흐스탄	(치료 중심) 종합병원 집중형	- 대학·종합병원이 의료기관 소비금액의 78.9%, 결제의 86.4%를 차지함 - 소비는 증가하였으나 전체 시장 내 비중은 4.36%에서 2.36%로 하락함 - 성형외과 이용은 적으나 건당 소비금액이 대상국 중 가장 높음

주) 중동은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아라비아 의료소비 결과를 의미함
자료: 연구진 작성

5. 외래관광객조사를 통해 살펴본 의료관광 행태

□ 외국인환자 유치실적과 카드 의료소비에서 확인된 피부·미용 중심의 성장이 방한 외래관광객의 실제 관광행태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외래관광객조사를 통해 살펴봄

○ 외국인환자 유치실적은 시장 규모와 진료수요를, 카드 의료소비는 의료기관에서의 지출 규모와 구조를 보여주나, 의료서비스 이용이 방한 전부터 계획된 것인지, 방한 중 다른 관광활동과 어떻게 결합되는지는 확인할 수 없음

- 외래관광객조사는 방한 전 고려한 활동과 방한 중 실제 참여한 활동, 체류기간과 지출경비를 함께 조사하여, 의료관광을 수요자 관점에서 방한 관광의 일부로 파악할 수 있는 자료임
- 이에 본 장에서는 관광목적 외래관광객을 대상으로 의료관광의 고려·참여 수준과 참여경로를 살펴보고, 참여자의 체류기간, 관광활동, 지출경비 등을 분석함

□ 2023~2025년 외래관광객의 의료관광 고려율과 참여율은 전반적으로 상승하였으며, 뷰티·미용 수요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치료·건강검진 수요도 지속적으로 확대됨

○ 방한 전 의료관광을 고려한 비율과 실제 참여한 비율이 모두 증가하며, 의료관광에 대한 관심과 활동 모두 확대된 것으로 나타남

- 의료관광 고려율은 2023년 14.1%에서 2024년 16.9%, 2025년 18.0%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참여율 또한 같은 기간 15.0%에서 19.3%, 19.5%로 상승하여 2025년 방한 외래관광객 약 5명 중 1명이 의료관광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남

○ 2025년 뷰티·미용의 고려율과 참여율 모두 2023년 대비 증가함

- 뷰티·미용 고려율은 2023년 10.8%에서 2024년 13.0%로 증가한 후 2025년 12.5%로 소폭 하락하였으나, 2023년보다 1.7%p 높은 수준을 유지함
- 뷰티·미용 참여율 또한 2023년 12.0%에서 2024년 14.8%로 증가한 후 2025년 14.0%로 소폭 낮아졌으나, 2023년 대비 2.0%p 높게 나타남

○ 치료·건강검진은 뷰티·미용보다 수준은 낮으나, 고려율과 참여율이 모두 매년 증가함

- 치료·건강검진 고려율은 2023년 4.1%에서 2024년 5.1%, 2025년 7.0%로 2년간 약 70.7% 증가하여 뷰티·미용보다 빠른 증가세를 보임
- 참여율도 4.2%에서 6.1%, 7.3%로 상승함에 따라 뷰티·미용과 치료·건강검진의 격차는 고려율 기준 2023년 6.7%p에서 2025년 5.5%p로, 참여율 기준 7.8%p에서 6.7%p로 감소함

○ 치료·건강검진은 뷰티·미용보다 낮은 수준이나 2023년 이후 고려율과 참여율이 꾸준히 높아져, 치료·건강관리 목적의 수요도 점차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남

〈표 49〉 2023~2025년 외래관광객의 의료관광 활동 고려율과 참여율

(단위 : %)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의료관광	고려율	14.1	16.9	18.0
	참여율	15.0	19.3	19.5
뷰티·미용	고려율	10.8	13.0	12.5
	참여율	12.0	14.8	14.0
치료·건강검진	고려율	4.1	5.1	7.0
	참여율	4.2	6.1	7.3

주1) 의료관광은 뷰티·미용 또는 치료·건강검진 중 하나 이상을 고려하거나 참여한 경우를 의미함
주2) 고려율은 방한 전 고려한 활동, 참여율은 방한 중 주요 참여한 관광활동의 1~3순위 합산 기준임
주3) 방한 목적이 '여가·위락·휴식' 또는 '친구·친지 방문'인 관광목적 방한객 기준임
자료: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관광연구원「외래관광객조사」원자료를 바탕으로 연구진 재구성

□ 관광목적 방한객의 의료관광 관심과 참여가 확대되는 가운데, 몽골·중동·러시아의 참여율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일본은 높은 참여 수준을 유지함

○ 2025년 의료관광 고려율은 몽골이 46.8%로 가장 높았으며, 중동(33.5%), 일본(27.7%), 러시아(25.0%) 순으로 나타남

- 실제 의료관광 참여율 역시 몽골(51.0%)이 가장 높았으며, 중동(39.5%), 러시아(26.1%), 일본(26.0%), 캐나다(24.4%), 필리핀(23.4%) 순으로 나타남
- 몽골, 중동, 러시아, 일본은 고려율과 참여율이 모두 전체 수준을 웃돌아 의료관광 활동 선택 성향이 높게 나타났으며, 캐나다와 필리핀은 고려율에 비해 참여율이 높게 나타남

○ (몽골) 의료관광 고려율과 참여율이 모두 큰 폭으로 증가하며 국가 중 가장 높은 참여 수준과 가장 큰 상승 폭을 보임

- 몽골의 의료관광 고려율은 2023년 17.8%에서 2024년 30.1%, 2025년 46.8%로 2년간 29.0%p, 참여율은 18.9%에서 32.3%, 51.0%로 32.1%p 상승함
- 2025년 몽골 관광목적 방한객의 절반 이상이 뷰티·미용 또는 치료·건강검진에 참여하며 의료관광이 주요 방한 활동으로 확인됨

○ (중동·러시아) 의료관광에 대한 관심과 실제 참여가 함께 증가하였으며, 특히 2025년 크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남

- 중동의 의료관광 고려율은 2023년 14.3%에서 2025년 33.5%로 19.2%p, 참여율은 19.1%에서 39.5%로 20.4%p 상승하였으며, 2025년 참여율은 전년 대비 15.6%p 높아져 관광목적 방한 외래관광객 약 5명 중 2명이 의료관광에 참여함
- 러시아의 의료관광 고려율은 2023년 4.7%에서 2025년 25.0%로 20.3%p, 참여율은 13.5%에서 26.1%로 12.6%p 상승하여 최근 의료관광 활동의 선택 비율이 크게 높아짐

○ (일본) 의료관광 고려율과 참여율이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며 주요 방한 시장임과 동시에 의료관광

시장으로 나타남

- 일본의 의료관광 고려율은 2023년 23.1%에서 2024년 28.0%로 증가한 후 2025년 27.7%로 소폭 하락함
- 참여율 역시 2023년 21.7%에서 2024년 29.1%로 상승한 후 2025년 26.0%로 낮아졌으나, 2023년 대비 4.3%p 높고 전체(19.5%)보다 6.5%p 높은 수준을 유지하며 방한 외래관광객 약 4명 중 1명이 의료관광에 참여함

○ **(동남아시아) 대부분의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의료관광 고려율보다 참여율이 높게 나타나 실제 의료관광 참여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말레이시아의 의료관광 고려율은 2023년 9.5%에서 2025년 16.7%로, 참여율은 12.2%에서 21.7%로 상승하였으며, 싱가포르도 같은 기간 고려율이 10.1%에서 14.9%로, 참여율이 11.2%에서 20.6%로 높아짐
- 인도네시아의 참여율은 2024년 9.8%에서 2025년 22.8%로 13.0%p 상승하였으며, 베트남도 같은 기간 12.1%에서 17.6%로 상승함
- 필리핀과 태국의 2025년 참여율은 각각 23.4%, 19.6%로 전년보다 낮아졌으나 2023년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함
- 2025년에는 동남아시아 6개국 모두 참여율이 고려율보다 높아, 방한 전 의료관광을 고려하지 않았던 방한객의 실제 참여가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줌

○ **(중국·대만·홍콩) 의료관광 고려율과 참여율이 2023년보다 높아졌으나, 2025년 참여율은 전체 수준보다 낮게 나타남**

- 중국의 고려율은 2023년 15.8%에서 2025년 17.8%로 상승하였으며, 참여율은 2023년 13.4%에서 2024년 17.7%로 상승한 후 2025년에도 같은 수준을 유지함
- 대만의 고려율은 2023년 7.1%에서 2025년 9.8%로, 참여율은 7.7%에서 11.3%로 상승하였으며, 홍콩도 같은 기간 고려율이 12.2%에서 13.7%로, 참여율이 10.1%에서 16.5%로 높아짐
- 특히 중국과 대만은 외국인환자 유치실적과 의료소비에서는 주요 시장이나, 방한 외래관광객 중 의료관광 참여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음
- 이는 두 시장의 방한객 규모가 커 참여율이 낮더라도 의료관광 참여자 수와 소비 규모는 크게 나타날 수 있으며, 의료관광 수요가 방한객 전체로 확산되기보다 일부 수요층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음을 의미함

□ 의료관광 전체의 고려율과 참여율은 국가별 의료관광 활동의 전반적인 수준을 보여주나, 어떤 활동을 중심으로 수요가 형성되고 변화하는지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 이에 뷰티·미용과 치료·건강검진의 고려율과 참여율을 각각 살펴보고, 국가별 의료관광 수요의 특성과 변화 양상을 구체적으로 확인함

〈표 50〉 2023~2025년 국가별 의료관광 고려율과 참여율

(단위 : %)

구분	고려율			참여율		
	2023년	2024년	2025년	2023년	2024년	2025년
전체	14.1	16.9	18.0	15.0	19.3	19.5
중국	15.8	16.5	17.8	13.4	17.7	17.7
일본	23.1	28.0	27.7	21.7	29.1	26.0
대만	7.1	8.7	9.8	7.7	10.2	11.3
미국	8.4	11.3	15.1	15.9	17.4	18.0
홍콩	12.2	13.6	13.7	10.1	14.7	16.5
태국	15.3	19.9	11.9	17.8	22.0	19.6
베트남	8.4	8.9	11.7	13.4	12.1	17.6
말레이시아	9.5	13.5	16.7	12.2	19.8	21.7
필리핀	8.5	16.1	14.8	13.2	24.4	23.4
싱가포르	10.1	14.7	14.9	11.2	16.3	20.6
러시아	4.7	9.2	25.0	13.5	16.3	26.1
중동	14.3	17.1	33.5	19.1	23.9	39.5
인도네시아	10.7	7.8	13.9	11.1	9.8	22.8
캐나다	9.6	17.8	15.5	13.4	20.9	24.4
호주	10.0	12.4	10.6	20.3	17.0	17.0
영국	6.1	7.2	8.0	17.8	16.5	8.5
몽골	17.8	30.1	46.8	18.9	32.3	51.0
독일	3.3	7.1	7.1	7.4	12.3	11.6
프랑스	4.1	7.8	8.4	10.5	16.8	17.1
인도	20.9	13.1	17.4	22.0	20.5	22.7
기타	6.7	8.2	11.2	9.9	13.6	14.6

주) 의료관광은 뷰티·미용 또는 치료·건강검진 중 하나 이상을 고려하거나 참여한 경우를 의미함
자료: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관광연구원「외래관광객조사」원자료를 바탕으로 연구진 재구성

□ 뷰티·미용은 일본을 중심으로 높은 수요가 유지되는 가운데, 최근 몽골·중동·러시아 및 일부 동남아 시장으로 수요가 확산되는 양상을 보임

○ 2025년 뷰티·미용 고려율은 몽골이 27.2%로 가장 높았으며, 일본 23.3%, 인도 16.8%, 말레이시아 15.5%, 러시아 15.3%, 중동 15.2% 순으로 나타남

○ 실제 뷰티·미용 참여율은 몽골이 35.9%로 가장 높았으며, 중동 24.0%, 인도 22.7%, 일본·필리핀 각 21.2%, 인도네시아 20.9%, 말레이시아 19.4% 순으로 나타남

○ (일본) 뷰티·미용 고려율과 참여율이 모두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대표적인 뷰티·미용 시장으로 확인됨

- 일본의 뷰티·미용 고려율은 2023년 19.7%에서 2024년 24.4%, 2025년 23.3%로, 참여율은

같은 기간 18.3%에서 24.2%, 21.2%로 나타나, 2025년 일본의 방한 외래관광객 약 5명 중 1명이 뷰티·미용 활동에 참여함

- 2025년 참여율(21.2%)이 고려율(23.3%)보다 낮게 나타난 것은 일본의 뷰티·미용 수요가 방한 전 계획 단계에서 대부분 형성되고 있음을 보여줌

○ **(몽골·중동·러시아) 뷰티·미용 고려율과 참여율이 빠르게 상승한 고관여·성장 시장으로 나타남**

- 몽골의 뷰티·미용 고려율은 2023년 10.3%에서 2024년 14.5%, 2025년 27.2%로 2년간 16.9%p, 참여율은 12.6%에서 19.9%, 35.9%로 23.3%p 상승하여, 2025년 고려율과 참여율 모두 가장 높은 국가로 나타남
- 중동의 참여율은 2023년 10.7%에서 2025년 24.0%로 13.3%p, 러시아의 고려율은 4.1%에서 15.3%로 11.2%p 상승하여, 최근 뷰티·미용 활동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함께 빠르게 높아짐

○ **(동남아시아·캐나다) 뷰티·미용 고려율보다 실제 참여율이 높아, 방한 후 관광 과정에서 뷰티·미용 활동이 추가되는 시장으로 나타남**

- 2025년 인도네시아의 뷰티·미용 참여율은 20.9%로 고려율(9.4%)보다 11.5%p 높았으며, 필리핀(고려율 12.5%, 참여율 21.2%)과 캐나다(9.2%, 18.3%) 또한 참여율이 고려율보다 높게 나타남
- 말레이시아는 고려율(8.7% → 15.5%)과 참여율(12.0% → 19.4%)이 2023년 이후 함께 상승하여, 사전 고려와 현지 참여가 모두 확대되는 양상을 보임
- 반면, 태국은 고려율이 2024년 11.4%에서 2025년 5.9%로, 참여율이 12.3%에서 10.7%로 낮아짐

○ **(중국·대만) 뷰티·미용 고려율과 참여율이 전체 수준보다 낮게 나타남**

- 중국의 뷰티·미용 고려율은 2023년 10.1%에서 2025년 10.0%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참여율은 8.5%에서 9.8%로 소폭 상승하여 전체(14.0%)보다 낮음
- 대만의 2025년 뷰티·미용 고려율과 참여율은 각각 4.8%, 6.8%로 주요 국가 중 낮은 수준임

○ **(종합) 뷰티·미용 수요는 일본과 같은 기존 시장을 기반으로 유지되는 동시에 몽골·중동·러시아와 일부 동남아시아 시장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국가별로 사전 고려와 현지 참여의 비중이 다르게 나타남**

- 일본은 높은 고려율과 참여율이 유지되는 사전 계획 중심의 기존 핵심시장, 몽골·중동·러시아는 최근 고려율과 참여율이 빠르게 상승하는 고관여·잠재 성장시장으로 나타남
- 인도네시아·필리핀·캐나다 등은 참여율이 고려율보다 높아, 방한 과정에서 뷰티·미용 활동이 추가될 가능성이 큰 현지 확장형 시장의 특성을 보임

〈표 51〉 2023~2025년 국가별 뷰티·미용 활동 고려율과 참여율

(단위 : %)

구분	고려율			참여율		
	2023년	2024년	2025년	2023년	2024년	2025년
전체	10.8	13.0	12.5	12.0	14.8	14.0
중국	10.1	10.9	10.0	8.5	11.8	9.8
일본	19.7	24.4	23.3	18.3	24.2	21.2
대만	5.2	6.0	4.8	6.1	7.3	6.8
미국	6.7	9.0	11.4	13.7	14.7	14.9
홍콩	10.9	11.1	9.0	9.3	12.1	11.9
태국	8.4	11.4	5.9	11.7	12.3	10.7
베트남	6.0	7.0	7.8	11.0	9.4	13.4
말레이시아	8.7	12.6	15.5	12.0	16.6	19.4
필리핀	7.4	13.1	12.5	12.2	20.3	21.2
싱가포르	8.7	12.9	10.3	10.0	13.9	15.8
러시아	4.1	5.8	15.3	10.9	12.6	17.2
중동	6.9	8.4	15.2	10.7	16.3	24.0
인도네시아	7.6	5.6	9.4	8.9	7.9	20.9
캐나다	5.9	10.8	9.2	10.4	14.6	18.3
호주	7.3	9.6	8.4	16.5	14.1	13.5
영국	3.6	5.6	6.5	14.0	13.3	6.7
몽골	10.3	14.5	27.2	12.6	19.9	35.9
독일	2.2	5.6	5.1	5.9	10.9	10.1
프랑스	3.9	6.3	7.0	8.8	14.0	13.7
인도	16.6	11.3	16.8	20.1	18.7	22.7
기타	5.0	7.0	8.2	8.4	11.0	12.9

자료: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관광연구원「외래관광객조사」원자료를 바탕으로 연구진 재구성

□ 치료·건강검진 활동은 몽골·중동에서 높은 고려율과 참여율을 보이는 가운데, 중국·일본과 러시아 등에서도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남

○ 외래관광객의 치료·건강검진 고려율과 참여율은 2023~2025년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방한 관광에서 치료·건강검진 활동의 비중이 확대됨

- 치료·건강검진 고려율은 2023년 4.1%에서 2024년 5.1%, 2025년 7.0%로 2년간 2.9%p 상승하였으며, 참여율 또한 같은 기간 4.2%, 6.1%, 7.3%로 지속적으로 확대됨

○ 2025년 기준 치료·건강검진 고려율은 몽골이 23.9%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중동(20.0%), 러시아(10.9%), 중국(10.4%), 캐나다(7.4%) 순으로 나타남

- 실제 참여율 또한 몽골(21.5%)이 가장 높았으며, 중동(18.8%), 태국(10.8%), 중국(9.9%), 러시아(9.5%), 캐나다(9.3%) 순으로 나타남

○ **(몽골) 치료·건강검진에 대한 높은 고려율과 참여율이 지속적으로 나타나, 치료·건강검진 활동의 선택 성향이 강한 시장으로 확인됨**

- 몽골의 치료·건강검진 고려율은 2023년 9.1%, 2024년 19.3%, 2025년 23.9%로 증가하였으며, 참여율은 8.8%에서 16.6%, 21.5%로 상승함
- 2025년 몽골의 외래관광객 약 4명 중 1명이 치료·건강검진을 고려하였으며, 실제 약 5명 중 1명이 치료·건강검진에 참여함

○ **(중동·러시아) 2025년 치료·건강검진 고려율과 참여율이 큰 폭으로 상승하며, 치료·건강검진 수요가 빠르게 확대되는 양상을 보임**

- 중동의 고려율은 2024년 9.0%에서 2025년 20.0%로, 참여율은 9.2%에서 18.8%로 높아져 2025년 고려율과 참여율 모두 몽골 다음으로 높게 나타남
- 러시아의 고려율은 2023년 0.7%에서 2025년 10.9%로, 참여율은 3.4%에서 9.5%로 증가하여, 치료·건강검진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함께 빠르게 높아짐

○ **(중국·일본) 주요 방한 시장에서도 치료·건강검진 참여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함**

- 중국의 고려율은 2023년 7.8%, 2024년 7.7%, 2025년 10.4%로 2025년 크게 높아졌으며, 참여율은 7.0%, 8.2%, 9.9%로 지속적으로 증가함
- 2025년 기준 중국의 고려율과 참여율은 전체보다 각각 3.4%p, 2.6%p 높아, 치료·건강검진의 선택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시장으로 나타남
- 일본의 고려율은 2023년 4.4%에서 2025년 6.3%로 1.9%p, 참여율은 4.0%에서 7.5%로 3.5%p 상승함
- 일본은 2025년 뷰티·미용 참여율이 전년 대비 하락한 것과 달리 치료·건강검진 참여율은 증가하여, 두 활동에서 서로 다른 수요 변화가 나타남

○ **(태국·캐나다) 치료·건강검진 참여율이 고려율보다 높아, 방한 후 현지에서 참여하는 수요가 나타남**

- 태국의 치료·건강검진 고려율은 2023년 7.3%에서 2024년 10.5%로 상승한 후 2025년 6.3%로 4.2%p 하락하였으며, 참여율 역시 2023년 6.5%에서 2024년 12.0%로 상승한 후 2025년 10.8%로 낮아짐
- 그러나 2025년 참여율(10.8%)이 고려율(6.3%)보다 4.5%p 높아, 방한 전 고려한 수요와 함께 사전에 고려하지 않았으나 실제 참여한 수요도 존재함을 보여줌
- 캐나다는 2025년 고려율(7.4%)보다 참여율(9.3%)이 높았으며, 참여율은 2023년 4.3%에서 2배 이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대만·홍콩·싱가포르) 고려율과 참여율이 모두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치료·건강검진 활동이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시장으로 나타남**

- 대만의 고려율은 2023년 2.2%에서 2025년 5.4%로, 참여율은 1.9%에서 5.0%로 각각 3.2%p, 3.1%p 상승하였으며, 같은 기간 홍콩의 고려율은 1.6%에서 5.4%로, 참여율은 1.8%에서 5.7%로 각각 3.8%p, 3.9%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싱가포르의 고려율은 2023년 1.5%에서 2025년 5.7%로, 같은 기간 참여율은 2.2%에서

6.1%로 각각 4.2%p, 3.9%p 상승함

- 세 시장 모두 2025년 참여율은 전체 수준인 7.3%보다 낮지만, 2023년 이후 관심과 실제 참여가 함께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종합) 치료·건강검진은 뷰티·미용보다 수준은 낮으나, 몽골·중동을 중심으로 높은 참여가 나타나는 동시에 주요 방한 시장과 아시아 시장 전반으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임**

- 몽골·중동은 치료·건강검진이 주요 방한 활동으로 자리 잡은 고관여 시장이며, 러시아는 최근 관심과 참여가 가장 빠르게 높아지는 시장으로 확인됨
- 중국·일본은 뷰티·미용 중심 시장이면서도 치료·건강검진 참여가 꾸준히 늘어나, 기존 핵심 시장 내에서 수요가 다변화되는 흐름을 보임
- 대만·홍콩·싱가포르는 수준은 낮으나 고려율과 참여율이 함께 높아지는 초기 확대 단계의 시장으로 나타남

〈표 52〉 2023~2025년 국가별 치료·건강검진 활동 고려율과 참여율

(단위 : %)

구분	고려율			참여율		
	2023년	2024년	2025년	2023년	2024년	2025년
전체	4.1	5.1	7.0	4.2	6.1	7.3
중국	7.8	7.7	10.4	7.0	8.2	9.9
일본	4.4	4.8	6.3	4.0	6.3	7.5
대만	2.2	3.6	5.4	1.9	3.9	5.0
미국	2.3	2.9	4.7	4.2	3.8	5.0
홍콩	1.6	3.0	5.4	1.8	4.2	5.7
태국	7.3	10.5	6.3	6.5	12.0	10.8
베트남	2.9	2.5	4.5	3.1	3.3	4.9
말레이시아	1.0	1.8	1.8	0.6	4.5	2.5
필리핀	2.1	3.2	3.2	1.4	5.0	3.1
싱가포르	1.5	2.7	5.7	2.2	3.5	6.1
러시아	0.7	3.6	10.9	3.4	3.9	9.5
중동	8.3	9.0	20.0	9.6	9.2	18.8
인도네시아	3.2	2.2	4.7	3.9	2.7	4.6
캐나다	4.1	7.5	7.4	4.3	8.4	9.3
호주	2.8	4.2	2.9	5.5	6.2	4.7
영국	2.5	1.6	1.7	5.1	4.1	3.0
몽골	9.1	19.3	23.9	8.8	16.6	21.5
독일	1.2	1.7	2.1	1.9	2.8	2.2
프랑스	0.4	1.8	1.4	2.7	4.2	4.2
인도	4.3	1.8	3.0	3.1	2.7	3.0
기타	1.7	1.5	3.3	2.2	3.3	2.8

자료: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관광연구원「외래관광객조사」원자료를 바탕으로 연구진 재구성

○ 다음으로 의료관광의 사전 고려 여부와 실제 참여 여부에 따른 여행행태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2023~2025년 외래관광객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응답자를 네 집단으로 구분함

- 먼저, 방한 전 고려활동 1~3순위 중 '뷰티·미용' 또는 '치료·건강검진'을 하나 이상 선택한 경우 '사전 고려'로, 방한 중 실제 참여활동에서 두 활동 중 하나 이상을 선택한 경우는 '참여'로 분류함
- 사전 고려여부와 참여여부를 교차분석하여 (1)고려·참여형, (2)고려·미참여형, (3)비고려·참여형, (4)비고려·미참여형으로 구분하고, 집단별 체류기간, 의료관광 외 관광활동 참여 수, 지출경비 등의 특성을 비교함

〈표 53〉 변수설명

구분	변수 정의
의료관광	뷰티·미용 또는 치료·건강검진에 해당하는 관광활동
고려·참여형	방한 전 고려활동 1~3순위 중 의료관광을 선택하고, 실제 참여활동에서도 의료관광을 선택한 집단
고려·미참여형	방한 전 고려활동 1~3순위 중 의료관광을 고려했으나, 실제 관광활동에서는 의료관광을 선택하지 않은 집단
비고려·참여형	방한 전 고려활동 1~3순위에 의료관광을 선택하지 않았으나, 실제 관광활동에서 의료관광을 선택한 집단
비고려·미참여형	방한 전 고려활동 1~3순위와 실제 참여한 관광활동 모두에서 의료관광을 선택하지 않은 집단

주1) '비고려'는 의료관광 활동이 방한 전 고려활동 상위 3순위에 포함되지 않았음을 의미하며, 사전 관심이나 계획이 전혀 없었음을 의미하지 않음
주2) 고려 여부와 참여 여부는 의료관광 활동을 통합한 범주를 기준으로 구분하므로 고려한 세부활동과 실제 참여한 세부 활동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님
주3) 고려 여부와 참여 여부에 모두 유효하게 응답한 사례를 기준으로 산출함. 문항 비해당에 따른 결측은 '비고려' 또는 '미참여'로 분류하지 않음

□ 의료관광을 사전에 고려하고 실제 참여한 비율이 증가하는 가운데, 사전 고려 없이 참여한 수요도 유지되며 외래관광객의 의료관광 참여가 확대됨

○ 방한 외래관광객 중 의료관광을 계획하고 실제로 참여한 '고려·참여형'은 2023년 9.2%에서 2024년 12.9%, 2025년 13.2%로 지속적으로 증가함

- '고려·참여형'은 2023년 대비 2025년 4.0%p 상승하며, 네 집단 중 가장 큰 폭으로 확대됨

○ 의료관광을 사전에 고려하지 않았지만 방한 여행 중 참여한 '비고려·참여형'은 2023년 5.8%, 2024년 6.4%, 2025년 6.3%로 비교적 일정한 수준을 유지함

○ 의료관광을 고려하였으나 참여하지 않은 '고려·미참여형'은 2023년 4.8%, 2024년 4.0%, 2025년 4.8%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여, 사전 고려가 실제 참여로 이어지지 않는 수요도 일정 규모 존재함

○ 반면 의료관광을 고려하지도 참여하지도 않은 '비고려·미참여형'은 2023년 80.1%에서 2024년 76.7%, 2025년 75.7%로 4.4%p 감소함

- 실제 의료관광에 참여한 두 집단의 합계는 약 15.0%에서 19.5%로 상승하였으며, 참여 확대는 '비고려·참여형'보다 '고려·참여형'의 증가를 중심으로 나타남
- 의료관광 참여자 중 '고려·참여형'이 차지하는 비중도 2023년 61.4%에서 2025년 67.7%로 높아져, 방한 전부터 의료관광을 계획하는 수요가 참여 확대를 이끎

〈표 54〉 방한 외래관광객의 의료관광 활동 유형별 비율

(단위 : %)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고려·참여형	9.2	12.9	13.2
고려·미참여형	4.8	4.0	4.8
비고려·참여형	5.8	6.4	6.3
비고려·미참여형	80.1	76.7	75.7
합계	100.0	100.0	100.0

주1) 의료관광 활동 유형은 방한 전 뷰티·미용 또는 치료·건강검진 활동의 고려 여부와 실제 참여 여부를 기준으로 구분함
주2) 문항 비해당에 따른 결측은 '비고려' 또는 '미참여'로 분류하지 않음
자료: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관광연구원「외래관광객조사」원자료를 바탕으로 연구진 재구성

□ 의료관광 참여자는 사전 고려 여부에 따라 서로 다른 여행행태를 보이며, '고려·참여형'은 짧은 체류와 높은 1일 지출, '비고려·참여형'은 긴 체류와 다양한 관광활동을 특징으로 함

○ 의료관광에 참여한 집단은 전체 평균보다 높은 지출 수준을 보이나, 사전 고려 여부에 따라 체류기간과 관광활동 참여 양상에 차이가 나타남

- 2025년 '고려·참여형'의 평균 체류기간은 5.7일로 전체 평균(6.1일)보다 짧고, 의료관광 외 참여 관광활동 수도 3.4개로 전체(3.8개)보다 적음
- 반면 '고려·참여형'의 국제교통비를 제외한 1인 평균 지출경비는 1,834.2달러, 1인 1일 평균 지출경비는 366.9달러로 전체 평균인 1,276.7달러와 242.8달러를 모두 상회함
- '비고려·참여형'의 평균 체류기간은 7.5일이며, 의료관광 외 참여 관광활동 수는 4.4개로 전체 평균보다 많았으며, 국제교통비를 제외한 1인 평균 지출경비와 1인 1일 평균 지출경비도 각각 1,599.4달러와 263.5달러로 전체 평균을 상회함

○ 의료관광에 참여하지 않은 두 집단도 의료관광의 고려 여부에 따라 전체 평균 대비 지출경비에 차이를 보임

- 2025년 '고려·미참여형'의 평균 체류기간은 5.7일, 의료관광 외 참여 관광활동 수는 3.4개로 전체 평균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국제교통비를 제외한 1인 평균 지출경비는 1,339.7달러, 1인 1일 평균 지출경비도 271.9달러로 전체 평균을 상회함
- '비고려·미참여형'의 평균 체류기간과 의료관광 외 참여 관광활동 수는 각각 6.1일과 3.8개로 전체 평균과 같았으나, 국제교통비를 제외한 1인 평균 지출경비와 1인 1일 평균 지출경비는 각각 1,148.7달러와 217.6달러로 전체 평균보다 낮게 나타남

○ **(고려·참여형) 상대적으로 짧게 체류하고 의료관광 외 활동 수는 적으나, 1인 평균 지출경비와 1인 1일 평균 지출경비는 네 집단 중 가장 높게 나타남**

- 평균 체류기간은 2023년 6.5일에서 2025년 5.7일로 전체 평균보다 짧았으며, 의료관광 외 참여 관광활동 수도 네 집단 중 가장 적거나 같은 수준으로 나타남
- 반면 국제교통비를 제외한 1인 평균 지출경비는 2023년 1,827.4달러, 2024년 1,745.9달러, 2025년 1,834.2달러로 매년 네 집단 중 가장 높았으며, 1인 1일 평균 지출경비 또한 2023년 308.6달러에서 2024년 346.9달러, 2025년 366.9달러로 지속적으로 상승함
- 즉, '고려·참여형'은 다른 관광활동을 폭넓게 경험하기보다 상대적으로 짧은 체류기간 동안 높은 지출을 하는 특징을 보임

○ **(비고려·참여형) 네 집단 중 가장 오래 체류하고 가장 다양한 관광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남**

- 평균 체류기간은 2023년 9.4일, 2024년 7.9일, 2025년 7.5일로 네 집단 중 가장 길었으며, 의료관광 외 관광활동 참여 수는 2023~2025년 모두 4.4개로 네 집단 중 가장 많음
- 국제교통비를 제외한 1인 평균 지출경비는 2023년 1,759.0달러에서 2025년 1,599.4달러로 감소하였으나, 매년 '고려·참여형' 다음으로 높은 수준을 보임

○ **(고려·미참여형) '고려·참여형'과 체류기간 및 활동 수는 유사하지만, 지출 수준은 낮게 나타남**

- 2025년 '고려·미참여형'과 '고려·참여형'의 평균 체류기간은 모두 5.7일이며, 의료관광 외 참여 관광활동 수도 모두 3.4개로 나타남
- 그러나 국제교통비를 제외한 1인 평균 지출경비는 '고려·미참여형'이 1,339.7달러로 '고려·참여형'의 1,834.2달러보다 494.5달러 낮게 나타났으며, 1인 1일 평균 지출경비도 각각 271.9달러와 366.9달러로 95.0달러의 차이를 보임

○ **의료관광 참여 집단은 전체 평균보다 높은 지출 수준을 보이며, 사전 고려 여부에 따라 체류와 관광활동의 특성이 다르게 나타남**

- '고려·참여형'은 짧은 체류기간과 적은 관광활동 수에도 지출 수준이 가장 높아 단기 집중 소비형 특성을 보이며, '비고려·참여형'은 긴 체류와 폭넓은 관광활동 속에서 의료관광을 함께 이용하는 복합관광형 특성을 보임
- 다만 지출경비에는 의료비가 포함되어 있어 의료관광 참여자의 높은 지출을 관광 소비의 증가로 해석하기 어려우며, 의료관광을 고려하였으나 참여하지 않은 '고려·미참여형'도 1인 1일 평균 지출경비가 전체 평균보다 높아, 지출 차이에는 의료비 외에 방한객의 여행 성향 차이도 함께 반영되어 있을 수 있음

〈표 55〉 의료관광 활동 유형별 여행행태

구분		평균 체재기간 (일)	의료관광 외 참여 관광활동 수(개)	1인 평균 지출경비(US$)		1인 1일 지출경비(US$)	
				국제교통비 포함	국제교통비 제외	국제교통비 포함	국제교통비 제외
2023년	전체	7.3	3.7	1887.0	1383.5	302.6	225.0
	고려·참여형	6.5	2.8	2225.8	1827.4	376.6	308.6
	고려·미참여형	6.9	3.2	1949.1	1513.7	325.4	249.7
	비고려·참여형	9.4	4.4	2398.2	1759.0	305.7	225.7
	비고려·미참여형	7.3	3.7	1807.2	1297.3	292.5	213.8
2024년	전체	6.4	3.8	1711.5	1301.6	308.6	239.7
	고려·참여형	5.7	3.4	2069.9	1745.9	411.2	346.9
	고려·미참여형	6.6	3.6	1680.8	1282.0	301.6	236.8
	비고려·참여형	7.9	4.4	2168.9	1637.3	335.5	262.4
	비고려·미참여형	6.4	3.8	1614.7	1200.0	289.4	219.9
2025년	전체	6.1	3.8	1671.7	1276.7	311.0	242.8
	고려·참여형	5.7	3.4	2178.0	1834.2	434.6	366.9
	고려·미참여형	5.7	3.4	1716.4	1339.7	342.6	271.9
	비고려·참여형	7.5	4.4	2085.9	1599.4	331.4	263.5
	비고려·미참여형	6.1	3.8	1546.2	1148.7	285.7	217.6

주1) 평균체재기간은 61일이상 체류자를 제외하고 산출함
주2) 지출경비는 전체 사례수를 기준으로 상위 1%, 하위 1%를 가장 가까운 값으로 대체하였으며, 1일 평균 지출경비 산출시 체재기간 61일 이상 체류자를 제외함
자료: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관광연구원「외래관광객조사」원자료를 바탕으로 연구진 재구성

□ 의료관광의 참여 확대는 국가별로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이며, 일본·중국·러시아는 '고려·참여형' 중심, 인도네시아·캐나다·호주는 '비고려·참여형' 중심으로 나타나는 가운데, 몽골·중동에서는 '고려·참여형'이 크게 확대됨

○ 2025년 의료관광의 '고려·참여형' 비율은 몽골이 39.8%로 가장 높았으며, 중동 29.7%, 일본 21.9%, 러시아 20.6%, 중국 12.6% 순으로 나타남

- '비고려·참여형' 비율은 캐나다(13.1%), 인도네시아(13.0%), 말레이시아(11.2%), 몽골(11.1%)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일본·중국) 의료관광 참여자 중 '고려·참여형'이 대부분을 차지하여, 사전 고려를 동반한 참여 성향이 뚜렷한 시장으로 나타남

- 일본의 '고려·참여형'은 2023년 17.8%에서 2024년 24.0%로 증가한 후 2025년 21.9%로 소폭 하락하였으나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비고려·참여형'은 2025년 4.2%로 분석 국가 중 가장 낮게 나타남
- 중국의 '고려·참여형'은 2023년 9.1%에서 2024년 12.4%, 2025년 12.6%로 증가하였으며,

'비고려·참여형'도 4.3%에서 5.1%로 소폭 증가함

- 중국의 '비고려·미참여형'은 2023년 79.9%에서 2025년 77.1%로 감소하여, 의료관광 참여 기반이 점진적으로 확대됨

○ **(대만) 의료관광 참여는 증가하였으나, 참여하지 않은 집단의 비율은 여전히 높게 나타남**

- 대만의 의료관광 '고려·참여형'은 2023년 3.7%에서 2025년 6.3%로 상승하였으며, '비고려·참여형' 또한 4.0%에서 4.9%로 소폭 상승함
- '비고려·미참여형'은 같은 기간 88.9%에서 85.3%로 감소하였으나, 타 국가 대비 높게 나타남

○ **(미국) '비고려·참여형'의 비율이 높은 시장이었으나, '고려·참여형'이 증가하며 두 참여 유형의 상대적 비중이 변화함**

- 미국의 의료관광 '고려·참여형'은 2023년 5.2%에서 2025년 9.5%로 상승하였으나, '비고려·참여형'은 같은 기간 10.6%, 10.1%, 8.5%로 지속적으로 하락함
- 2025년 '고려·참여형'이 '비고려·참여형'보다 1.0%p 높아지며 사전 고려를 동반한 참여가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남

○ **(캐나다·호주) '비고려·참여형'이 '고려·참여형'보다 높게 나타나, 사전 고려 없이 의료관광에 참여한 수요의 상대적 비중이 큰 시장으로 확인됨**

- 캐나다의 '고려·참여형'은 2023년 6.6%에서 2025년 11.3%, '비고려·참여형'은 6.8%에서 13.1%로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으며, 2025년 캐나다의 '비고려·참여형'은 '고려·참여형'보다 1.8%p 높게 나타남
- 호주의 '고려·참여형'은 2023년 5.4%에서 2025년 7.4%로 상승한 반면, '비고려·참여형'은 14.9%에서 9.6%로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높게 나타남

○ **(몽골·중동) '고려·참여형'이 크게 증가하며 최근 사전 고려를 동반한 의료관광 참여의 비중이 빠르게 증가함**

- 몽골의 '고려·참여형'은 2023년 13.0%에서 2025년 39.8%로, '비고려·참여형'은 5.9%에서 11.1%로 각각 26.8%p, 5.2%p 상승함
- 몽골의 '비고려·미참여형'은 같은 기간 76.3%에서 42.1%로 크게 감소하여, 의료관광에 실제 참여한 두 집단의 합계가 2025년 50.9%로 절반 수준에 이름
- 중동의 '고려·참여형'은 2023년 10.6%에서 2025년 29.7%로 크게 상승한 반면, '비고려·참여형'은 8.5%에서 9.8%로 소폭 상승함

○ **(동남아시아) 싱가포르·말레이시아는 두 참여 유형이 함께 확대되고, 베트남은 '고려·참여형'의 증가가 두드러지며, 인도네시아는 '비고려·참여형'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가운데, 태국은 2025년 '고려·참여형'이 감소하고 '비고려·참여형'이 상승함**

- 싱가포르의 '고려·참여형'은 2023년 5.6%에서 2024년 7.5%, 2025년 10.8%로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으며, '비고려·참여형'도 같은 기간 5.6%, 8.8%, 9.8%로 증가하며 사전 고려 여부와 관계없이 참여 기반이 확대됨
- 말레이시아의 '고려·참여형'은 2023년 4.2%에서 2025년 10.5%로 6.3%p, '비고려·참여형'은

8.0%에서 11.2%로 3.2%p 상승하였으며, 두 유형 간 격차가 3.8%p에서 0.7%p로 축소되면서 사전 고려를 동반한 참여의 비중이 높아짐

- 베트남의 '고려·참여형'은 2023년 4.9%에서 2025년 9.1%로 상승한 반면, '비고려·참여형'은 8.5%에서 8.6%로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여, 2023년에는 '비고려·참여형'이 더 높았으나 2025년에는 '고려·참여형'이 소폭 높아짐
- 인도네시아는 2025년 '고려·참여형'이 9.8%, '비고려·참여형'이 13.0%로 '비고려·참여형'이 3.2%p 높았으며, 두 유형 모두 2024년 대비 각각 6.0%p, 7.0%p 상승하여 최근 사전 고려 없이 참여한 수요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함
- 태국의 '고려·참여형'은 2023년 11.3%에서 2024년 17.4%로 상승한 후 2025년 11.2%로 하락한 반면, '비고려·참여형'은 2024년 4.5%에서 2025년 8.4%로 상승함

○ (러시아) '비고려·참여형' 중심에서 '고려·참여형' 중심으로 참여 구조가 변화함

- '고려·참여형'은 2023년 2.7%에서 2024년 7.1%, 2025년 20.6%로 크게 상승한 반면, '비고려·참여형'은 같은 기간 10.8%, 9.2%, 5.5%로 지속적으로 하락함
- 2023년 '비고려·참여형'이 '고려·참여형'보다 높았으나, 2025년 '고려·참여형'이 15.1%p 높게 나타나 참여 구조가 변화함

□ 의료관광 고려율과 참여율은 의료관광에 대한 관심과 실제 참여 수준을 보여주나, 방한 전 계획이 실제 참여로 얼마나 이어지는지, 참여자가 어떤 경로로 의료관광을 선택하는지는 보여주지 못함

○ 고려율과 참여율이 비슷하게 높더라도, 사전에 계획한 수요가 그대로 실행된 시장과 방한 후 현지에서 새롭게 참여한 수요가 많은 시장은 의료관광의 성격과 필요한 정책 접근이 서로 다름

○ 이에 참여경로 유형을 바탕으로 의료관광 전환율, 의료관광 계획형 비중, 현지 추가 참여율의 세 가지 지표를 산출하여 국가별 의료관광 참여 구조를 살펴봄

- (의료관광 전환율) 방한 전 의료관광을 고려한 관광객 가운데 실제로 참여한 비율로, 사전 고려가 실제 참여로 얼마나 이어졌는지를 보여줌
- (의료관광 계획형 비중) 의료관광 참여자 가운데 방한 전부터 의료관광을 고려했던 관광객의 비율로, 높을수록 사전에 계획하고 방문하는 수요가, 낮을수록 방한 후 현지에서 참여를 결정하는 수요가 많음을 의미함
- (현지 추가 참여율) 방한 전 의료관광을 고려하지 않은 관광객 가운데 방한 후 참여한 비율로, 사전 계획 없이 현지에서 새롭게 발생한 의료관광 수요의 규모를 보여줌

〈표 56〉 주요 국가별 의료관광 유형별 비율

(단위 : %)

구분		고려·참여형	고려·미참여형	비고려·참여형	비고려·미참여형	구분		고려·참여형	고려·미참여형	비고려·참여형	비고려·미참여형
중국	23년	9.1	6.7	4.3	79.9	몽골	23년	13.0	4.8	5.9	76.3
	24년	12.4	4.1	5.3	78.2		24년	24.9	5.2	7.5	62.4
	25년	12.6	5.2	5.1	77.1		25년	39.8	6.9	11.1	42.1
일본	23년	17.8	5.3	3.9	73.0	싱가포르	23년	5.6	4.6	5.6	84.3
	24년	24.0	4.1	5.1	66.9		24년	7.5	7.2	8.8	76.4
	25년	21.9	5.8	4.2	68.1		25년	10.8	4.1	9.8	75.3
미국	23년	5.2	3.2	10.6	80.9	인도네시아	23년	4.3	6.4	6.8	82.5
	24년	7.3	4.0	10.1	78.6		24년	3.8	4.0	6.0	86.2
	25년	9.5	5.6	8.5	76.3		25년	9.8	4.1	13.0	73.1
대만	23년	3.7	3.4	4.0	88.9	말레이시아	23년	4.2	5.3	8.0	82.5
	24년	5.5	3.2	4.7	86.6		24년	8.3	5.2	11.5	75.0
	25년	6.3	3.5	4.9	85.3		25년	10.5	6.3	11.2	72.1
태국	23년	11.3	4.0	6.5	78.2	캐나다	23년	6.6	3.1	6.8	83.6
	24년	17.4	2.5	4.5	75.6		24년	9.6	8.2	11.4	70.8
	25년	11.2	0.7	8.4	79.7		25년	11.3	4.1	13.1	71.5
베트남	23년	4.9	3.5	8.5	83.2	호주	23년	5.4	4.6	14.9	75.1
	24년	5.8	3.0	6.3	84.8		24년	7.3	5.1	9.8	77.9
	25년	9.1	2.6	8.6	79.7		25년	7.4	3.2	9.6	79.8
중동	23년	10.6	3.7	8.5	77.2	러시아	23년	2.7	2.1	10.8	84.5
	24년	13.1	4.1	10.8	72.1		24년	7.1	2.1	9.2	81.5
	25년	29.7	3.8	9.8	56.7		25년	20.6	4.4	5.5	69.5

자료: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관광연구원「외래관광객조사」원자료를 바탕으로 연구진 재구성

□ 의료관광 고려자의 실제 참여 전환율은 2023년 65.8%에서 2025년 73.3%로 높아졌으며, 참여자 중 계획형 비중도 상승하여 사전 고려를 동반한 참여가 의료관광 확대를 이끎

○ 의료관광 전환율은 2023년 65.8%에서 2024년 76.3%로 상승한 후, 2025년 73.3%로 낮아졌으나 2023년 대비 7.5%p 높은 수준을 유지하며 2025년 방한 전 의료관광을 고려한 관광객 약 4명 중 3명이 실제 의료관광에 참여함

○ 의료관광 계획형 비중은 2023년 61.4%에서 2024년 66.8%, 2025년 67.7%로 지속적으로 상승하며 의료관광 참여자 3명 중 2명이 방한 전부터 의료관광을 고려한 관광객으로 나타남

○ 현지 추가 참여율은 2023년 6.7%에서 2024년 7.7%로 상승한 후, 2025년에도 같은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사전에 의료관광을 고려하지 않은 외래관광객 중 약 8%가 실제로 의료관광에 참여

하여 추가 참여 수요가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의료관광 참여 확대가 사전 계획 수요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가운데, 방한 후 현지에서 발생하는 수요도 일정 규모로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줌

□ 국가별로 일본·중국은 사전 계획 중심, 몽골·중동은 계획 참여와 현지 참여가 함께 확대되는 구조이며, 러시아·미국은 계획형 비중이 빠르게 높아지고, 인도네시아·캐나다·말레이시아는 현지 참여의 비중이 큰 구조로 나타남

○ (일본·중국) 계획형 비중이 높고 현지 추가 참여율은 낮아, 의료관광 참여가 대부분 방한 전 의사결정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시장으로 나타남

- 일본의 계획형 비중은 2023년 82.0%에서 2024년 82.5%, 2025년 83.9%로 분석 국가 중 가장 높으며, 현지 추가 참여율은 2025년 5.8%로 전체(7.7%)보다 낮음
- 중국의 계획형 비중도 2023년 67.9%에서 2025년 71.2%로 상승하였으며, 현지 추가 참여율은 같은 기간 5.1%, 6.3%, 6.2%로 낮은 수준을 유지함
- 다만 전환율은 일본이 2024년 85.4%에서 2025년 79.1%로, 중국이 75.2%에서 70.8%로 낮아져, 사전에 의료관광을 고려하였으나 실제 참여로 이어지지 않은 수요가 늘어남

○ (대만) 전환율과 계획형 비중이 점진적으로 높아졌으나, 현지 추가 참여율은 분석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임

- 대만의 전환율은 2023년 52.1%에서 2024년 63.2%, 2025년 64.3%로, 계획형 비중은 48.1%에서 53.9%, 56.3%로 상승하여 사전 고려를 동반한 참여의 비중이 높아짐
- 현지 추가 참여율은 2023년 4.3%에서 2025년 5.4%로 소폭 상승하였으나, 사전에 고려하지 않은 관광객의 현지 참여는 여전히 제한적으로 나타남

○ (인도네시아·캐나다·말레이시아) 계획형 비중이 절반 미만이고 현지 추가 참여율이 높아, 방한 후 현지에서 의료관광 참여를 결정하는 수요가 큰 시장으로 나타남

- 인도네시아의 전환율은 2023년 40.2%에서 2025년 70.5%로 크게 상승하였으나 계획형 비중은 38.7%에서 43.0%로 절반에 못 미치며, 2025년 현지 추가 참여율은 15.1%로 전체의 약 2배에 이름
- 캐나다의 현지 추가 참여율은 2023년 7.5%에서 2024년 13.9%, 2025년 15.5%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2025년 계획형 비중은 46.3%로 나타남
- 말레이시아의 전환율은 2023년 44.2%에서 2025년 62.5%로, 계획형 비중은 34.4%에서 48.4%로 증가하였으며, 현지 추가 참여율도 8.8%에서 13.4%로 높아져 사전 고려자의 실행과 현지 참여가 함께 확대됨

○ (싱가포르·베트남·태국·호주) 전환율은 높아졌으나, 계획형 비중과 현지 추가 참여율의 변화는 국가별로 다르게 나타남

- 싱가포르의 전환율은 2024년 51.0%에서 2025년 72.5%로, 계획형 비중은 46.0%에서

52.4%로 상승하였으며, 현지 추가 참여율도 2023년 6.2%에서 2025년 11.5%로 높아져 계획형 참여와 현지 참여가 함께 확대됨

- 베트남의 의료관광 전환율은 2023년 58.3%에서 2025년 77.8%로, 계획형 비중은 36.6%에서 51.4%로 증가한 반면, 현지 추가 참여율은 9.3%에서 9.7%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여 최근 변화는 계획형 참여의 확대가 이끎
- 태국의 전환율은 2023년 73.9%에서 2025년 94.1%로 분석 국가 중 가장 높아 사전 고려자의 대부분이 실제로 참여하였으나, 계획형 비중은 2024년 79.5%에서 2025년 57.1%로 22.4%p 하락하고 현지 추가 참여율은 5.6%에서 9.5%로 상승하여, 실제 참여자 중 사전 비고려자의 비중이 높아짐
- 호주의 전환율은 2023년 54.0%에서 2025년 69.8%로, 계획형 비중은 26.6%에서 43.5%로 증가한 반면, 현지 추가 참여율은 16.6%에서 10.7%로 하락하여 계획형 참여의 비중이 높아지는 방향으로 변화함

○ **(러시아·미국) 계획형 비중이 빠르게 높아지며, 현지 참여 중심에서 사전 계획 중심으로 참여 구조가 변화함**

- 러시아의 전환율은 2023년 56.2%에서 2025년 82.4%로 26.2%p, 계획형 비중은 20.0%에서 78.9%로 58.9%p 증가한 반면, 현지 추가 참여율은 11.3%에서 7.3%로 하락하여 참여 구조가 가장 크게 변화함
- 미국의 전환율은 2023년 61.9%, 2024년 64.6%, 2025년 62.9%로 큰 변화가 없었으나, 계획형 비중이 32.9%에서 52.8%로 19.9%p 상승하여 2025년에는 실제 참여자의 절반 이상이 사전 고려자로 나타남
- 미국의 현지 추가 참여율은 같은 기간 11.6%에서 10.0%로 하락하였으나, 전체 수준보다는 높게 유지되어 현지 참여 수요도 일정 규모로 존재함

○ **(몽골·중동) 전환율과 계획형 비중, 현지 추가 참여율이 모두 상승하여, 사전 계획 수요와 현지 참여 수요가 함께 확대되는 고관여 시장으로 나타남**

- 몽골의 전환율은 2023년 73.0%에서 2025년 85.2%로, 계획형 비중은 68.8%에서 78.2%로 증가하였으며, 현지 추가 참여율도 7.2%에서 20.9%로 13.7%p 높아져 분석 국가 중 가장 높게 나타남
- 2025년 몽골은 사전에 의료관광을 고려하지 않은 관광객의 약 5명 중 1명이 실제로 참여하여, 높은 계획형 비중과 활발한 현지 참여가 함께 나타남
- 중동의 전환율은 2023년 74.1%에서 2025년 88.7%로, 계획형 비중은 2024년 54.8%에서 2025년 75.2%로 20.4%p 증가하였으며, 현지 추가 참여율도 2023년 9.9%에서 2025년 14.7%로 지속적으로 높아짐

○ **종합하면, 의료관광 참여 구조는 전환율의 높낮이보다 계획형 비중과 현지 추가 참여율의 조합에 따라 국가별로 뚜렷하게 구분됨**

〈표 57〉 주요 국가별 의료관광 전환율 및 참여경로

(단위 : %)

구분		의료관광 전환율	의료관광 계획형 비중	현지 추가 참여율	구분		의료관광 전환율	의료관광 계획형 비중	현지 추가 참여율
전체	23년	65.8	61.4	6.7	몽골	23년	73.0	68.8	7.2
	24년	76.3	66.8	7.7		24년	82.7	76.9	10.7
	25년	73.3	67.7	7.7		25년	85.2	78.2	20.9
중국	23년	57.6	67.9	5.1	싱가포르	23년	54.9	50.0	6.2
	24년	75.2	70.1	6.3		24년	51.0	46.0	10.3
	25년	70.8	71.2	6.2		25년	72.5	52.4	11.5
일본	23년	77.1	82.0	5.1	인도네시아	23년	40.2	38.7	7.6
	24년	85.4	82.5	7.1		24년	48.7	38.8	6.5
	25년	79.1	83.9	5.8		25년	70.5	43.0	15.1
미국	23년	61.9	32.9	11.6	말레이시아	23년	44.2	34.4	8.8
	24년	64.6	42.0	11.4		24년	61.5	41.9	13.3
	25년	62.9	52.8	10.0		25년	62.5	48.4	13.4
대만	23년	52.1	48.1	4.3	캐나다	23년	68.0	49.3	7.5
	24년	63.2	53.9	5.1		24년	53.9	45.7	13.9
	25년	64.3	56.3	5.4		25년	73.4	46.3	15.5
태국	23년	73.9	63.5	7.7	호주	23년	54.0	26.6	16.6
	24년	87.4	79.5	5.6		24년	58.9	42.7	11.2
	25년	94.1	57.1	9.5		25년	69.8	43.5	10.7
베트남	23년	58.3	36.6	9.3	러시아	23년	56.2	20.0	11.3
	24년	65.9	47.9	6.9		24년	77.2	43.6	10.1
	25년	77.8	51.4	9.7		25년	82.4	78.9	7.3
중동	23년	74.1	55.5	9.9					
	24년	76.2	54.8	13.0					
	25년	88.7	75.2	14.7					

주1) 의료관광 전환율은 방한 전 의료관광을 고려한 외래관광객 가운데 실제로 의료관광에 참여한 관광객의 비율로, 사전 고려가 실제 경험으로 얼마나 이어졌는지를 나타냄

주2) 의료관광 계획형 비중은 의료관광에 참여한 외래관광객 가운데 방한 전부터 의료관광을 고려했던 외래관광객의 비율로 비중이 높을수록 사전에 계획하고 방문하는 수요가 많고, 낮을수록 방한 후 현지에서 참여를 결정하는 수요가 많음을 의미함

주3) 현지 추가 참여율은 방한 전 의료관광을 고려하지 않은 외래관광객 가운데, 방한 후 의료관광에 참여한 외래관광객 비율로, 사전 계획 없이 현지에서 새롭게 발생한 의료관광 수요의 규모를 나타냄

자료: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관광연구원「외래관광객조사」원자료를 바탕으로 연구진 재구성

□ 의료관광 참여자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비참여자와 비슷한 체류기간과 관광활동 수를 보이면서도 지출 수준은 뚜렷하게 높았으며, 국가별로는 단기 집중소비, 고관여 의료목적, 체류형 복합관광, 장기체류·저지출의 특성으로 구분됨

○ 의료관광 참여 외래관광객은 체류기간이나 관광활동 수보다 지출 수준에서 비참여자와 뚜렷하게 구분되며, 2025년 1인 평균 지출경비는 베트남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비참여자의 1.3~2.0배로 나타남

- 2025년 의료관광 참여자의 1인 평균 지출경비는 중동(2,914.61달러)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러시아(2,452.53달러), 싱가포르(2,307.45달러), 중국(2,189.61달러) 순으로 나타남
- 비참여자 대비 참여자의 1인 평균 지출경비 배율은 몽골(2.00배), 중동(1.93배), 중국(1.83배), 러시아(1.78배) 순으로 높음

○ (중국·일본·대만) 비참여자와 비슷하거나 짧은 기간 체류하면서 더 높은 지출을 하는 단기 집중소비형 특성을 보임

- 중국의 의료관광 참여자는 2025년 평균 체류기간 5.8일, 의료관광 외 관광활동 수 3.2개로 비참여자(5.6일, 3.2개)와 유사하나, 1인 평균 지출경비는 2,189.61달러로 비참여자의 약 1.83배이며, 1인 1일 지출경비는 438.69달러로 분석 국가 중 가장 높게 나타남
- 일본 참여자의 체류기간은 3.7일로 비참여자와 같고 관광활동 수는 3.1개로 비참여자(3.3개)보다 적으나, 1인 평균 지출경비(1,165.53달러)와 1인 1일 지출경비(321.87달러)는 비참여자보다 각각 약 1.50배, 1.47배 높음
- 대만 참여자도 체류기간(5.9일)은 비참여자(5.2일)보다 다소 길지만 관광활동 수는 3.8개로 비참여자(3.9개)와 비슷한 가운데, 1인 평균 지출경비는 1,669.47달러로 비참여자의 약 1.46배이며, 1인 평균·1일 평균 지출경비가 2023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관광활동의 확대 없이 소비 수준이 높아지는 특징을 보임

○ (미국·싱가포르·태국·인도네시아·캐나다·호주) 의료관광 참여자는 비참여자보다 오래 체류하고 1인 평균 지출경비가 높았으며, 의료관광 외 관광활동 수는 비참여자와 비슷하거나 다소 많아 체류형 복합관광의 특성을 보임

- 미국 의료관광 참여자는 2025년 평균 9.4일 체류하며 관광활동 4.9개에 참여하여 비참여자(8.7일, 4.7개)를 상회하였으며, 1인 평균 지출경비는 1,976.60달러로 비참여자의 약 1.41배로 나타남
- 싱가포르 의료관광 참여자(7.7일, 4.2개)와 태국 의료관광 참여자(7.1일, 4.3개)도 비참여자(싱가포르 7.1일, 3.8개, 태국 5.7일, 4.1개)보다 체류기간과 활동 수가 많고, 1인 평균 지출경비는 각각 비참여자의 약 1.56배로 나타남
- 인도네시아 의료관광 참여자의 평균 체류기간은 8.3일로 비참여자(7.0일)보다 길고 관광활동 수는 5.0개로 많으며, 1인 평균 지출경비는 1,884.80달러로 비참여자의 약 1.41배임
- 캐나다 의료관광 참여자의 평균 체류기간은 11.5일로 비참여자(9.2일)보다 2.3일 길었으며, 의료관광 외 관광활동 수는 4.7개로 비참여자(4.5개)와 비슷하나, 1인 평균 지출경비는 2,417.37달러로 비참여자의 약 1.73배로 높게 나타남

- 호주 참여자도 평균 체류기간 9.9일, 관광활동 수 5.2개로 비참여자(9.0일, 4.9개)를 상회하며, 1인 평균 지출경비는 1,927.79달러로 비참여자의 약 1.33배임
- 이들 국가의 참여자는 의료관광만을 위한 방문보다 다른 관광활동과 함께 의료관광을 이용하는 복합적인 여행행태를 보임

○ **(말레이시아) 비참여자보다 짧게 체류하면서도 더 많은 관광활동과 높은 지출을 보임**
- 말레이시아 참여자는 2025년 평균 5.9일 체류하여 비참여자(6.5일)보다 짧지만, 관광활동 수는 4.8개로 비참여자(4.4개)보다 많고 1인 1일 지출경비도 301.81달러로 비참여자(207.17달러)의 약 1.46배 높게 나타남

○ **(베트남) 의료관광 참여자는 장기간 체류하며 다양한 활동을 하지만, 지출 수준은 비참여자와 비슷하거나 낮은 예외적인 특성을 보임**
- 베트남 의료관광 참여자는 2025년 평균 9.4일 체류하며 관광활동 5.1개에 참여하여 비참여자(5.9일, 4.6개)보다 크게 높음
- 그러나 1인 평균 지출경비는 1,163.02달러로 비참여자(1,140.74달러)와 비슷하며, 1인 1일 지출경비는 193.47달러로 비참여자(241.23달러)보다 낮아, 긴 체류와 폭넓은 관광활동이 소비 증가로 이어지지 않음

○ **(몽골·중동·러시아) 체류기간과 관광활동 수는 비참여자와 비슷하거나 적으나, 지출 수준이 비참여자의 약 2배에 이르는 고관여 의료목적형 특성을 보임**
- 몽골의 의료관광 참여자는 평균 체류기간(9.5일)과 관광활동 수(3.8개)가 비참여자(9.3일, 4.0개)와 비슷하나, 1인 평균 지출경비는 2,011.27달러로 비참여자(1,006.05달러)의 약 2.0배이며, 1인 1일 지출경비도 263.35달러로 비참여자(143.60달러)보다 높음
- 중동 참여자의 평균 체류기간은 9.8일로 비참여자(9.3일)와 비슷하고 관광활동 수(4.2개)는 비참여자(4.9개)보다 오히려 적으나, 1인 평균 지출경비는 2,914.61달러로 비참여자의 약 1.93배로 분석 국가 중 가장 높게 나타남
- 러시아 참여자의 평균 체류기간은 8.5일, 관광활동 수는 4.4개로 비참여자(9.4일, 5.0개)보다 짧고 적지만, 1인 평균 지출경비는 2,452.53달러로 비참여자의 약 1.78배이며, 참여자의 체류기간은 2023년 18.3일에서 2025년 8.5일로 크게 줄어 짧은 체류 속 소비가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남

〈표 58〉 주요 국가별 의료관광 참여여부에 따른 관광행태

구분		의료관광 참여				의료관광 비참여			
		평균 체재 기간(일)	의료관광 외 관광활동 수(개)	1인 평균 지출경비 (US$)	1인 1일 평균 지출 경비 (US$)	.평균 체재 기간(일)	의료관광 외 관광활동 수(개)	1인 평균 지출경비 (US$)	1인 1일 평균 지출 경비 (US$)
중국	2023년	7.8	2.6	2888.59	410.38	7.2	3.1	1496.14	261.34
	2024년	6.2	3.2	2431.89	455.50	5.9	3.3	1251.26	250.04
	2025년	5.8	3.2	2189.61	438.69	5.6	3.2	1198.88	249.40
일본	2023년	4.2	2.6	1024.64	260.82	3.8	3.1	724.20	203.08
	2024년	3.8	3.2	1048.96	291.65	3.7	3.4	740.98	215.25
	2025년	3.7	3.1	1165.53	321.87	3.7	3.3	777.39	218.92
미국	2023년	11.4	4.9	2043.89	206.80	10.1	4.5	1676.85	190.24
	2024년	9.6	4.9	1938.22	221.41	9.3	4.7	1426.78	191.20
	2025년	9.4	4.9	1976.60	240.33	8.7	4.7	1400.35	183.54
대만	2023년	5.7	3.6	1428.55	256.85	5.5	3.7	1205.70	229.39
	2024년	5.2	3.5	1546.55	312.74	5.3	3.8	1209.38	236.24
	2025년	5.9	3.8	1669.47	327.21	5.2	3.9	1139.98	225.85
태국	2023년	7.2	3.1	1748.58	263.62	7.6	3.6	1148.11	197.07
	2024년	7.0	3.6	1746.89	325.93	5.6	3.4	914.46	194.06
	2025년	7.1	4.3	1614.06	296.66	5.7	4.1	1033.92	213.61
베트남	2023년	10.7	3.7	1418.52	193.96	9.0	3.5	1090.32	176.99
	2024년	8.9	4.9	1444.42	213.87	7.8	3.8	1264.08	217.70
	2025년	9.4	5.1	1163.02	193.47	5.9	4.6	1140.74	241.23
중동	2023년	10.4	4.4	2782.22	324.46	11.7	4.4	2115.71	242.45
	2024년	11.2	4.6	2897.95	318.94	9.9	4.7	1727.82	237.56
	2025년	9.8	4.2	2914.61	376.14	9.3	4.9	1510.94	197.06
몽골	2023년	13.7	2.9	3258.65	321.71	13.9	2.9	3122.02	335.63
	2024년	9.9	4.6	2062.08	285.45	12.1	4.1	2000.50	225.01
	2025년	9.5	3.8	2011.27	263.35	9.3	4.0	1006.05	143.60
싱가포르	2023년	8.0	4.6	2250.76	301.54	8.3	4.3	1667.64	212.96
	2024년	8.1	4.6	2145.06	290.35	7.8	4.2	1497.47	203.49
	2025년	7.7	4.2	2307.45	317.04	7.1	3.8	1482.03	221.72
인도네시아	2023년	8.9	4.7	2007.91	246.65	7.6	4.4	1750.49	264.63
	2024년	7.3	5.4	1991.96	298.65	6.7	5.6	1249.41	195.97
	2025년	8.3	5.0	1884.80	278.13	7.0	4.9	1334.82	222.78
말레이시아	2023년	6.8	5.4	1605.23	271.76	7.1	4.6	1342.82	205.34
	2024년	6.7	4.8	1492.65	247.45	6.7	4.6	1320.90	220.83
	2025년	5.9	4.8	1710.52	301.81	6.5	4.4	1221.28	207.17
캐나다	2023년	17.7	5.9	2079.02	134.91	11.7	4.7	1350.34	140.53
	2024년	12.6	4.6	1724.56	181.95	9.9	4.7	1585.45	190.39
	2025년	11.5	4.7	2,417.37	252.17	9.2	4.5	1394.92	191.07

구분		의료관광 참여				의료관광 비참여			
		평균 체재 기간(일)	의료관광 외 관광활동 수(개)	1인 평균 지출경비 (US$)	1인 1일 평균 지출 경비 (US$)	.평균 체재 기간(일)	의료관광 외 관광활동 수(개)	1인 평균 지출경비 (US$)	1인 1일 평균 지출 경비 (US$)
호주	2023년	14.2	5.2	2076.06	198.54	10.6	5.1	1826.72	196.15
	2024년	11.9	4.9	2198.32	209.00	9.8	5.0	1490.65	172.56
	2025년	9.9	5.2	1927.79	207.74	9.0	4.9	1449.81	171.98
러시아	2023년	18.3	5.7	2160.94	134.98	15.5	4.9	1761.30	163.71
	2024년	14.6	5.3	2362.80	194.53	11.0	4.8	1679.29	189.57
	2025년	8.5	4.4	2452.53	303.29	9.4	5.0	1379.99	181.32

주1) 1인 평균 지출경비와 1인 1일 평균 지출경비는 국제교통비를 제외한 지출경비이며, 의료비를 포함한 여행 전체의 지출을 의미함

주2) 평균체재기간은 61일이상 체류자를 제외하고 산출함

주3) 지출경비는 전체 사례수를 기준으로 상위 1%, 하위 1%를 가장 가까운 값으로 대체하였으며, 1일 평균 지출경비 산출시 체재기간 61일 이상 체류자를 제외함

자료: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관광연구원「외래관광객조사」원자료를 바탕으로 연구진 재구성

□ (소결) 관광목적 방한객의 의료관광은 사전 고려를 동반한 참여를 중심으로 확대되었으며, 의료관광 참여자는 비참여자와 비슷한 체류기간과 관광활동 속에서 더 높은 지출을 보이는 가운데, 국가별 참여 수준과 경로, 관광행태는 뚜렷하게 다르게 나타남

○ (수요확대) 의료관광에 대한 사전 고려와 실제 참여가 함께 증가하며, 뷰티·미용의 높은 수요가 유지되는 가운데 치료·건강검진에 대한 확대도 확인됨

- 의료관광 고려율은 2023년 14.1%에서 2025년 18.0%로, 참여율은 15.0%에서 19.5%로 증가하여 관광목적 방한객 약 5명 중 1명이 의료관광에 참여함
- 뷰티·미용 참여율은 2023년 12.0%에서 2024년 14.8%로 증가한 후 2025년 14.0%로 소폭 하락한 반면, 치료·건강검진 참여율은 4.2%에서 6.1%, 7.3%로 지속적으로 상승함

○ (참여구조) 의료관광 참여 확대는 사전에 고려하고 실제 참여한 수요의 확대를 중심으로 나타남

- '고려·참여형'은 2023년 9.2%에서 2025년 13.2%로 4.0%p 상승한 반면, '비고려·참여형'은 5.8%에서 6.3%로 비교적 일정한 수준을 유지함
- 의료관광 전환율은 65.8%에서 73.3%로, 계획형 비중은 61.4%에서 67.7%로 증가하여, 방한 전 고려가 실제 참여로 이어지는 비율과 참여자 중 사전 고려자의 비중이 모두 높아짐
- 현지 추가 참여율도 6.7%에서 7.7%로 높아져, 사전 계획 없이 방한 후 참여하는 수요도 일정 규모로 유지됨

○ (관광행태) 의료관광 참여자는 체류기간과 관광활동 수보다 지출 수준에서 비참여자와 뚜렷하게 구분됨

- 2025년 '고려·참여형'은 평균 5.7일 체류하고 의료관광 외 활동에 3.4개 참여하여 전체 평균

(6.1일, 3.8개)보다 낮았으나, 국제교통비를 제외한 1인 평균 지출경비(1,834.2달러)와 1인 1일 평균 지출경비(366.9달러)는 네 집단 중 가장 높음

- '비고려·참여형'은 체류기간 7.5일, 활동 수 4.4개로 네 집단 중 가장 길고 많았으며, 1인 평균 지출경비도 1,599.4달러로 전체 평균(1,276.7달러)을 상회함
- 국가별로도 2025년 참여자의 1인 평균 지출경비는 베트남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비참여자의 1.3~2.0배였으나, 다수 국가에서 체류기간과 관광활동 수의 차이는 크지 않아, 의료관광 참여자의 높은 지출은 체류 연장이나 관광활동의 확대보다 동일한 체류기간 내 소비의 집중을 통해 나타남

○ **(국가별 참여 수준) 의료관광 참여율과 주요 참여 활동은 국가별로 큰 차이를 보임**

- 2025년 의료관광 참여율은 몽골(51.0%)과 중동(39.5%)이 가장 높았으며, 러시아(26.1%), 일본(26.0%), 캐나다(24.4%)가 뒤를 이은 반면, 대만(11.3%)은 분석 국가 중 가장 낮고 중국(17.7%)도 전체 평균(19.5%)보다 낮음
- 뷰티·미용 참여율은 몽골(35.9%), 중동(24.0%), 일본(21.2%) 순으로 높았으며, 치료·건강검진 참여율은 몽골(21.5%), 중동(18.8%), 태국(10.8%), 중국(9.9%)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중국과 태국은 치료·건강검진 참여율이 뷰티·미용과 비슷한 수준으로, 뷰티·미용 중심의 다른 시장과 구분됨

○ **(국가별 참여 경로) 계획형 비중과 현지 추가 참여율의 조합에 따라 국가별 참여 구조가 구분됨**

- 일본(계획형 비중 83.9%)과 중국(71.2%)은 현지 추가 참여율이 각각 5.8%, 6.2%로 낮아, 의료관광 참여가 대부분 방한 전 의사결정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계획형 시장임
- 몽골은 계획형 비중(78.2%)과 현지 추가 참여율(20.9%)이 모두 분석 국가 중 최고 수준이며, 중동도 계획형 비중(75.2%)과 현지 추가 참여율(14.7%)이 함께 높아, 사전 계획과 현지 참여가 모두 활발한 고관여 시장임
- 러시아(20.0% → 78.9%)와 미국(32.9% → 52.8%)은 계획형 비중이 크게 높아져 현지 참여 중심에서 사전 계획 중심으로 참여 구조가 바뀌었으며, 러시아는 분석 국가 중 변화 폭이 가장 큼
- 인도네시아(계획형 비중 43.0%, 현지 추가 참여율 15.1%), 캐나다(46.3%, 15.5%), 말레이시아(48.4%, 13.4%)는 참여자의 절반 이상이 사전 비고려자로, 방한 후 현지에서 의료관광을 결정하는 수요가 큼
- 태국은 전환율이 94.1%로 분석 국가 중 가장 높으나 계획형 비중은 2024년 79.5%에서 2025년 57.1%로 낮아져, 전환율이 높아지더라도 실제 참여자의 구성은 현지 참여 쪽으로 이동할 수 있음을 보여줌

○ **(국가별 관광행태) 의료관광 참여자의 체류·활동·지출 특성은 네 가지 양상으로 구분됨**

- (단기 집중소비) 중국·일본·대만은 참여자의 체류기간과 관광활동 수가 비참여자와 비슷하거나 적으나 지출이 높으며, 중국 참여자의 1인 1일 지출경비(438.69달러)는 분석 국가 중 가장 높고, 일본 참여자의 체류기간(3.7일)은 가장 짧음

- (고관여 의료목적) 몽골·중동·러시아는 참여자의 체류기간과 관광활동 수가 비참여자와 비슷하거나 적으나, 1인 평균 지출경비가 비참여자의 약 1.8~2.0배에 이르며, 중동 참여자의 1인 평균 지출경비(2,914.61달러)는 분석 국가 중 가장 높음
- (체류형 복합관광) 미국·싱가포르·태국·인도네시아·호주는 참여자가 비참여자보다 오래 체류하고 더 많은 관광활동에 참여하며, 의료관광이 다른 관광활동과 함께 이루어짐
- (장기체류·저지출) 베트남은 참여자의 체류기간(9.4일)과 관광활동 수(5.1개)가 비참여자(5.9일, 4.6개)보다 크게 높으나, 1인 1일 지출경비(193.47달러)는 비참여자(241.23달러)보다 낮아, 의료관광 참여가 지출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 유일한 시장임

○ **피부·미용 중심의 성장은 세 자료에서 일관되게 나타나나, 시장의 규모와 방한객의 참여 성향은 국가별로 다르게 나타남**

- 외국인환자 유치실적에서는 2023년 이후 피부과 환자가 시장 성장을 주도하였으며, 의료소비에서도 피부과와 성형외과를 중심으로 소비금액이 빠르게 증가하였고, 외래관광객조사에서도 뷰티·미용의 고려율과 참여율이 의료관광 활동 중 가장 높게 나타남
- 특히 뷰티·미용은 의료기관 이용에 국한된 전통적인 치료 목적의 의료관광과 달리, 쇼핑·미식·한류 등 일반 관광활동과 함께 비교적 쉽게 선택할 수 있는 관광경험으로 확장될 수 있어, 한국의 피부·미용 서비스가 의료서비스이자 방한 관광의 주요 콘텐츠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줌
- 한편 외국인환자 유치실적과 의료소비는 시장의 절대 규모를, 외래관광객조사의 참여율은 방한객 중 의료관광을 선택하는 비율, 즉 수요의 침투율을 보여주는 지표로 구분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음
- 중국과 대만은 환자 수와 의료소비 규모가 큰 핵심시장이나 관광목적 방한객의 의료관광 참여율은 전체보다 낮으며, 특히 대만은 '비고려·미참여형'이 85.3%로 분석 국가 중 가장 높아, 소수 고관여층 중심의 수요를 일반 방한객으로 확산할 여지가 큰 시장임
- 반면 몽골과 중동은 환자 수와 의료소비 규모는 작으나 참여율과 참여자의 지출 수준이 최상위권으로, 시장 규모에 비해 방한객 1인당 지출 측면의 가치가 큰 시장임
- 미국은 유치실적과 의료소비에서 치료 관련 비중이 핵심시장 중 가장 높으나, 관광목적 방한객의 치료·건강검진 참여율은 5.0%로 전체(7.3%)보다 낮아, 치료 목적 이용이 관광목적 방한객보다 의료 목적 방한객 중심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을 시사함
- 호주는 외국인환자 수가 2년간 약 3.0배 늘었으나 관광목적 방한객의 의료관광 참여율은 20.3%에서 17.0%로 낮아져, 환자 수의 확대를 관광객 전반의 참여 확산으로 해석하기 어려움

○ **외래관광객조사의 의료관광 참여 경로와 관광행태를 기준으로 국가별 시장을 유형화한 결과는 〈표 59〉와 같음**

〈표 59〉 외래관광객조사로 본 국가별 시장 유형 및 주요 특징

국가	유형	핵심 특징
중국	(계획형) 고밀도 지출형	- 계획형 참여가 중심이며 계획형 비중이 지속적으로 상승함 - 1인 1일 지출이 주요 국가 중 가장 높음 - 치료·건강검진 참여가 뷰티·미용과 비슷한 수준임
일본	(계획형) 단기 집중소비형	- 의료관광 계획형 비중이 가장 높은 사전 계획 중심 시장임 - 가장 짧은 체류 속에 높은 1일 지출이 이루어짐 - 뷰티·미용 참여가 중심이나 치료·건강검진 참여도 증가함
대만	(계획형 확대) 저침투·고지출 성장형	- 방한객 대비 의료관광 참여율이 주요 시장 중 가장 낮음 - 참여자의 지출과 비참여자와의 지출 격차가 빠르게 확대됨 - 소수의 고관여층을 중심으로 성장하는 구조임
미국	(현지형→계획형) 장기체류 복합관광형	- 현지 결정형 시장이었으나 계획형 비중이 빠르게 상승함 - 긴 체류 속에 다양한 관광활동과 의료관광을 함께 수행함 - 치료·건강검진 참여는 상대적으로 낮음
태국	(고전환) 목적형 참여·현지수요 확대형	- 고려자의 대부분이 실제 참여로 이어져 전환율이 가장 높음 - 최근 계획형 비중은 낮아지고 현지 추가 참여가 늘어남 - 치료·건강검진 참여가 뷰티·미용과 비슷한 수준임
싱가포르	(혼합형) 복합관광 고지출형	- 계획형 참여와 현지 추가 참여가 함께 확대됨 - 다양한 관광활동과 함께 높은 지출이 나타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현지형) 현지참여 확산형	- 참여자의 절반 이상이 사전 비고려자임 - 방한 후 현지에서 의료관광 참여가 활발히 발생함
캐나다·호주	(현지형) 장거리 복합관광형	- 계획형 비중이 절반 미만인 현지 결정형 시장임 - 긴 체류 속에 다양한 관광활동과 함께 의료관광에 참여함
몽골	(고관여) 의료관광 핵심목적형	- 방한객의 절반 이상이 의료관광에 참여함 - 뷰티·미용과 치료·건강검진 참여가 모두 가장 높음 - 참여자와 비참여자의 지출 격차가 가장 큼
베트남	(현지형) 장기체류·저지출형	- 의료관광 참여자의 체류가 길고 관광활동이 다양함 - 의료관광 참여가 지출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 예외적 시장임
중동	(고관여) 계획형 전환·최고지출형	- 현지 참여에서 사전 계획형 참여로 빠르게 전환됨 - 치료·건강검진 고려율이 높음 - 참여자의 1인 지출이 가장 높음
러시아	(계획형 전환) 단기 목적방문 전환형	- 계획형 비중이 가장 크게 상승하며 참여 구조가 바뀜 - 체류기간이 크게 줄고 1일 지출이 높아짐 - 장기 체류 중 부수적 참여에서 의료 목적 방문으로 전환됨

자료: 연구진 작성

6. 국가별 의료관광 시장의 종합 분석

□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의료소비, 외래관광객의 의료관광 참여행태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한국 의료관광시장은 피부·미용 중심의 성장이라는 공통적인 특징을 보이지만, 국가별 시장 규모와 소비 강도, 의료수요 및 관광 연계 특성에서 뚜렷한 차이가 나타남

○ (시장 성장구조) 외국인환자와 의료소비의 확대가 모두 피부·미용 분야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국가별 시장 규모와 경제적 기여도는 반드시 일치하지 않음

- 외국인환자 수는 2023년 60만 6천 명에서 2025년 201만 2천 명으로 약 3.3배 증가하였으며, 증가분의 84.5%가 중국·일본·대만·미국에서 발생하는 등 핵심 4개국에 성장이 집중됨
- 같은 기간 의료 소비금액도 약 3.0배 증가하였으며, 2025년 피부과·성형외과가 약국을 제외한 의료기관 소비금액의 84.6%를 차지하여 환자 유치와 의료소비 모두 피부·미용 중심의 성장 구조를 보임
- 그러나 국가별로는 외국인환자 규모와 의료소비 규모, 건당 소비금액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 환자 수만으로 시장의 가치를 판단하기 어려움
- 특히 미국은 외국인환자 규모에서 4위이지만 의료 소비금액은 3,794억 원으로 가장 컸으며, 대만은 환자 수가 중국의 약 30% 수준임에도 의료 소비금액은 중국을 상회함
- 몽골(환자 1.6배, 소비 2.1배)과 카자흐스탄(환자 1.3배, 소비 1.6배)은 환자 수 기준으로는 저성장 시장이나 소비금액 증가가 환자 증가를 웃돌아, 지출 측면의 가치는 환자 수보다 크게 나타남

○ (진료수요와 소비구조) 피부·미용 분야가 시장 성장을 주도하는 가운데 치료·건강관리 수요도 확대되고 있으나, 의료수요의 증가가 실제 소비구조에 반영되는 양상은 국가별로 차이를 보임

- 외국인환자 유치실적에서는 피부과의 증가가 두드러지는 동시에 내과통합·검진센터 등 치료·건강관리 수요도 절대 규모가 확대되었으며, 외래관광객조사에서도 치료·건강검진 참여율이 2023년 4.2%에서 2025년 7.3%로 상승함
- 중국은 외국인환자 유치실적과 외래관광객조사에서 치료·건강검진 수요가 함께 확인되지만, 약국을 제외한 의료 소비금액의 94.8%가 피부과·성형외과에 집중되고 대학·종합병원 소비는 정체되어, 치료 수요와 실제 소비구조 사이에 차이가 나타남
- 반면 미국은 유치실적과 의료소비에서 치료 관련 비중이 핵심시장 중 가장 높으나, 관광목적 방한객의 치료·건강검진 참여율은 5.0%로 전체보다 낮아, 치료 목적의 이용이 관광목적 방한 외래관광객보다 의료 목적 방한객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음
- 몽골은 유치실적과 의료소비, 외래관광객조사 모두에서 치료·건강관리 수요가 뚜렷하게 나타나며, 카자흐스탄도 대학·종합병원이 의료기관 소비의 78.9%를 차지하는 치료 중심 시장임
- 이러한 차이는 의료관광시장을 피부·미용과 치료·건강관리로 단순히 구분하기보다, 국가별 진료수요와 실제 소비구조, 방한객의 참여 활동을 함께 고려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줌

○ **(의료관광 참여와 소비) 의료관광 참여자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비참여자보다 높은 지출 수준을 보였으나, 의료관광의 높은 소비가 체류기간 연장이나 일반 관광활동 확대로 반드시 이어지는 것은 아님**

- 2025년 의료관광 참여자의 1인 평균 지출경비는 베트남을 제외한 주요 국가에서 비참여자의 약 1.3~2.0배로 나타나 의료관광 참여 집단의 높은 지출 특성이 확인됨
- 그러나 일본·중국·대만 등 사전 계획형 참여가 많은 시장과 몽골·중동 등 고관여 시장은 참여자의 체류기간과 의료관광 외 관광활동 수가 비참여자와 비슷하거나 적은 가운데 지출만 높게 나타남
- 반면 미국·싱가포르·태국 등은 참여자가 비참여자보다 오래 체류하고 다양한 관광활동을 함께 하면서 높은 지출을 보여, 의료서비스 이용과 일반 관광이 결합되는 양상이 상대적으로 뚜렷함

○ **(참여경로) 의료관광에 대한 사전 고려와 실제 참여가 확대되는 가운데 국가별로 사전 계획형과 비고려 참여형의 구성에 차이가 나타나, 의료관광 수요를 확대할 수 있는 접근 시점도 서로 다름**

- 의료관광 참여자 중 방한 전 의료관광을 고려한 계획형 비중은 2023년 61.4%에서 2025년 67.7%로 상승하여 사전 고려를 동반한 의료관광 참여가 확대됨
- 일본(83.9%)·중국(71.2%)은 계획형 비중이 높고, 몽골·중동은 계획형 참여와 현지 추가 참여가 모두 활발한 반면,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캐나다·호주 등은 계획형 비중이 절반 미만으로 현지에서 참여를 결정하는 수요가 큼
- 이에 따라 일본·중국은 방한 전 의료서비스 정보 제공이,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캐나다·호주 등은 방한 중 의료서비스 이용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의료관광 참여에 더 중요하게 작용함

○ **(자료 간 일치와 차이) 세 자료를 함께 보면, 국가별로 시장의 성장 근거가 일관되게 확인되는 시장과 자료에 따라 위상이 다르게 나타나는 시장이 구분됨**

- (세 자료 일관)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는 환자 수, 의료소비, 의료관광 참여율이 모두 함께 확대되어 성장의 근거가 가장 일관되게 확인되는 후속 성장시장임
- (규모와 지출의 차이) 미국과 대만은 환자 수 순위보다 소비금액 순위가 높고, 몽골·카자흐스탄은 환자 증가보다 소비 증가가 빨라, 환자 수보다 지출 측면에서 시장의 위상이 높게 나타남
- (규모와 참여 성향의 차이) 중국과 대만은 환자 수와 의료소비 규모는 크지만 관광목적 방한 외래관광객의 의료관광 참여율이 전체보다 낮은 반면, 몽골과 중동은 시장 규모는 작으나 참여율과 참여자의 지출이 최상위권임
- (성장 방향의 차이) 호주는 환자 수가 2년간 약 3.0배 늘었으나 의료관광 참여율은 20.3%에서 17.0%로 낮아졌으며, 베트남은 의료관광 참여율이 높아졌으나 의료소비 단가와 참여자의 1일 지출은 낮아, 시장 확대가 지출 확대로 이어지지 않는 모습을 보임

○ **(종합) 한국 의료관광시장의 질적 성장 가능성은 국가별 유치 규모의 확대뿐 아니라 실제 의료소비의 경제적 가치와 일반 관광의 연계 특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국가별 시장 특성에 따른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함**

- 중국·일본·대만 등 핵심시장은 피부·미용 중심의 대규모 수요와 높은 의료소비가 시장 성장을 견인하지만, 의료관광 외 관광활동과 체류 확대 측면에서는 추가적인 연계 가능성이 존재함

- 미국·싱가포르·태국 등은 의료관광과 다양한 관광활동이 함께 나타나 의료서비스 이용과 관광 소비를 연계하는 전략적 활용 가능성이 있음
- 몽골·중동은 의료관광에 대한 높은 관여도와 지출 수준이 특징으로, 치료·건강관리 수요와 사후관리 및 재방문 수요를 고려한 시장 접근이 중요함
- 이에 따라 의료관광을 인바운드 관광의 질적 성장 전략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국가별 시장 규모·성장성, 의료수요·소비구조, 의료관광 참여경로 및 관광행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중국) 외국인환자 수 기준 최대 규모의 고성장 시장으로, 치료와 미용 수요가 함께 확대되는 가운데 의료 소비금액은 피부·미용에 집중된 고단가 소비구조를 보임

○ **(규모·성장) 중국의 외국인환자 수는 2025년 일본을 추월하며 규모가 가장 큰 시장으로 부상함**
- 중국인 환자 수는 2023년 11만 2,135명에서 2025년 61만 8,973명으로 5.5배 증가하며 높은 성장세를 보였으며, 같은 기간 전체 외국인환자 중 비중도 18.5%에서 30.8%로 높아짐

○ **(의료수요) 피부과가 시장 확대를 주도하는 가운데, 내과통합·검진센터 수요가 함께 증가함**
- 주요 4개 진료과목 중 피부과·성형외과 비중은 2023년 72.5%에서 2025년 89.4%로 16.9%p 상승함
- 피부과 환자는 2023년 4만 5,412명에서 2025년 45만 9,521명으로 약 10.1배로 확대되며 환자 증가의 핵심 동력으로 나타남
- 같은 기간 내과통합·검진센터 환자도 2만 3,471명에서 6만 1,336명으로 약 2.6배 증가하며 피부·미용 중심의 성장 속에서도 치료·건강관리 수요의 절대 규모가 증가함

○ **(소비구조) 건당 소비금액이 가장 높은 고단가 시장으로 피부과·성형외과에 소비금액이 집중됨**
- 건당 의료 소비금액은 2023년 48만 4천 원에서 2025년 77만 7천 원으로 60.3%로 증가하였으며, 주요 국가 4개(일본, 중국, 미국, 대만) 중 가장 높은 수준을 보임
- 전체 외국인 의료소비에서 중국의 소비건수 비중은 8.1%에서 7.6%로 하락한 반면, 소비금액 비중은 11.2%에서 13.0%로 상승하여 결제건수 대비 소비금액이 큰 구조가 강화됨
- 2025년 약국을 제외한 의료 소비금액의 94.8%가 피부과·성형외과에서 발생한 한편, 대학·종합병원 소비금액은 2023년과 2025년 모두 약 52억 원으로 유사한 수준을 보임

○ **(참여경로·관광행태) 의료관광에 대한 사전 고려형 참여가 중심을 이루며 의료관광 참여자의 높은 지출 수준이 두드러짐**
- 2025년 중국 관광목적 방한객의 의료관광 참여율은 17.7%로 전체(19.5%)보다 낮으며, 의료관광 참여자 중 계획형 비중은 71.2%로 2023년(67.9%)보다 높음
- 치료·건강검진 참여율은 2023년 7.0%에서 2025년 9.9%로 상승하며 2025년 뷰티·미용 참여율(9.8%)을 넘어섬
- 2025년 기준 의료관광 참여자의 체류기간과 의료관광 외 관광활동 수는 각각 5.8일, 3.2개로

비참여자(5.6일, 3.2개)와 유사한 수준을 보였으나, 1인 평균 지출경비는 2,189.61달러로 비참여자(1,198.88달러)의 약 1.83배, 1인 1일 평균 지출경비는 438.69달러로 약 1.76배 높아 동일한 체류기간 대비 높은 소비강도를 보임

○ (종합) 세 자료 모두에서 핵심시장의 위상이 확인되나, 치료 수요와 시장 규모가 소비와 관광객 참여로 나타나는 정도에는 차이가 있음

- 유치실적과 외래관광객조사에서는 치료·건강검진 수요가 뚜렷하게 늘었으나, 의료소비는 피부·미용에 집중되고 대학·종합병원 소비는 정체되어, 치료 목적 이용이 지출 확대로 이어졌는지는 확인되지 않음
- 또한 외국인환자 수가 약 5.5배 늘어난 데 비해 의료 소비금액은 약 3.5배 증가에 그쳤으며, 이는 간편결제 등 카드 외 결제 비중이 높은 중국 시장의 특성상 실제 소비가 카드 데이터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음
- 관광목적 방한 외래관광객의 의료관광 참여율은 전체보다 낮으나 참여자의 1일 지출은 가장 높아, 중국은 방한객 전반으로 의료관광이 확산된 시장이기보다 대규모 방한객 중 일부 수요층이 높은 단가로 의료관광을 소비하는 시장으로 볼 수 있음

□ (일본) 사전 계획형 참여가 가장 뚜렷한 대형 피부·미용 시장으로, 피부과 중심의 대규모 결제와 상대적으로 낮은 건당 소비금액이 특징

○ (규모·성장) 일본의 외국인환자 유치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으나, 최근 증가율이 낮아지며 시장 비중은 하락함

- 2025년 일본인 외국인환자 수는 60만 9명으로 중국에 이어 2위를 차지하였으며, 2019년(6만 8,411명) 대비 약 8.8배 확대됨
- 전년 대비 환자 증가율은 2024년 135.0%에서 2025년 36.0%로 낮아졌으며, 2025년 전체 외국인환자 증가율(71.9%)을 하회함
- 일본인 환자 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4년 37.7%에서 2025년 29.8%로 하락함

○ (의료수요) 피부과 환자가 급증하면서 일본 의료관광 전체 성장을 견인함

- 피부과 환자는 2023년 12만 746명에서 2025년 39만 9,964명으로 약 3.3배 확대되었으며, 주요 4개 진료과목 중 피부과·성형외과 비중은 2023년 86.6%에서 2025년 89.0%로 2.4%p 상승하여 피부·미용에 대한 높은 집중도를 보임
- 한편, 내과통합 환자도 약 2.7배(1만 3,800명 → 3만 7,855명) 증가하였으나, 피부과·성형외과 대비 절대 규모가 작아 피부·미용에 대한 편중이 큼

○ (소비구조) 소비 규모는 크게 늘었으나 결제건수 중심으로 확대되었으며, 피부·미용에 소비가 집중되는 가운데 피부과의 결제단가는 분석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을 보임

- 의료 소비금액은 2023년 약 1,300억 원에서 2025년 3,154억 원으로 약 2.4배 늘었으나,

소비건수가 더 빠르게 증가하면서 전체 외국인 의료소비 중 소비건수 비중은 18.4%에서 21.7%로 높아진 반면, 소비금액 비중은 22.3%에서 18.3%로 낮아짐

- 약국을 제외한 의료 소비금액은 2023년 약 1,258억 원에서 2025년 약 2,857억 원으로 약 2.3배로 확대되었으며, 건당 소비금액도 62만 9천 원에서 73만 8천 원으로 상승함
- 2025년 피부과·성형외과 소비금액은 각각 1,869억 원과 823억 원으로, 두 분야가 약국 제외 의료 소비금액의 약 94.2%를 차지하여 피부·미용에 고도로 집중된 소비구조를 보임
- 피부과 소비금액은 2023년 629억 원에서 2025년 1,869억 원으로 약 3배로 확대되었으며, 건당 소비금액도 48만 2천 원에서 65만 원으로 상승하였으나, 중국(223만 4천 원)의 약 29.1%, 대만(159만 원)의 약 40.9% 수준으로 분석 국가 중 가장 낮음
- 한편 치과 소비금액은 2023년 31억 원에서 2025년 80억 원으로 증가하였으며, 건당 소비금액은 같은 기간 66만 원에서 94만 2천 원으로 상승하여 피부·미용 중심의 소비구조 속에서도 치과 분야의 소비 확대가 나타남

○ **(참여경로·관광행태) 의료관광의 사전 고려형 참여 비중이 가장 높으며, 짧은 체류 속 높은 지출 수준을 보임**

- 2025년 기준 일본인 외래관광객 중 의료관광 참여율은 26.0%이며, 그 중 '고려·참여형' 비중은 83.9%로 매우 높게 나타남
- 일본의 의료관광 전환율은 79.1%로 높은 수준이나, 사전에 고려한 수요의 실제 의료관광 참여 비율은 다소 감소함
- 의료관광 참여자의 평균 체류기간은 3.7일로 비참여자와 동일하며, 의료관광 외 참여한 관광 활동 수는 3.1개로 비참여자(3.3개)보다 적음
- 반면, 의료관광 참여자의 1인 평균 지출경비는 1,165.53달러로 비참여자(777.39달러)의 약 1.50배, 1인 1일 평균 지출경비는 321.87달러로 비참여자(218.92달러)의 약 1.47배 높게 나타남

○ **(종합) 세 자료 모두에서 대규모 피부·미용 시장의 위상이 확인되나, 최근에는 성장 둔화와 함께 이용 빈도 중심의 확대가 두드러짐**

- 유치실적, 의료소비, 외래관광객조사 모두에서 피부·미용 중심의 높은 수요가 일관되게 나타나, 일본은 한국 피부·미용 의료관광의 대표적인 기존 핵심시장으로 확인됨
- 그러나 2025년 환자 증가율이 전체의 절반 수준으로 낮아지고 소비금액 비중도 하락하였으며, 소비건수 비중은 높아진 반면 피부과 결제단가는 가장 낮아, 규모 확대가 고액 소비보다 다빈도·소액 이용을 중심으로 이루어짐
- 또한 사전 계획형 비중이 가장 높은 시장임에도 전환율이 낮아지고 있어, 방한 전 고려가 실제 참여로 이어지도록 예약 단계의 정보 제공과 일정 연계가 중요한 시장으로 볼 수 있음

□ (대만) 최근 외국인환자 규모와 의료소비가 급격히 확대된 고단가 피부·미용 집중 시장으로, 시장 성장에 비해 방한 외래관광객 전체의 의료관광 참여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임

○ (규모·성장) 대만의 외국인환자는 2023년 1만 2,828명에서 2025년 18만 5,715명으로 약 14.5배 증가하며 미국을 넘어 3위 시장으로 성장함

- 같은 기간 전체 외국인환자 중 비중은 2.1%에서 9.2%로 높아져, 핵심 4개국 중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임

○ (의료수요) 피부과가 시장 성장을 주도하는 가운데, 규모는 작으나 내과통합·안과 등 피부·미용 외 진료 수요도 빠르게 늘어남

- 피부과 환자는 2023년 6,042명에서 2025년 14만 9,126명으로 약 24.7배 확대되어 시장 성장을 주도하였으며, 성형외과 환자도 5,566명에서 1만 6,453명으로 증가하여 피부·미용 수요가 함께 확대됨
- 내과통합 환자는 2023년 228명에서 2025년 1만 1,621명으로, 안과 환자는 60명에서 2,137명으로 늘어, 주요 4개 진료과목 중 피부과·성형외과 비중은 2023년 97.6%에서 2025년 92.3%로 낮아짐

○ (소비구조) 의료기관 소비가 피부과·성형외과에 고도로 집중되며, 결제 규모 확대와 건당 금액 상승이 동시에 나타남

- 의료 소비금액은 2023년 약 125억 원에서 2025년 약 2,318억 원으로 약 18.5배 늘어, 전체 외국인 의료소비 중 비중이 2.1%에서 13.5%로 높아지며 중국을 상회함
- 약국을 제외한 의료 소비금액은 2023년 약 120억 원에서 2025년 약 2,140억 원으로 약 17.8배로 확대되었으며, 건당 소비금액도 82만 1천 원에서 161만 1천 원으로 약 2배 상승함
- 피부과·성형외과 소비금액 비중은 2023년 90.7%에서 2025년 95.9%로 높아져, 핵심 4개국(중국, 일본, 미국, 대만) 중 피부·미용에 대한 소비 집중도가 가장 높게 나타남
- 피부과 소비금액은 2023년 약 60억 원에서 2025년 약 1,711억 원으로 확대되었으며, 건당 소비금액은 80만 7천 원에서 159만 원으로 상승하여 2025년 일본(65만 원)의 약 2.4배로 나타남
- 성형외과 소비금액도 2023년 약 49억 원에서 2025년 약 342억 원으로 확대되며 건당 소비금액이 100만 4천 원에서 193만 3천 원으로 상승하여 피부과와 함께 고액 소비구조를 형성함

○ (참여경로·관광행태) 방한 외래관광객 전체의 참여율은 낮지만, 사전 고려형 참여가 확대되고 참여자의 지출 수준도 높게 나타남

- 대만 관광목적 방한객의 의료관광 참여율은 2023년 7.7%에서 2025년 11.3%로 상승하였으나, 2025년 전체(19.5%)보다 낮아 분석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이며, '비고려·미참여형'도 85.3%로 가장 높음

- '고려·참여형'은 2023년 3.7%에서 2025년 6.3%로 증가하였으며, 의료관광 참여자 중 계획형 비중도 48.1%에서 56.3%로 상승하여 사전 고려형 참여가 확대됨
- 치료·건강검진 참여율은 2023년 1.9%에서 2025년 5.0%로 상승하여, 뷰티·미용 참여율과의 격차가 같은 기간 4.2%p에서 1.8%p로 축소됨
- 2025년 의료관광 참여자는 평균 5.9일 체류하여 비참여자(5.2일)보다 길지만, 의료관광 외 관광활동 수는 3.8개로 비참여자(3.9개)와 유사함
- 반면 1인 평균 지출경비는 1,669.47달러로 비참여자(1,139.98달러)의 약 1.46배, 1인 1일 평균 지출경비는 327.21달러로 비참여자(225.85달러)의 약 1.45배이며, 참여자와 비참여자의 1인 평균 지출 격차는 2023년 약 1.18배에서 2025년 1.46배로 빠르게 커짐

○ **(종합) 환자 수와 의료소비는 같은 방향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하였으나, 관광객 전반의 참여는 제한적인 소수 고관여층 중심의 시장으로 나타남**
- 의료 소비금액(약 18.5배)이 외국인환자 수(약 14.5배)보다 빠르게 늘어, 1인당 카드 소비금액은 2023년 약 97만 원에서 2025년 약 125만 원으로 증가하였으며, 소비금액 비중(13.5%)도 환자 비중(9.2%)을 웃돌아 규모 대비 지출 측면의 위상이 높은 시장임
- 내과통합·안과 수요가 늘며 피부·미용 비중이 다소 낮아졌으나, 소비에서는 피부·미용 집중도가 오히려 높아져, 소비 성장은 고액 피부·성형 시술이 이끈 것으로 볼 수 있음
- 반면 관광목적 방한 외래관광객의 의료관광 참여율은 분석 국가 중 가장 낮아, 현재의 성장은 일부 고관여 수요층에 기반하고 있으며, 일반 방한객으로 의료관광 수요를 확산할 여지가 큰 시장으로 볼 수 있음

□ (미국) 피부·미용 수요의 성장과 치료·건강관리 수요가 공존하는 대형 의료소비 시장으로, 현지 참여 중심에서 사전 고려형 참여가 확대되는 방향으로 참여 구조가 변화함

○ **(규모·성장) 미국의 외국인환자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으나, 전체 시장보다 성장속도가 낮아 상대적 비중은 하락함**
- 미국의 외국인환자는 2023년 7만 6,925명에서 2025년 17만 3,363명으로 약 2.3배 증가하였으나, 전체 외국인환자의 확대 규모(약 3.3배)를 하회하며 비중은 12.7%에서 8.6%로 하락함

○ **(의료수요) 피부과 중심의 미용 수요가 빠르게 확대되는 동시에, 내과통합·검진센터의 수요도 유지·증가함**
- 피부과 환자는 2023년 1만 7,486명에서 2025년 8만 5,493명으로 약 4.9배로 확대되었으며, 주요 4개 진료과목 중 피부과·성형외과 비중은 54.4%에서 71.5%로 상승함
- 내과통합·검진센터도 같은 기간 2만 6,596명에서 4만 1,246명으로 증가하며 2025년 두 과목의 비중이 28.5%로 중국(10.6%)보다 높게 나타나 피부·미용 중심의 성장 속에서도 치료·건강관리 수요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함
- 이에 따라 미국은 치료·건강관리 기반 위에 피부·미용 수요가 더해지는 균형형 시장으로 확인됨

○ (소비구조) 피부·미용이 소비금액의 중심을 이루지만, 대학·종합병원·치과 등에서도 폭넓은 소비가 이루어짐

- 의료 소비금액은 2023년 1,774억 원에서 2025년 3,794억 원으로 약 2.1배 늘어 분석 국가 중 가장 큰 소비시장을 유지하였으나, 전체 시장이 더 빠르게 확대되면서 소비금액 비중은 30.5%에서 22.0%로 낮아짐
- 약국을 제외한 의료기관 건당 소비금액은 2023년 51만 원에서 2025년 74만 6천 원으로 상승함
- 2025년 피부과·성형외과 소비금액은 각각 1,495억 원과 1,037억 원으로, 약국 제외 의료 소비금액의 71.6%를 차지하였으며, 이는 중국·일본·대만의 94% 이상 수준보다 낮아 상대적으로 다양한 과목에 소비가 분산된 구조를 보임
- 대학·종합병원 소비금액은 2023년 349억 원에서 2025년 449억 원으로, 치과 소비금액은 214억 원에서 354억 원으로 증가하며 치료·건강관리 관련 소비도 함께 확대됨
- 이에 따라 2025년 대학·종합병원·치과·한의학과 등 피부·미용 외 분야가 의료기관 소비금액의 28.4%, 소비건수의 58.4%를 차지하여, 피부·미용 외 다른 의료 분야에서도 상당한 소비가 이루어짐

○ (참여경로·관광행태) 의료관광의 사전 고려형과 비고려형 참여가 공존하며, 비교적 긴 체류 기간과 다양한 관광활동 속에서 높은 지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남

- 미국 관광목적 방한객의 의료관광 참여율은 2023년 15.9%에서 2025년 18.0%로 상승하였으며, 치료·건강검진 참여율은 2025년 5.0%로 전체(7.3%)보다 낮음
- 미국의 '고려·참여형'은 2023년 5.2%에서 2025년 9.5%로 증가한 반면, '비고려·참여형'은 10.6%에서 8.5%로 감소하여 사전 고려가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남
- 미국의 의료관광 참여자 중 계획형 비중도 2023년 32.9%에서 2025년 52.8%로 상승하며, 비고려형 참여 중심에서 사전 고려형과 비고려형이 공존하는 구조로 변화함
- 2025년 미국의 의료관광 참여 외래관광객의 평균 체류기간은 9.4일이며, 의료관광 외 관광활동 수는 4.9개로 비참여자(8.7일, 4.7개)를 상회하였으며, 1인 평균 지출경비는 1,976.60달러로 비참여자(1,400.35달러)의 약 1.41배를 보여, 비교적 긴 체류와 다양한 관광활동에 높은 지출이 결합된 특성을 보임

□ (태국) 동남아시아 최대 외국인환자 시장으로, 뷰티·미용 중심의 수요·소비 속에서 치료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는 전환기 시장으로 나타남

○ (규모·성장) 태국의 외국인환자 규모는 증가하였으나, 전체 시장의 성장 속도에는 미치지 못함

- 태국의 외국인환자는 2023년 3만 844명에서 2025년 5만 8,124명으로 약 1.9배 증가하며 동남아시아 국가 중 가장 큰 규모를 유지하였으나, 같은 기간 전체 외국인환자 중 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5.1%에서 2.9%로 하락함

○ (의료수요) 피부과 수요가 확대되는 한편, 성형외과는 감소하고 내과통합 수요는 증가함

- 피부과는 2023년 1만 4,262명에서 2025년 3만 9,667명으로 약 2.8배로 확대된 반면, 성형외과는 같은 기간 1만 1,160명에서 8,358명으로 25.1% 감소함
- 내과통합은 2023년 2,143명에서 2025년 6,156명으로 약 2.9배로 확대되어, 피부·미용 중심의 시장에서도 치료·건강관리 수요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소비구조) 의료소비의 중심이 성형외과에서 피부과로 이동한 가운데, 성형외과의 소비건수는 감소한 반면 건당 금액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의료 소비금액은 2023년 286억 3천만 원에서 2025년 437억 2천만 원으로 약 1.5배 늘었으나, 전체 시장보다 성장이 더뎌 소비금액 비중은 4.92%에서 2.54%로 절반 수준으로 낮아짐
- 약국을 제외한 의료기관 건당 소비금액은 2023년 122만 1천 원에서 2025년 142만 5천 원으로 상승함
- 약국을 제외한 태국의 의료소비는 2025년 피부과·성형외과가 약 97.2%를 차지하며 피부·미용에 고도로 집중된 것으로 나타남
- 피부과 소비금액은 2023년 87억 8천만 원에서 2025년 242억 2천만 원으로 약 2.8배로 확대되어 성형외과를 넘어 최대 소비 분야로 부상하였으며, 건당 소비금액도 65만 3천 원에서 110만 2천 원으로 상승함
- 성형외과 소비금액은 같은 기간 183억 4천만 원에서 165억 원으로 감소하였으나, 건당 소비금액은 258만 4천 원에서 382만 7천 원으로 상승하며 결제 규모와 단가가 서로 다른 흐름을 보임
- 반면 대학·종합병원 소비금액은 2023년 5억 7천만 원에서 2025년 6억 2천만 원으로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참여경로·관광행태) 의료관광의 사전 고려형 참여 비중은 낮아진 한편, 비고려형 참여가 확대됨**

- 태국 관광목적 방한객의 의료관광 참여율은 2025년 19.6%로 전체와 비슷한 수준이며, 치료·건강검진 참여율(10.8%)이 뷰티·미용 참여율(10.7%)과 비슷하게 나타남
- '고려·참여형'은 2024년 17.4%에서 2025년 11.2%로 감소한 반면, '비고려·참여형'은 4.5%에서 8.4%로 증가하여, 의료관광 참여자 중 계획형 비중이 79.5%에서 57.1%로 낮아짐
- 뷰티·미용 고려율도 같은 기간 11.4%에서 5.9%로 하락하였으나, 2025년 의료관광 전환율은 94.1%로 분석 국가 중 가장 높아 사전에 의료관광을 고려한 관광객의 실제 참여 비율이 높게 나타남
- 2025년 태국의 의료관광 참여자의 평균 체류기간은 7.1일, 의료관광 외 관광활동은 4.3개로 비참여자(5.7일·4.1개)를 상회하였으며, 1인 평균 지출경비도 1,614.06달러로 비참여자(1,033.92달러)의 약 1.56배 높아 비교적 긴 체류와 높은 지출이 결합된 특성을 보임

○ **(종합) 환자와 관광객 참여에서는 치료 수요의 확대가 확인되나, 소비는 피부·미용 중심의 고액화로 나타나 자료 간 차이를 보임**

- 유치실적에서는 내과통합 환자가 약 2.9배 늘고, 외래관광객조사에서도 치료·건강검진 참여율이 뷰티·미용과 비슷한 수준이나, 의료소비는 피부과·성형외과가 97.2%를 차지하고 대학·종합병원 소비는 정체되어, 치료 수요가 지출 확대로는 이어지지 않음

- 외국인환자 수(약 1.9배)보다 의료 소비금액(약 1.5배)의 증가가 낮아 환자 1인당 카드 소비금액은 2023년 약 93만 원에서 2025년 약 75만 원으로 낮아졌으나, 의료기관 건당 금액은 상승하여 소비가 소수의 고액 결제로 재편되는 양상을 보임
- 또한 전환율은 가장 높지만 참여자 중 계획형 비중이 낮아지고 있어, 사전 계획 수요의 실행과 함께 방한 중 현지 참여 수요를 함께 고려한 접근이 필요한 시장으로 볼 수 있음

□ (몽골) 방한 외래관광객 2명 중 1명이 의료관광에 참여하는 고관여 시장으로, 치료 중심의 의료소비와 의료관광 참여자의 높은 지출이 두드러짐

○ (규모·성장) 비교적 완만하게 증가하는 시장으로 전체 시장보다 성장 속도는 낮으나 지속적인 의료 수요 기반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몽골의 외국인환자는 2016년 1만 4,798명으로 이미 일정 규모를 형성하고 있는 전통적인 의료관광 시장으로 2023~2025년 1.6배(2만 2,080명 → 3만 5,586명) 증가하며 평균 대비 성장률은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의료수요) 내과통합·검진센터 중심의 치료·건강관리 수요가 높은 비중을 유지하는 가운데, 피부·미용 수요도 함께 확대됨

- 내과통합·검진센터 환자는 2023년 각각 8,350명·3,655명에서 2024년 9,062명·4,168명으로 증가하였으며, 두 과목의 합계는 같은 기간 1만 2,005명에서 1만 3,230명으로 10.2% 증가하여 2024년 전체 진료과목별 환자 수의 36.5%를 차지함
- 피부과·성형외과 환자도 2023년 각각 2,685명·1,670명에서 2024년 3,125명·2,036명으로 증가하였으며, 두 과목의 합계는 4,355명에서 5,161명으로 18.5% 증가하였으나, 2024년 비중은 14.2%로 내과통합·검진센터보다 낮음
- 안과 환자는 2023년 2,226명에서 2024년 2,863명으로 28.6% 증가하였으며, 산부인과 환자도 2,252명에서 2,545명으로 증가하여 다양한 치료 분야의 수요가 함께 나타남

○ (소비구조) 대학·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치료 관련 소비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성형외과·안과 등에서도 소비가 확대됨

- 의료 소비금액은 2023년 98억 2천만 원에서 2025년 209억 5천만 원으로 113.4% 증가하여 외국인환자 증가율(약 61%)을 크게 웃돌았으나, 전체 시장이 더 빠르게 커지면서 소비금액 비중은 1.69%에서 1.22%로 낮아짐
- 약국을 제외한 의료기관 건당 소비금액은 2023년 85만 4천 원에서 2025년 94만 1천 원으로 소폭 상승하여, 소비 확대는 주로 결제건수 증가를 통해 이루어짐
- 대학·종합병원 소비금액은 2023년 56억 9천만 원에서 2025년 88억 9천만 원으로 증가하였으며, 2025년 약국을 제외한 의료 소비금액의 약 45.7%를 차지하여 가장 큰 소비 분야로 나타남
- 같은 기간 안과 소비금액은 9억 6천만 원에서 36억 7천만 원으로 늘어 비중이 10.4%에서 18.9%로 높아졌으며, 성형외과도 18억 1천만 원에서 43억 3천만 원으로 증가하며 치료 관련 소비와 미용 소비가 함께 확대됨

○ (참여경로·관광행태) 사전 고려형 참여가 빠르게 확대되며, 의료관광 참여자의 높은 지출 수준이 두드러짐

- 몽골의 2025년 의료관광 참여율은 51.0%로 분석 국가 중 가장 높으며, 뷰티·미용(35.9%)과 치료·건강검진(21.5%) 참여율 모두 가장 높게 나타남
- '고려·참여형'은 2023년 13.0%에서 2025년 39.8%로 26.8%p 상승하여 분석 국가 중 가장 큰 증가 폭을 보임
- 2025년 의료관광 참여자 중 계획형 비중은 78.2%, 의료관광 전환율은 85.2%로 사전 고려와 실제 참여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현지 추가 참여율도 20.9%로 분석 국가 중 가장 높아 현지 참여 수요도 활발함
- 의료관광 참여자의 평균 체류기간은 9.5일, 의료관광 외 관광활동 수는 3.8개로 비참여자(9.3일·4.0개)와 유사한 반면, 1인 평균 지출경비는 2,011.27달러로 비참여자(1,006.05달러)의 약 2.0배, 1인 1일 지출경비는 263.35달러로 비참여자(143.60달러)의 약 1.83배를 보이며 높은 지출 수준을 보임

○ (종합) 환자 수 기준으로는 저성장 시장이나, 의료소비와 관광객 참여에서는 가장 뚜렷한 성장과 높은 가치를 보이는 시장으로, 자료에 따라 시장의 위상이 가장 크게 달라짐

- 외국인환자 수는 약 1.6배 증가에 그쳤으나 의료 소비금액은 약 2.1배로 늘어 환자 1인당 카드 소비금액이 2023년 약 44만 원에서 2025년 약 59만 원으로 높아졌으며, 관광목적 방한 외래관광객의 의료관광 참여율과 참여자·비참여자 간 지출 격차는 분석 국가 중 가장 높아, 환자 수만으로는 파악되지 않는 지출 측면의 가치가 큰 시장임
- 치료·건강관리 수요는 유치실적, 의료소비, 외래관광객조사 모두에서 일관되게 확인되어, 몽골은 세 자료에서 치료 중심 특성이 함께 나타나는 대표적인 시장임
- 다만 외래관광객의 참여에서는 뷰티·미용(35.9%)이 치료·건강검진(21.5%)보다 높게 나타나, 치료 목적의 환자 수요와 관광 중 미용 참여 수요가 함께 형성된 복합 수요 시장으로 볼 수 있음

□ (중동) 기존 치료 수요를 기반으로 피부·미용 수요가 빠르게 확대된 시장으로, 사전 고려형 참여의 강화와 의료관광 참여자의 높은 지출이 두드러짐

○ (규모·성장) 코로나19 이전 규모를 회복하며 최근 성장세가 확대되었으나,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낮아짐

- 중동의 외국인환자는 2023년 4,720명에서 2024년 6,347명, 2025년 1만 40명으로 약 2.1배로 확대되었으며, 2025년에는 2019년 8,963명을 12.0% 상회함
- 전년 대비 증가율은 2024년 34.5%에서 2025년 58.2%로 높아졌으나, 전체 외국인환자의 확대 규모(약 3.3배)에는 미치지 못하여 시장 비중은 0.8%에서 0.5%로 하락함

○ (의료수요) 기존 치료 수요가 유지되는 가운데 피부·미용과 한방 수요가 확대되며 진료과목 구성이 변화함

- 중동의 내과통합 환자는 2023년 1,297명에서 2025년 1,342명으로 유사한 규모를 유지한 반면, 피부과 환자는 855명에서 5,017명으로 약 5.9배로 확대됨
- 같은 기간 성형외과는 767명에서 949명으로 증가하였으며, 한방통합도 275명에서 803명으로 약 2.9배로 확대됨
- 주요 4개 진료과목 중 내과통합 비중은 2023년 40.6%에서 2025년 16.5%로 하락한 반면, 피부과·성형외과 비중은 50.8%에서 73.6%로 상승하여 기존 치료 수요 위에 피부·미용 수요가 빠르게 확대되는 구조를 보임

○ **(소비구조) 중동 주요 2개국 기준, 피부·미용 소비가 빠르게 확대되면서 대학·종합병원 소비도 함께 유지·증가함**

-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아라비아의 의료 소비금액은 2023년 69억 7천만 원에서 2025년 182억 원으로 약 2.6배 늘었으나, 전체 외국인 의료소비 중 비중은 1.20%에서 1.06%로 소폭 낮아짐
- 약국을 제외한 의료기관 건당 소비금액은 2023년 80만 6천 원에서 2025년 111만 1천 원으로 상승하였으며, 의료기관 소비금액 중 피부과 비중은 25.3%에서 52.6%로 높아져 피부과가 최대 소비 분야로 부상함
- 국가별로는 아랍에미리트의 피부과 소비금액이 2023년 12억 1천만 원에서 2025년 60억 4천만 원으로 약 5배, 사우디아라비아는 4억 1천만 원에서 26억 8천만 원으로 약 6.5배 늘었으며, 성형외과도 두 나라 모두 증가함
- 대학·종합병원 소비금액은 두 나라 합계 2023년 15억 6천만 원에서 2025년 20억 9천만 원으로 증가하여, 비중은 24.3%에서 12.6%로 낮아졌으나 치료 관련 소비가 함께 유지됨

○ **(참여경로·관광행태) 의료관광의 사전 고려형 참여가 강화되며, 의료관광 참여자의 높은 소비 수준이 두드러짐**

- 2025년 중동 관광목적 방한객의 의료관광 참여율은 39.5%로 몽골 다음으로 높으며, '고려·참여형'은 2023년 10.6%에서 2025년 29.7%로 19.1%p 상승하였고, '비고려·참여형'도 8.5%에서 9.8%로 증가함
- 의료관광 참여자 중 계획형 비중은 2023년 55.5%에서 2025년 75.2%로 상승하였으며, 2025년 의료관광 전환율은 88.7%로 높아 사전 고려형 중심의 참여 구조가 강화됨
- 2025년 치료·건강검진 고려율은 20.0%, 참여율은 18.8%이며, 뷰티·미용 참여율도 24.0%로 나타나 두 활동에 대한 수요가 함께 확인됨
- 의료관광 참여자의 평균 체류기간은 9.8일로 비참여자(9.3일)보다 다소 길지만, 의료관광 외 관광활동 수는 4.2개로 비참여자(4.9개)보다 적음
- 반면 1인 평균 지출경비는 2,914.61달러로 비참여자(1,510.94달러)의 약 1.93배이자 분석 국가 중 가장 높으며, 1인 1일 지출경비는 376.14달러로 비참여자(197.06달러)의 약 1.91배를 보여 높은 소비강도가 두드러짐

○ **(종합) 시장 규모는 가장 작은 수준이나, 의료관광 참여율과 참여자의 지출 수준은 최상위권으로,**

규모에 비해 지출 측면의 가치가 큰 시장임

- 외국인환자 비중은 0.5%, 의료소비 비중은 1.06%에 그치지만, 외래관광객의 의료관광 참여율은 몽골 다음으로 높고 참여자의 1인 평균 지출경비는 분석 국가 중 가장 높아, 환자 수나 소비 규모만으로는 파악되지 않는 가치가 확인됨
- 유치실적에서는 내과통합 환자가 유지되고, 의료소비에서는 대학·종합병원 소비가 유지되며, 외래관광객조사에서도 치료·건강검진 참여율이 높게 나타나, 세 자료 모두에서 기존 치료 수요 위에 피부·미용 수요가 더해지는 구조가 일관되게 확인됨
- 다만 외국인환자 유치실적과 외래관광객조사는 중동 지역 전체, 의료소비는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아라비아 2개국 기준이므로, 자료 간 수치를 직접 비교하기보다 변화 방향을 중심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음

□ (싱가포르) 환자 규모와 피부과 소비가 빠르게 확대되는 후속 성장시장으로, 사전 고려형과 비고려형 참여가 공존하며 관광활동과 높은 지출이 함께 나타남

○ (규모·성장) 2023년 대비 2025년 외국인환자 규모가 약 3.2배 확대되며 동남아시아의 주요 시장으로 성장함

- 싱가포르 외국인환자는 2023년 1만 3,499명에서 2025년 4만 3,222명으로 확대되었으며, 2025년 태국에 이어 동남아시아 국가 중 두 번째로 큰 규모를 형성함
- 2025년 기준 싱가포르의 외국인환자 수는 2019년(2,971명) 대비 약 14.5배로, 코로나19 이전보다 시장 규모가 크게 확대됨

○ (의료수요) 피부과 중심의 미용 수요가 압도적인 가운데, 규모는 작으나 내과통합·안과 수요도 빠르게 늘어남

- 피부과 환자는 2023년 6,826명에서 2025년 3만 3,402명으로 약 4.9배 확대되어, 2025년 주요 4개 진료과목 환자의 81.3%를 차지함
- 반면 성형외과 환자는 같은 기간 5,206명에서 3,843명으로 26.2% 감소하여, 미용 수요의 중심이 성형외과에서 피부과로 이동함
- 내과통합 환자는 2023년 367명에서 2025년 3,315명으로 약 9.0배, 안과는 156명에서 502명으로 약 3.2배 늘어, 규모는 작으나 치료 관련 수요도 빠르게 증가함

○ (소비구조) 소비의 중심이 성형외과에서 피부과로 이동하며 소비 규모와 건당 금액이 함께 상승함

- 의료 소비금액은 2023년 252억 1천만 원에서 2025년 924억 2천만 원으로 약 3.7배 늘어, 전체 외국인 의료소비 중 비중이 4.33%에서 5.36%로 높아짐
- 약국을 제외한 의료기관 건당 소비금액은 2023년 91만 5천 원에서 2025년 135만 9천 원으로 상승함
- 피부과 소비금액은 2023년 98억 4천만 원에서 2025년 565억 4천만 원으로 약 5.7배 증가하여 성형외과를 넘어 최대 소비 분야로 부상하였으며, 건당 소비금액도 90만 8천 원에서 136만 7천 원으로 상승함

- 성형외과는 결제건수의 변화가 크지 않았으나 건당 소비금액이 129만 5천 원에서 218만 8천 원으로 약 1.7배 높아지면서, 소비금액이 114억 5천만 원에서 204억 9천만 원으로 증가함
- 치과 소비금액은 2023년 7억 8천만 원에서 2025년 21억 7천만 원으로 증가하였으나, 약국 소비를 제외한 의료 소비금액에서 피부과·성형외과가 약 92.0%를 차지하여 피부·미용 중심의 소비구조가 유지됨

○ **(참여경로·관광행태) 의료관광에 대한 사전 고려형과 비고려형이 공존하며, 의료관광 참여자의 체류기간, 관광활동 수, 지출이 모두 비참여자보다 높음**

- 싱가포르 관광목적 방한객의 의료관광 참여율은 2023년 11.2%에서 2025년 20.6%로 상승하였으며, 뷰티·미용 참여율은 10.0%에서 15.8%로, 치료·건강검진 참여율은 2.2%에서 6.1%로 함께 높아짐
- 2025년 '고려·참여형'은 10.8%, '비고려·참여형'은 9.8%로 유사한 규모를 보였으며, 의료관광 참여자 중 계획형 비중은 52.4%로 사전 고려형과 비고려형이 함께 시장을 형성함
- 2025년 의료관광 참여자의 평균 체류기간은 7.7일이며, 의료관광 외 관광활동은 4.2개로 의료관광 비참여자(7.1일, 3.8개)를 상회함
- 의료관광 참여자의 1인 평균 지출경비도 2,307.45달러로 비참여자(1,482.03달러)의 약 1.56배를 보이며 많은 관광활동과 높은 소비가 함께 나타남

○ **(종합) 환자 수, 의료소비, 관광객 참여가 모두 같은 방향으로 확대되어, 후속 성장시장 중 성장의 근거가 가장 일관되게 확인되는 시장임**

- 외국인환자 수(약 3.2배)보다 의료 소비금액(약 3.7배)이 빠르게 늘어 환자 1인당 카드 소비금액은 2023년 약 187만 원에서 2025년 약 214만 원으로 높아졌으며, 관광목적 방한객의 의료관광 참여율도 2배 가까이 상승함
- 성형외과는 환자 수가 26.2% 줄었으나 소비금액은 약 79% 늘어, 이용 규모보다 단가 상승을 통해 고액 소비 분야로 재편됨
- 또한 의료관광 참여자의 체류기간, 관광활동 수, 지출이 모두 비참여자를 상회하여, 의료서비스 이용이 일반 관광과 결합되는 양상이 뚜렷한 시장으로 볼 수 있음

□ (인도네시아) 환자 유치가 빠르게 확대되는 국가로, 성형외과 중심의 고액 소비와 현지 결정형 의료관광 참여가 함께 나타나는 시장

○ **(규모·성장) 최근 환자 증가세가 가속화되며 전체 시장보다 빠르게 확대됨**

- 인도네시아 외국인환자는 2023년 6,449명에서 2025년 2만 1,257명으로 약 3.3배로 확대되었으며, 전년 대비 증가율은 2024년 61.1%에서 2025년 104.6%로 높아져, 최근 환자 유치의 성장세가 강화됨

○ **(의료수요) 진료과목별 환자 자료는 제시되지 않았으나, 관광목적 방한객의 참여 활동을 보면 뷰티·미용 참여가 빠르게 증가하며 미용 중심의 수요가 뚜렷해짐**

- 뷰티·미용 참여율은 2023년 8.9%에서 2025년 20.9%로 12.0%p 상승한 반면, 치료·건강검진 참여율은 3.9%에서 4.6%로 소폭 상승함
- 2025년 두 활동의 참여율 차이는 16.3%p로, 최근 의료관광 참여 확대는 뷰티·미용을 중심으로 나타남

○ **(소비구조) 성형외과가 고액 소비를 주도하는 가운데 피부과가 빠르게 성장함**

- 의료 소비금액은 2023년 116억 4천만 원에서 2025년 358억 7천만 원으로 약 3.1배 늘어, 전체 외국인 의료소비 중 비중을 2.0~2.1% 수준으로 유지함
- 약국을 제외한 의료기관 건당 소비금액은 2023년 159만 1천 원에서 2025년 202만 8천 원으로 상승하여 분석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을 보임
- 성형외과 소비금액은 2023년 83억 4천만 원에서 2025년 216억 원으로 약 2.6배로 확대되었으며, 건당 소비금액도 290만 2천 원에서 397만 4천 원으로 상승함
- 같은 기간 피부과 소비금액은 17억 9천만 원에서 91억 원으로 약 5.1배로 증가하며 성형외과보다 빠른 성장세를 보였으며, 2025년 피부과 결제건수(7.54천 건)는 성형외과(5.44천 건)를 넘어섬
- 2025년 성형외과·피부과가 약국을 제외한 의료 소비금액의 약 94.7%를 차지하였으며, 이 중 성형외과가 66.6%로 소비금액 기준 최대 분야를 유지함

○ **(참여경로·관광행태) 의료관광 비고려형 참여 비중이 높으며, 참여자는 더 긴 체류와 높은 지출을 보임**

- 의료관광 참여율은 2023년 11.1%에서 2025년 22.8%로 증가하였으며, 2025년 '비고려·참여형'은 13.0%로 '고려·참여형'(9.8%)보다 높고 의료관광 참여자 중 계획형 비중은 43.0%로 나타남
- 현지 추가 참여율은 2025년 15.1%로 전체(7.7%)의 약 2배에 달해, 방한 후 현지에서 의료관광 참여를 결정하는 수요가 많음
- 2025년 의료관광 참여자의 평균 체류기간은 8.3일로 비참여자(7.0일)보다 길지만, 의료관광 외 관광활동 수는 5.0개로 비참여자(4.9개)와 유사한 가운데, 1인 평균 지출경비는 1,884.80달러로 비참여자(1,334.82달러)의 약 1.41배 높게 나타남

○ **(종합) 환자 수와 의료소비는 비슷한 속도로 성장하였으나, 고액 성형외과 중심의 소비와 현지 결정형 관광객 참여가 서로 다른 수요층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있음**

- 외국인환자 수(약 3.3배)와 의료 소비금액(약 3.1배)이 비슷한 속도로 늘어, 두 자료에서 시장의 성장 흐름이 일관되게 확인됨
- 의료소비는 사전 상담과 계획이 필요한 고액 성형외과가 중심이고 의료기관 단가도 분석 국가 중 가장 높으나, 관광목적 방한객의 참여는 사전 계획 없이 현지에서 결정하는 뷰티·미용 중심으로 나타남
- 이는 고액 성형 소비가 관광목적 방한객보다 의료 목적 방한객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관광목적 방한객은 방한 중 피부·미용 시술을 추가하는 형태로 참여하는 등 두 수요층이 함께 형성되어 있을 가능성을 시사함

□ (말레이시아) 작은 환자 규모에서 빠르게 성장하는 미용 중심 시장으로, 의료관광에 대한 참여가 확대되며 짧은 체류 속 높은 소비강도를 보임

○ (규모·성장) 환자 규모는 작지만 최근 높은 증가율을 보이는 후속 성장시장으로 나타남

- 말레이시아 외국인환자 수는 2023년 3,247명에서 2025년 1만 2,086명으로 약 3.7배 확대되었으며, 전년 대비 증가율은 2024년 80.0%, 2025년 106.8%로 높은 수준을 유지함

○ (의료수요) 진료과목별 환자 자료는 제시되지 않았으나, 관광목적 방한객의 참여 활동을 보면 뷰티·미용 참여가 확대되며 치료·건강검진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함

- 뷰티·미용 참여율은 2023년 12.0%에서 2025년 19.4%로 상승한 반면, 치료·건강검진 참여율은 같은 기간 0.6%에서 2.5%로 소폭 상승함
- 2025년 뷰티·미용 참여율이 치료·건강검진보다 16.9%p 높아, 관광객의 의료관광 활동은 미용 중심으로 나타남

○ (소비구조) 소비 규모는 분석 국가 중 가장 작으나 2년간 약 3.7배 확대되었으며, 소비의 중심이 성형외과에서 피부과로 이동하며 피부·미용에 고도로 집중됨

- 의료 소비금액은 2023년 30억 2천만 원에서 2025년 110억 6천만 원으로 늘어, 전체 외국인 의료소비 중 비중이 0.52%에서 0.64%로 높아짐
- 약국을 제외한 의료기관 건당 소비금액은 2023년 94만 1천 원에서 2025년 122만 4천 원으로 상승함
- 피부과 소비금액은 2023년 6억 9천만 원에서 2025년 56억 9천만 원으로 약 8.3배 증가하여 2024년 성형외과를 넘어 최대 소비 분야로 부상하였으며, 의료기관 소비금액 중 피부과 비중은 24.1%에서 59.5%로 높아짐
- 성형외과 소비금액도 17억 7천만 원에서 32억 8천만 원으로 늘었으며, 2025년 건당 소비금액은 259만 5천 원으로 진료과목 중 가장 높음
- 반면 대학·종합병원 소비금액은 2억 6천만 원 수준에서 정체되어, 2025년 의료기관 소비 중 피부과·성형외과 비중은 93.7%에 달함

○ (참여경로·관광행태) 두 참여경로가 함께 확대되며, 체류 연장보다 지출 증가가 두드러짐

- 외래관광객의 의료관광 참여율은 2023년 12.2%에서 2025년 21.7%로 증가한 한편, 2025년 '고려·참여형'은 10.5%, '비고려·참여형'은 11.2%로 유사함
- 의료관광 참여자 중 계획형 비중은 2023년 34.4%에서 2025년 48.4%로 상승하였으며, 현지 추가 참여율도 8.8%에서 13.4%로 높아져, 비고려형 중심에서 두 경로가 공존하는 구조로 변화함
- 2025년 의료관광 참여자는 평균 5.9일 체류하여 비참여자(6.5일)보다 짧지만, 의료관광 외 관광활동 수는 4.8개로 비참여자(4.4개)보다 많음
- 1인 평균 지출경비는 1,710.52달러로 비참여자(1,221.28달러)의 약 1.40배이며, 1인 1일 지출경비도 301.81달러로 비참여자(207.17달러)의 약 1.46배로 짧은 체류 속 높은 소비강도를 보임

○ (종합) 환자 수, 의료소비, 관광객 참여가 모두 같은 속도로 확대되어, 싱가포르와 함께 성장의 근거가 일관되게 확인되는 후속 성장시장임

- 외국인환자 수와 의료 소비금액이 모두 약 3.7배 늘어 환자 1인당 카드 소비금액은 약 92만 원 수준으로 유지되었으며, 관광목적 방한객의 의료관광 참여율도 2배 가까이 높아짐
- 의료소비의 피부·미용 집중(93.7%)과 관광객의 뷰티·미용 중심 참여가 같은 방향으로 나타나, 피부·미용 단일 수요에 기반한 시장으로 확인됨
- 규모는 가장 작은 수준이나 시장 내 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며, 짧은 체류 속에 다양한 관광활동과 높은 1일 지출이 함께 나타나, 현지 참여 수요를 관광 동선과 연계할 여지가 큰 시장으로 볼 수 있음

□ (베트남) 성장은 완만하지만 관광객의 의료관광 참여는 확대되는 시장으로, 참여자의 긴 체류와 다양한 활동이 높은 일평균 지출로 이어지지는 않음

○ (규모·성장) 환자 규모는 증가하였으나 전체 시장보다 성장 속도가 낮음

- 베트남 외국인환자는 2023년 2만 371명에서 2025년 2만 3,133명으로 약 1.14배로 확대되었으며, 2024년에는 환자 수가 2만 382명으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며 2025년에는 전년 대비 13.5% 증가함

○ (의료수요) 피부과가 최대 진료과목으로 부상하였으나, 내과통합·치과 등 치료 수요의 비중이 높아 진료수요가 분산된 구조를 보임

- 피부과 환자는 2023년 2,059명에서 2025년 5,224명으로 약 2.5배 늘어, 2023년 최대 과목이던 내과통합(3,682명 → 4,641명)을 넘어 2025년 가장 큰 진료과목이 됨
- 성형외과는 2024년 2,777명으로 감소한 뒤 2025년 3,783명으로 2023년 수준을 회복하였으며, 치과는 3,496명에서 2,638명으로 줄어듦
- 2025년 주요 4개 진료과목 중 피부과 32.1%, 내과통합 28.5%, 성형외과 23.2%, 치과 16.2%로, 특정 분야에 집중되지 않고 치료와 미용 수요가 고르게 분포함

○ (소비구조) 소비건수는 늘었으나 소비금액은 정체되어 건당 소비금액이 2년간 31.4% 하락하였으며, 고액 성형외과 소비가 줄고 대학·종합병원 소비가 늘면서 치료 중심으로 소비구조가 이동함

- 의료 소비금액은 2023년 50억 5천만 원에서 2025년 55억 4천만 원으로 정체되어, 전체 외국인 의료소비 중 비중은 0.87%에서 0.32%로 절반 이하로 낮아짐
- 약국을 제외한 의료기관 건당 소비금액도 2023년 84만 1천 원에서 2025년 62만 9천 원으로 하락하여, 분석 국가 중 유일하게 의료서비스 단가가 낮아짐
- 성형외과 소비금액이 2023년 25억 4천만 원에서 2025년 15억 원으로 41% 감소하고 건당 금액도 397만 1천 원에서 221만 4천 원으로 낮아진 반면, 대학·종합병원은 9억 2천만 원에서 14억 1천만 원으로 53% 증가하여 두 분야가 비슷한 규모에 이르렀으며, 치료·기타 분야 비중은 29.6%에서 44.5%로 상승함

○ (참여경로·관광행태) 두 참여경로가 유사한 규모를 형성하며, 긴 체류와 다양한 활동에 비해 일평균 소비는 낮음

- 베트남의 의료관광 참여율은 2023년 13.4%에서 2025년 17.6%로 상승하였으며, 뷰티·미용 참여율(11.0% → 13.4%)과 치료·건강검진 참여율(3.1% → 4.9%)이 모두 높아짐
- 2025년 '고려·참여형'은 9.1%, '비고려·참여형'은 8.6%이며, 의료관광 참여자 중 계획형 비중은 2023년 36.6%에서 51.4%로 높아져 최근 참여 확대는 사전 계획형 참여가 이끎
- 2025년 기준 의료관광 참여자의 평균 체류기간은 9.4일, 의료관광 외 관광활동 수는 5.1개로 비참여자(5.9일, 4.6개)를 상회함
- 그러나 1인 평균 지출경비는 1,163.02달러로 비참여자(1,140.74달러)와 유사하고, 1인 1일 지출경비는 193.47달러로 비참여자(241.23달러)보다 낮아 체류·활동 확대와 소비강도가 다른 방향으로 나타남

○ (종합) 세 자료 모두에서 저단가·생활형 의료 이용의 특성이 일관되게 나타나, 의료관광 참여 확대가 지출 확대로 이어지지 않는 예외적인 시장임

- 외국인환자 수는 약 1.14배, 의료 소비금액은 약 1.1배 증가에 그쳐 환자 1인당 카드 소비금액이 약 24만 원으로 분석 국가 중 가장 낮으며, 관광목적 방한객의 의료관광 참여는 늘었으나 참여자의 1일 지출은 비참여자보다 낮음
- 유치실적에서는 내과통합·치과 등 치료 수요의 비중이 높고, 의료소비에서는 고액 성형외과 소비가 줄고 대학·종합병원 소비가 늘어, 두 자료 모두에서 치료 쪽으로 기우는 수요 구조가 확인됨
- 분석 대상에 '친구·친지 방문' 목적의 방한객이 포함되는 만큼, 긴 체류와 낮은 1일 지출에는 지인·가족 방문 등 방한 목적과 숙박 형태의 차이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어, 방한 목적별 추가 분석이 필요함

□ (카자흐스탄) 환자 유치의 성장 속도는 낮지만 대학·종합병원 중심의 의료소비가 지속 확대되는 치료 중심 시장

○ (규모·성장) 코로나19 이전 환자 규모를 회복하였으나 최근 성장세는 완만함

- 카자흐스탄의 외국인환자 수는 2023년 1만 1,810명에서 2025년 1만 5,188명으로 약 1.3배로 증가하였으며, 2019년(1만 3,424명)을 상회함
- 전년 대비 증가율은 2024년 22.6%에서 2025년 4.9%로 낮아지며 전체 의료관광 시장에 비해 최근 환자 유치의 증가 속도가 낮음

○ (소비구조) 대학·종합병원이 소비의 중심을 유지하며, 성형외과의 고액 소비가 일부 병존함

- 의료 소비금액은 2023년 253억 4천만 원에서 2025년 406억 3천만 원으로 60.3% 증가하였으나, 전체 시장이 더 빠르게 커지면서 소비금액 비중은 4.36%에서 2.36%로 낮아짐
- 대학·종합병원 소비금액은 2023년 191억 7천만 원에서 2025년 305억 8천만 원으로 증가하여 약국을 제외한 의료기관 소비금액의 78.9%를 차지하였으며, 2025년 의료기관 결제의

86.4%가 대학·종합병원에서 발생함

- 대학·종합병원 소비건수도 같은 기간 약 2만 920건에서 3만 90건으로 증가하였으며, 건당 소비금액은 91만 7천 원에서 101만 6천 원으로 상승함
- 성형외과 소비금액은 2023년 36억 7천만 원에서 2025년 52억 원으로 증가하였으며, 2025년 건당 소비금액은 419만 5천 원으로 분석 국가 중 가장 높아, 치료 중심의 소비구조 속에서 고액 미용 소비도 함께 존재함

○ (종합) 환자 수 기준으로는 저성장 시장이나, 치료 중심의 고단가 소비를 통해 지출 측면의 가치가 큰 시장임

- 외국인환자 수(약 1.3배)보다 의료 소비금액(약 1.6배)이 빠르게 늘어, 환자 1인당 카드 소비금액은 2023년 약 215만 원에서 2025년 약 268만 원으로 분석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임
- 다만 진료과목별 환자 자료와 외래관광객조사의 국가별 결과가 확보되지 않아, 치료 수요의 세부 구성과 의료관광 참여경로·관광행태는 확인하지 못하였으며, 향후 원자료를 통한 보완 분석이 필요함

□ (러시아) 환자 유치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에 미치지 못하지만, 의료관광의 사전 고려형 참여와 짧은 체류 속 높은 소비강도가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남

○ (규모·성장) 최근 환자 규모는 회복 중이나 코로나19 이전 수준에는 미달함

- 러시아의 외국인환자는 2023년 1만 4,720명에서 2025년 2만 262명으로 약 1.4배 확대되었으나, 2025년 환자 수는 2019년 2만 9,897명의 약 67.8%로 코로나19 이전 규모를 회복하지 못함

○ (참여경로·관광행태) 의료관광 참여가 빠르게 늘며, 현지 참여 중심에서 사전 고려형 중심으로 참여 구조가 바뀜

- 관광목적 방한객의 의료관광 고려율은 2023년 4.7%에서 2025년 25.0%로, 참여율은 13.5%에서 26.1%로 상승하였으며, 뷰티·미용 참여율(10.9% → 17.2%)과 치료·건강검진 참여율(3.4% → 9.5%)이 함께 높아짐
- '고려·참여형'은 2023년 2.7%에서 2025년 20.6%로 증가한 반면 '비고려·참여형'은 10.8%에서 5.5%로 감소하였으며, 의료관광 참여자 중 계획형 비중은 20.0%에서 78.9%로 상승하여 분석 국가 중 참여 구조가 가장 크게 변화함
- 의료관광 참여자의 평균 체류기간은 2023년 18.3일에서 2025년 8.5일로 줄어 2025년에는 비참여자(9.4일)보다 짧아졌으며, 의료관광 외 관광활동 수도 4.4개로 비참여자(5.0개)보다 적음
- 반면 2025년 1인 평균 지출경비는 2,452.53달러로 비참여자(1,379.99달러)의 약 1.78배, 1인 1일 지출경비는 303.29달러로 비참여자(181.32달러)의 약 1.67배로, 짧은 체류 기간에 높은 소비강도를 보임

○ (종합) 환자 수는 회복이 지연되고 있으나, 관광목적 방한객의 의료관광은 사전 계획형 단기 방문

으로 빠르게 전환되는 시장임

- 외국인환자 수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에 미치지 못한 반면, 관광목적 방한객의 의료관광 고려율은 2년간 5배 이상 높아지고 참여자의 체류는 짧아지면서 1일 지출은 크게 높아져, 장기 체류 중 부수적으로 참여하던 형태에서 의료 목적이 뚜렷한 단기 방문으로 변화함
- 다만 의료소비 자료와 진료과목별 환자 자료가 확보되지 않아 실제 의료서비스의 소비구조는 확인하지 못하였으며, 외래관광객조사의 지출경비는 의료비를 포함한 여행 전체 지출이므로 의료비 자체의 규모로 해석할 수 없음

□ (캐나다) 환자 유치와 관광객의 의료관광 참여가 함께 확대되는 장거리 성장시장으로, 현지 참여형 수요가 상대적으로 높은 가운데 미용과 치료 소비가 병존함

○ (규모·성장) 환자 유치가 지속 증가하며 코로나19 이전보다 시장 규모가 크게 확대됨

- 캐나다의 외국인환자 수는 2023년 9,377명에서 2025년 2만 3,624명으로 약 2.5배 증가하였으며, 2025년 환자 수는 2019년 4,996명의 약 4.7배로 코로나19 이전 대비 크게 확대됨

○ (의료수요) 피부과 중심의 미용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검진센터·내과통합 등 건강관리 수요도 꾸준히 확대됨

- 피부과 환자는 2023년 2,619명에서 2025년 1만 3,246명으로 약 5.1배 확대되었으며, 주요 4개 진료과목 중 피부과 비중은 34.4%에서 63.2%로 높아짐
- 검진센터 환자는 1,974명에서 2,837명으로 증가하여 2025년 주요 과목 중 두 번째 규모를 유지하였으며, 내과통합도 1,234명에서 2,160명으로 늘어 건강관리 수요가 안정적으로 이어짐

○ (소비구조) 피부과 중심으로 소비가 재편되며 단가는 상승하였으나, 치료형 소비가 일정 비중을 유지함

- 의료 소비금액은 2023년 119억 원에서 2025년 278억 7천만 원으로 약 2.3배 늘었으나, 전체 시장보다 성장이 더뎌 소비금액 비중은 2.05%에서 1.62%로 낮아짐
- 약국을 제외한 의료기관 건당 소비금액은 2023년 58만 4천 원에서 2025년 77만 5천 원으로 상승하였으나, 전체 외국인 평균(100만 8천 원)보다는 낮은 수준임
- 피부과 소비금액은 28억 1천만 원에서 108억 5천만 원으로 약 3.9배 늘어 2024년 성형외과를 넘어 최대 소비 분야가 되었으며, 의료기관 소비 중 피부과·성형외과 비중은 63.2%에서 75.9%로 상승함
- 치과·대학·종합병원 등 치료·기타 분야는 2025년에도 의료기관 소비금액의 24.1%를 차지하여, 미용 집중 속에서도 치료 수요가 병존함

○ (참여경로·관광행태) 사전 고려 응답 없이 참여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의료관광 참여자는 비참여자보다 체재기간이 길고 지출경비도 높게 나타남

- 외래관광객의 의료관광 참여율은 2023년 13.4%에서 2025년 24.4%로 증가하였으며, 뷰티·미용 참여율(10.4% → 18.3%)과 치료·건강검진 참여율(4.3% → 9.3%)이 함께 높아짐
- 2025년 '비고려·참여형'은 13.1%로 '고려·참여형'(11.3%)보다 높고, 의료관광 참여자 중 계

획형 비중은 46.3%이며, 현지 추가 참여율은 2023년 7.5%에서 2025년 15.5%로 높아짐

- 2025년 의료관광 참여자의 평균 체류기간은 11.5일로 비참여자(9.2일)보다 2.3일 길었으며, 의료관광 외 관광활동 수는 4.7개로 비참여자(4.5개)와 비슷한 수준을 보인 가운데, 1인 평균 지출경비는 2,417.37달러로 비참여자(1,394.92달러)의 약 1.73배, 1인 1일 지출경비는 252.17달러로 약 1.32배임

○ **(종합) 환자 유치와 관광객 참여는 빠르게 늘었으나, 의료소비의 성장 속도와 단가는 상대적으로 낮은 시장임**

- 환자 수(약 2.5배)와 의료관광 참여율(약 1.8배)은 함께 크게 늘었으나, 의료 소비금액(약 2.3배)은 이에 미치지 못해 환자 1인당 카드 소비금액이 약 127만 원에서 약 118만 원으로 낮아지고 시장 내 소비 비중도 하락함
- 유치실적의 검진센터·내과통합, 의료소비의 치과·대학·종합병원, 외래관광객조사의 치료·건강검진 참여가 모두 일정 비중을 유지하여, 세 자료에서 미용과 치료 수요가 병존하는 구조가 일관되게 확인됨
- 현지에서 의료관광 참여를 결정하는 수요가 많고 참여자가 다양한 관광활동을 함께 하여, 방한 중 관광 동선에서의 의료관광 정보 제공이 중요한 시장으로 볼 수 있음

□ (호주) 환자 규모와 의료소비는 확대되었으나 관광목적 방한객의 의료관광 참여율은 낮아진 시장으로, 현지 참여형 수요가 상대적으로 높고 비교적 긴 체류와 다양한 관광활동이 나타남

○ **(규모·성장) 외국인환자 규모는 지속 증가하며 코로나19 이전보다 크게 확대됨**

- 호주의 외국인환자는 2023년 6,660명에서 2025년 2만 6명으로 약 3.0배로 확대되었으며, 2025년 환자 수는 2019년 2,676명의 약 7.5배로, 코로나19 이전보다 크게 확대됨

○ **(소비구조) 의료 소비금액이 2년간 약 2.8배 증가하며 전체 시장 내 비중을 유지하였으며, 피부과와 성형외과가 함께 성장하는 가운데 치과·안과 등 전문진료 소비가 일정 규모를 형성함**

- 의료 소비금액은 2023년 143억 9천만 원에서 2025년 407억 원으로 늘었으며, 전체 외국인 의료소비 중 비중은 2.47%에서 2.36%로 큰 변화가 없음
- 약국을 제외한 의료기관 건당 소비금액은 2023년 69만 2천 원에서 2025년 98만 2천 원으로 상승함
- 피부과 소비금액은 33억 7천만 원에서 175억 1천만 원으로 약 5.2배 늘어 최대 소비 분야가 되었으며, 성형외과도 65억 7천만 원에서 135억 원으로 2배 이상 늘고 건당 금액이 134만 6천 원에서 220만 3천 원으로 높아져, 의료기관 소비의 81.9%가 두 분야에 집중됨
- 치료 분야에서는 치과(27억 4천만 원)와 안과를 포함한 기타(19억 7천만 원)가 2025년 대학·종합병원(17억 7천만 원)을 웃돌아, 치료 수요가 특정 전문진료를 중심으로 형성됨

○ **(참여경로·관광행태) 의료관광 참여율은 낮아졌으나, 참여자는 비교적 긴 체류와 다양한 활동 속에서 의료관광을 이용함**

- 관광목적 외래관광객의 의료관광 참여율은 2023년 20.3%에서 2025년 17.0%로 하락하였으며, 뷰티·미용 참여율(16.5% → 13.5%)과 치료·건강검진 참여율(5.5% → 4.7%)도 모두 낮아짐
- 2025년 '비고려·참여형'은 9.6%로 '고려·참여형'(7.4%)보다 높았으나, 의료관광 참여자 중 계획형 비중은 26.6%에서 43.5%로 상승하고 현지 추가 참여율은 16.6%에서 10.7%로 낮아져 참여경로의 구성이 변화함
- 2025년 의료관광 참여자의 평균 체류기간은 9.9일, 의료관광 외 관광활동 수는 5.2개로 비참여자(9.0일, 4.9개)를 상회하였으며, 1인 평균 지출경비는 1,927.79달러로 비참여자(1,449.81달러)의 약 1.33배, 1인 1일 지출경비는 207.74달러로 비참여자(171.98달러)보다 높아 체류·활동·지출이 함께 높은 특성을 보임

○ **(종합) 환자 수와 의료소비는 같은 방향으로 늘었으나 관광객 참여율은 낮아져, 자료 간 성장 방향이 가장 뚜렷하게 엇갈리는 시장임**
- 외국인환자 수(약 3.0배)와 의료 소비금액(약 2.8배)은 비슷한 속도로 늘었으나 외래관광객 의료관광 참여율은 하락하여, 의료 수요의 확대가 관광객 전반의 참여 확산보다 의료 목적 방한 수요에 기반했을 가능성이 있음
- 환자 1인당 카드 소비금액은 2025년 약 203만 원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여, 규모는 작으나 1인당 지출 측면에서 의미 있는 장거리 시장임
- 다만 진료과목별 환자 자료가 확보되지 않아, 환자 수 확대를 이끈 진료 분야는 확인하지 못함

□ (소결) 한국 의료관광시장은 피부·미용 중심의 양적 성장이라는 공통 흐름 속에서도 국가별로 의료수요와 소비구조, 참여경로와 관광행태가 다르게 나타나, 환자 유치 규모만으로는 시장의 가치를 충분히 설명하기 어려움

○ **(시장구조) 외국인환자와 의료소비의 성장은 피부·미용 분야에 집중되어 있으나, 같은 미용 중심 시장에서도 소비강도와 치료 수요의 비중은 국가별로 크게 다름**
- 2025년 약국을 제외한 의료기관 소비금액의 84.6%가 피부과·성형외과에서 발생하였으며, 의료기관 건당 소비금액은 2023년 66만 5천 원에서 2025년 100만 8천 원으로 높아져, 시장 전반의 성장이 미용 분야의 규모 확대와 단가 상승에 의해 이루어짐
- 그러나 피부과 건당 소비금액은 중국 223만 4천 원, 대만 159만 원, 미국 110만 4천 원, 일본 65만 원으로 최대 약 3.4배 차이를 보여, 일본은 다빈도·소액형, 중국·대만·인도네시아는 고액 집중형으로 미용 시장 내에서도 소비 성격이 구분됨
- 미국·캐나다·호주·중동은 피부·미용과 함께 검진·내과·치과 등 치료·건강관리 수요가 일정 비중을 유지하는 병존형이며, 몽골·카자흐스탄은 대학·종합병원 중심의 치료형 시장으로, 카자흐스탄은 2025년 의료기관 소비금액의 78.9%가 대학·종합병원에서 발생함
- 베트남은 고액 성형외과 소비가 줄고 치료 분야로 소비가 이동하면서 의료기관 건당 소비금액이 낮아진 유일한 시장으로, 시장 확대가 곧 단가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는 사례임

○ **(소비 밀도) 의료관광 참여자는 체류기간과 관광활동이 비참여자와 큰 차이가 없음에도 지출 수준이 높아, 의료관광은 '더 오래 머무는 관광'보다 '같은 일정에서 더 많이 소비하는 관광'으로서 가치가 확인됨**

- 베트남을 제외한 대부분 국가에서 의료관광 참여자의 1인 평균 지출경비는 비참여자의 약 1.3~2.0배이며, 몽골·중동은 약 2배로 가장 큰 차이를 보임
- 환자 1인당 카드 소비금액도 카자흐스탄(약 268만 원), 호주(약 203만 원) 등 환자 규모가 작은 시장에서 높게 나타나, 규모가 작은 시장도 지출 측면에서 의미 있는 가치를 가짐
- 2025년 국제교통비 제외 기준으로 '고려·미참여형'의 1인 1일 평균 지출경비는 271.9달러로, 분석대상 전체 평균인 242.8달러를 상회함. 의료관광 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집단에서도 높은 지출이 관찰된 만큼, 집단 간 지출 차이를 해석할 때에는 여행 목적과 일정, 소비 성향 등 집단 구성의 차이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관광 연계) 의료관광 참여자의 높은 지출 수준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확인되었으나, 지출이 발생하는 방식과 체류기간·관광활동 간의 관계는 국가별로 차이를 보임**

- 일본·중국·대만 등은 의료서비스를 중심으로 짧은 일정에서 높은 지출이 이루어지는 반면, 미국·싱가포르·태국 등은 비교적 긴 체류와 다양한 관광활동이 함께 나타나는 특성을 보임
- 몽골·중동은 의료관광 참여율과 참여자의 지출 수준이 높아 의료서비스 이용에 대한 높은 관여도가 확인되지만, 의료관광 외 관광활동 확대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임
- 베트남은 긴 체류와 다양한 활동에도 불구하고 지출 수준이 높지 않아, 의료관광 참여의 확대가 곧 관광소비의 확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님을 보여줌

○ **(참여경로) 사전 계획형 참여가 확대되는 공통적인 변화 속에서도 국가별 고려·참여 유형의 구성이 달라 의료관광 수요 확대를 위한 정보 제공과 관광 연계 시점을 차별화할 필요가 있음**

- 일본·중국은 사전 계획형, 몽골·중동은 계획형과 현지 참여가 모두 활발한 고관여형으로, 방한 전 의료서비스 예약과 관광 일정을 함께 설계할 수 있는 정보 제공이 중요함
- 러시아는 의료관광 참여자 중 계획형 비중이 2023년 20.0%에서 2025년 78.9%로, 미국은 52.8%로 높아져 사전 계획형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음
- 반면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캐나다·호주는 '비고려·참여형'이 '고려·참여형'보다 많아(캐나다 13.1% vs 11.3%, 호주 9.6% vs 7.4%), 방한 중 관광 동선에서 의료서비스 정보를 접하고 선택할 기회를 넓히는 것이 중요함

○ **세 자료에서 나타나는 시장의 위상이 국가별로 달라, 단일 지표가 아닌 자료 간 연계를 통해 시장을 평가할 필요가 있음**

- 싱가포르·말레이시아는 환자 유치, 의료소비, 관광객 참여 모두에서 성장이 일관되게 나타나는 반면, 중국·대만은 환자와 소비 규모에 비해 관광객의 의료관광 참여 성향이 상대적으로 낮음
- 몽골·중동·카자흐스탄은 환자 규모보다 1인당 지출과 참여 측면의 위상이 높으며, 호주는 환자 수(약 3.0배)와 의료 소비금액(약 2.8배)이 늘었음에도 관광목적 방한객의 참여율은 20.3%에서 17.0%로 낮아져 자료 간 방향이 엇갈림

- 이는 환자 유치실적이 의료 목적 방한 수요를, 외래관광객조사가 일반 관광객의 참여 수요를 반영하는 등 자료별 포착 대상이 다르기 때문으로, 시장 평가 시 각 자료의 특성을 함께 고려해야 함

○ **(종합) 의료관광은 높은 소비 밀도를 통해 인바운드 관광의 질적 성장에 기여할 수 있으나, 그 효과를 높이려면 시장 유형에 맞는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함**

- (미용 집중 핵심시장: 중국·일본·대만) 피부·미용 수요의 고단가화와 재방문을 유도하고, 짧은 일정 속 의료 지출이 쇼핑·식음 등 비의료 관광소비로 이어지도록 연계 상품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현지 참여형 성장시장: 동남아·캐나다·호주) 공항·주요 관광지·숙박시설 등 방한 중 접점에서의 의료서비스 정보 제공과 예약 편의를 높여 참여 저변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치료·건강관리 중심 시장: 몽골·카자흐스탄·중동, 병존형 미국) 대학·종합병원 중심의 전문 진료 경쟁력과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동반자 관광과 회복기 체류 프로그램으로 의료 이용 외 관광소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방한 전 정보 탐색·예약, 체류 중 의료·관광 이용, 귀국 후 사후관리까지 이어지는 전 과정을 연계하여, 의료관광을 환자 유치 규모 중심의 성장 분야에서 방한객 1인당 지출을 높이는 인바운드 관광의 전략 분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

〈표 60〉 국가별 의료관광 시장 유형

국가	유형	특성
중국	고단가 미용 중심 복합수요 시장	- 최대 환자 유치시장으로 피부과가 증가를 주도하며 내과·검진 수요도 함께 증가 - 소비는 피부·성형에 집중되며 피부과 건당 소비금액이 분석 국가 중 가장 높음(223만 4천 원) - 사전 계획형 참여가 중심이며 짧은 체류 속 1일 지출이 높음
일본	대규모 미용 집중·계획형 소비시장	- 환자 유치 2위의 핵심시장이나 최근 증가율과 시장 비중은 하락 - 피부과 중심의 다빈도·소액 소비구조(피부과 건당 65만 원) - 사전 계획형 비중이 높고 짧은 체류 속 미용 중심 의료관광이 이루어짐
대만	급성장·고액화 미용 특화 시장	- 피부과 환자의 급증이 성장을 주도 - 피부과 건당 소비금액이 159만 원으로 고액화가 뚜렷함 - 관광객 전반의 참여율은 낮으나 참여자의 지출 수준은 지속 상승
미국	대규모 미용·치료 병존 시장	- 안정적인 환자 증가와 함께 피부과·내과·검진 수요가 함께 확대 - 최대 의료소비 시장으로 미용과 치료 소비가 병존 - 계획형 비중이 52.8%로 높아졌으며, 비교적 긴 체류와 다양한 관광활동을 동반
태국	미용소비 재편·관광활동 결합 시장	- 환자와 관광객 참여에서 진료 분야가 함께 다변화 - 최대 소비 분야가 성형외과에서 피부과로 이동 - 높은 의료관광 전환율과 함께 관광활동과 결합된 참여가 나타
싱가포르	동남아 고성장·참여 확대 시장	- 환자 규모는 작으나 고성장 - 피부과 주도로 소비가 빠르게 증가 - 계획형 비중 52.4%, 세 자료 모두에서 성장이 일관된 시장
인도네시아	고액 성형 중심 신흥시장	- 환자 규모는 작으나 빠르게 성장하는 신흥시장 - 성형외과 중심으로 의료기관 건당 소비금액이 가장 높음(202만 8천 원) - 방한 후 현지에서 참여를 결정하는 현지 참여형이 우세
말레이시아	동남아 성장·현지 참여 시장	- 환자와 의료소비가 함께 증가하는 성장시장 - 피부·미용 중심의 소비구조 - 현지 참여형 비중이 높으며 세 자료 모두에서 성장이 일관됨
캐나다	장거리 미용·치료 병존 시장	- 환자 수가 2년간 약 2.5배 증가했으며, 피부과 급증 속 검진·내과 수요가 유지됨 - 피부과 중심으로 재편되었으나 치료·기타 소비가 24.1%를 유지 - 현지 참여형이 우세하며 참여자의 관광활동이 다양함
호주	장거리 의료목적 성장시장	- 환자(약 3.0배)와 의료소비(약 2.8배)가 함께 크게 증가 - 피부·성형이 81.9%를 차지하며 치과·안과 등 전문진료 소비가 일정 규모를 형성 - 관광객 참여율은 하락(20.3% → 17.0%)했으나, 참여자는 긴 체류·다양한 활동을 보임
몽골	치료 기반·고관여 복합수요 시장	- 전통적 유치시장으로 절대 규모는 크나 성장 속도는 낮음 - 대학·종합병원 중심의 치료 소비 위에 내과·성형·피부 소비가 확대 - 고관여형 참여이며 체류 9.5일, 지출이 비참여자의 약 2배
베트남	치료 전환·저지출 연계 시장	- 피부·성형 중심에서 치료 분야로 수요가 이동 - 고액 성형 소비가 줄며 의료기관 단가가 하락한 유일한 시장 - 긴 체류·다양한 활동에도 참여자와 비참여자의 지출 차이가 작음
카자흐스탄	치료 중심 고단가 시장	- 환자 증가(약 1.3배)는 완만하나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 - 대학·종합병원이 의료기관 소비의 78.9%를 차지 - 환자 1인당 카드 소비금액이 약 268만 원으로 가장 높은 수준
러시아	회복 지연·계획형 전환 시장	- 환자 수는 코로나19 이전의 67.8% 수준으로 회복 지연 - 의료관광 고려율 4.7% → 25.0%, 계획형 비중 20.0% → 78.9%로 급증 - 짧은 체류 속 높은 1일 지출(비참여자의 약 1.67배)
중동	치료 기반 미용 확대·고소비 시장	- 내과 수요가 유지되는 가운데 피부과·성형외과·한방 수요가 확대 - 피부·성형이 73.6%를 차지하나 치료 소비도 병존 - 고관여형 참여이며 체류 9.8일, 지출이 비참여자의 약 2배로 최상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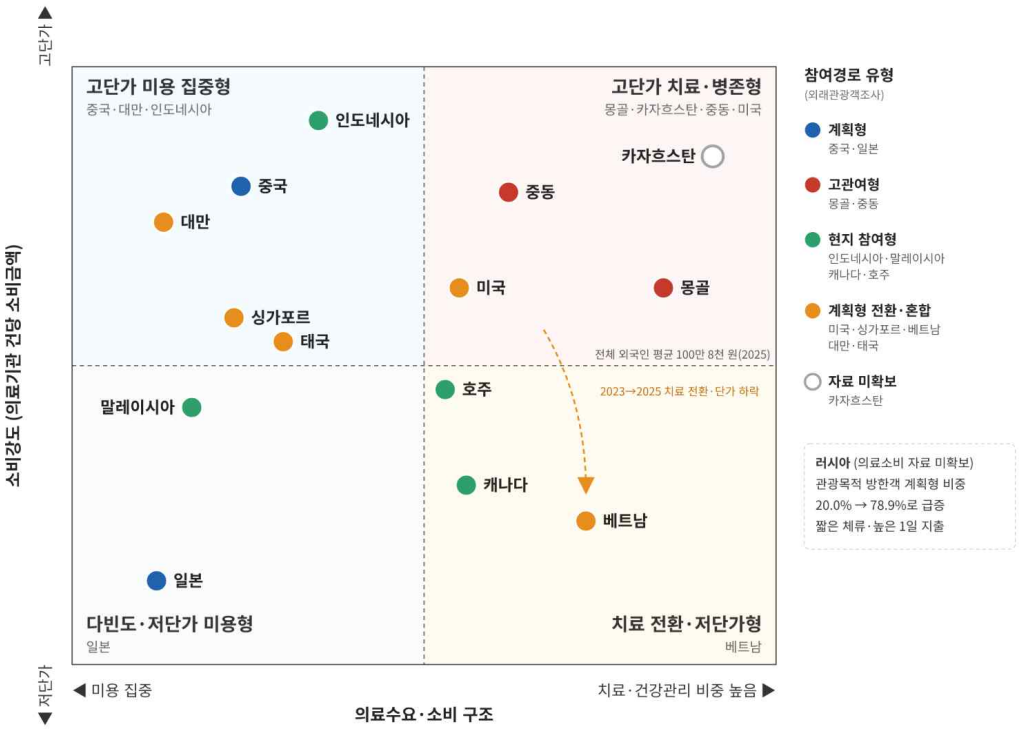
자료: 연구진 작성

□ 국가별 의료수요·소비구조와 소비강도, 참여경로를 함께 놓고 보면, 한국 의료관광시장은 네 개의 유형으로 구분되며 같은 유형 안에서도 의료관광의 참여 방식은 서로 다르게 나타남

○ (구분 기준) 가로축은 의료수요와 소비가 피부·미용에 집중되는 정도를, 세로축은 의료기관 건당 소비금액으로 본 소비강도를 나타내며, 각 국가의 의료관광 참여경로 유형을 색으로 함께 표시함

- 가로축은 3장 진료과목별 환자와 4장 진료과목별 소비구조를 바탕으로 왼쪽일수록 미용 집중, 오른쪽일수록 치료·건강관리 비중이 높은 시장을 의미함
- 세로축은 의료기관 건당 소비금액 등을 종합한 상대적 소비강도를 의미함
- 국가별 위치는 세 자료의 분석 결과를 종합한 상대적 위치로, 정량적인 좌표값은 아님

* 외국인환자 유치실적의 진료과목, 의료소비 구조·건당 소비금액, 외래관광객조사의 참여경로 결과를 종합한 상대적 위치를 나타낸 개념도로, 좌표는 정량값이 아님. 카자흐스탄은 외래관광객조사 표본 부족으로 참여경로를 분석하지 않았으며, 러시아는 의료소비 자료 미확보로 제외함



[그림 16] 국가별 의료관광 시장 포지셔닝

자료: 연구진 작성

○ (고단가 미용 집중형) 중국·대만·인도네시아는 피부·미용에 집중된 수요가 높은 소비강도로 이어지는 시장임

- 의료기관 건당 소비금액은 인도네시아(202만 8천 원)와 중국(194만 7천 원)이 분석 국가 중 가장 높았으며, 대만도 피부과 건당 소비금액이 159만 원으로 고액화가 뚜렷함
- 다만 참여경로는 중국이 사전 계획형, 인도네시아가 현지 참여형, 대만이 혼합형으로 서로

달라, 같은 고액 미용 시장이라도 의료관광 정보를 제공해야 할 시점이 다름

- 싱가포르·태국도 미용 중심의 소비구조를 보이며 이 유형에 가깝게 위치함

○ **(다빈도·저단가 미용형) 일본은 미용 집중도가 가장 높으나 소비강도는 낮은 시장임**

- 피부과 건당 소비금액이 65만 원으로 중국의 약 3분의 1 수준이며, 의료기관 건당 소비금액도 전체 평균을 크게 밑돌아, 소액 시술을 자주 이용하는 소비 특성을 보임
- 사전 계획형 참여가 중심이고 체류가 짧아, 규모는 크지만 1회 방문의 소비 확대보다 재방문을 통한 누적 소비가 중요한 시장임
- 말레이시아도 미용 중심이면서 소비강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위치에 있음

○ **(고단가 치료·병존형) 몽골·카자흐스탄·중동·미국은 치료·건강관리 수요가 일정 비중을 유지하면서 소비강도도 높은 시장임**

- 몽골·카자흐스탄은 대학·종합병원 중심의 치료형 소비가 중심이며, 카자흐스탄은 2025년 의료기관 소비금액의 78.9%가 대학·종합병원에서 발생함
- 중동은 피부·성형 비중(73.6%)이 높으나 내과 등 치료 수요가 유지되는 병존 구조이고, 미국은 미용과 치료 소비가 함께 나타나는 최대 의료소비 시장임
- 몽골·중동은 의료관광 참여자의 체류가 9.5일, 9.8일로 길고 지출이 비참여자의 약 2배에 이르는 고관여형으로, 의료 이용이 방한의 핵심 목적임

○ **(치료 전환·저단가형) 베트남은 치료 쪽으로 수요가 이동하면서 소비강도는 낮아진 시장임**

- 2023년 대비 2025년 고액 성형외과 소비가 줄고 치료 분야 비중이 커지면서, 분석 국가 중 유일하게 의료기관 건당 소비금액이 하락함
- 의료관광 참여자의 체류와 관광활동은 많지만 비참여자와의 지출 차이가 작아, 참여 확대가 곧 소비 확대로 이어지지 않는 시장임
- 캐나다·호주도 미용과 치료가 병존하나 의료기관 건당 소비금액(77만 5천 원, 98만 2천 원)이 평균보다 낮아 이 영역에 위치하며, 두 국가 모두 현지 참여형 비중이 높음

7. 시사점 및 한계

□ (연구의 의의) 본 연구는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외국인 의료소비, 외래관광객조사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한국의 의료관광시장의 양적 성장뿐 아니라 국가별 소비구조와 관광 특성을 파악하고, 인바운드 관광의 질적 성장을 위한 전략적 활용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기존의 외국인환자 수와 진료과목별 유치실적 중심의 시장 분석을 넘어, 실제 의료소비 규모와 강도, 의료관광 참여경로 및 관광행태를 함께 분석함으로써 국가별 시장의 차별적 특성을 도출함

- 외국인환자 유치 규모가 큰 국가가 반드시 의료소비 규모나 소비 강도도 높은 것은 아니며, 동일한 피부·미용 중심 시장에서도 국가별 소비단가와 참여행태에 차이가 나타남
- 또한, 의료관광 참여자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비참여자보다 높은 지출 수준을 보였으나, 높은 지출이 체류기간 연장이나 다양한 관광활동으로 반드시 이어지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한국 의료관광 시장의 성장과 경제적 가치를 단일 지표로 판단하기 어렵고, 의료서비스 이용과 일반 관광의 연계 특성을 함께 고려해야 함을 보여줌

○ 특히 국가별 시장 규모와 성장성, 의료수요, 소비구조, 참여경로 및 관광행태를 종합하여 국가별 시장 특성을 구분하고, 이를 바탕으로 차별화된 정책 방향을 제시함

- 의료관광은 신규 방한 수요와 높은 소비를 창출할 수 있는 전략 분야이지만, 국가별로 의료서비스 이용 목적과 소비 특성, 관광과의 연계 수준이 다르므로 획일적인 유치 전략보다 시장별 특성에 따른 접근이 요구됨

□ (핵심시장 고도화와 후속시장 육성을 통한 의료관광 수요 기반 다변화) 한국 의료관광시장은 중국·일본·대만·미국과 피부과를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하였으나, 특정 국가와 진료과목에 대한 집중도가 높아지고 있어 기존 핵심시장의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후속시장과 치료·건강관리 수요를 함께 확대할 필요가 있음

○ 한국 의료관광시장은 핵심시장의 피부·미용 수요를 동력으로 급성장하였으나, 성장의 상당 부분이 특정 국가와 진료과목에 집중되어 있어 외부 환경 변화에 취약한 구조를 보임

- 외국인환자는 2023~2025년 약 3.3배 증가하였으나 증가분의 84.5%가 중국·일본·대만·미국에서 발생하였으며, 4개국의 시장 비중은 64.3%에서 78.4%로 상승함
- 같은 기간 진료과목별 환자 증가분의 76.2%가 피부과에서 발생하였고, 피부과 증가분의 84.2%가 다시 4개국에서 나타나, 국가 집중과 진료과목 집중이 '핵심시장의 피부과 수요'라는 하나의 흐름으로 중첩되어 있음
- 의료소비에서도 피부과·성형외과가 전체 소비금액의 78.4%를 차지하여, 환자 유치와 소비 모두 동일한 수요에 의존하는 구조가 확인됨
- 특히 최대 시장 중 하나인 일본은 2025년 증가율이 36.0%로 전체(71.9%)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시장 비중도 2024년 37.7%에서 2025년 29.8%로 하락하여, 핵심시장의 성장이 지속적으로 유지된다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핵심시장과 피부·미용 수요는 현재의 성장 기반으로 유지·고도화하되, 후속시장과 치료·건강관리 수요를 새로운 성장축으로 확보하여 수요 기반을 다층화할 필요가 있음

○ **(핵심시장 고도화) 핵심시장은 규모 확대보다 소비 단가 제고와 관광 연계 강화를 통한 질적 성장으로 전략의 중심을 전환할 필요가 있음**

- 일본은 피부과 건당 소비금액이 65.0만 원으로 중국(223.4만 원)과 대만(159.0만 원)보다 낮은 다빈도·소액 소비구조이며, 사전 계획형 참여 비중(83.9%)이 높은 성숙 시장임. 재방문 수요를 관리하는 동시에, 소비금액(31억 원 → 80억 원)과 건당 소비금액(66.0만 원 → 94.2만 원)이 함께 증가한 치과 등 고부가 진료 분야로 수요를 넓혀갈 필요가 있음
- 중국은 내과통합·검진센터 환자가 2023년 2만 3,471명에서 2025년 6만 1,336명으로 증가하였으나, 대학·종합병원 소비금액은 52억 원 수준에서 정체되어 치료 수요가 소비로 충분히 이어지지 못함. 검진·치료와 미용을 결합한 통합 상품을 개발하고, 카드 외 결제 비중이 높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실제 이용 실태를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음
- 대만은 의료 소비금액이 2년간 18.5배 증가하였으나 방한객의 의료관광 참여율은 11.3%이고 '비고려·미참여형'이 85.3%에 달해, 소수 고관여층에 의존한 성장단계임. 일반 외래관광객을 대상으로 의료관광 인지도를 높여 참여 저변을 확대할 여지가 큼
- 핵심시장의 '고려·참여형'은 평균 5.7일의 짧은 체류 동안 1인 1일 366.9달러를 지출하는 단기 집중소비 특성을 보이므로, 시술 전후 회복기간과 연계한 숙박·관광 상품을 통해 체류 연장과 관광 소비 확대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 **(후속시장 육성) 동남아시아와 장거리 시장을 핵심시장을 보완하는 전략시장으로 육성하되, 현지 결정형 참여 특성에 맞는 접근이 필요함**

- 싱가포르(2만 6,666명 → 4만 3,222명), 인도네시아(1만 388명 → 2만 1,257명), 말레이시아(5,843명 → 1만 2,086명)는 2024~2025년 환자 수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캐나다·호주는 2025년 합계 4.4만 명으로 2019년 대비 5.7배 증가하여 전체 시장(4.0배)을 상회함
- 싱가포르는 의료 소비금액이 2년간 약 3.7배 증가하고 전체 소비금액 비중도 4.33%에서 5.36%로 상승하여, 핵심 4개국 외 시장 중 경제적 기여도가 뚜렷하게 커지고 있음
- 이들 시장은 의료관광 참여자 중 계획형 비중이 절반 미만(인도네시아 43.0%, 말레이시아 48.4%, 캐나다 46.3%, 호주 43.5%)이고 현지 추가 참여율(인도네시아 15.1%, 캐나다 15.5%, 말레이시아 13.4%)이 전체(7.7%)보다 높아, 방한 후 현지에서 의료관광을 결정하는 수요가 많음
- 따라서 관광안내센터, 숙박시설, 주요 쇼핑·관광권역 등 방한 중 동선 내 접점에서 의료관광 정보를 제공하고 이용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방한 전 단계의 인지도 제고를 통해 현지 참여 수요를 사전 계획 수요로 전환해 나갈 필요가 있음
- 다만 후속시장 역시 피부과 수요 비중이 높아 유치 국가의 확대가 진료수요의 다변화로 이어

지지 못하고 있으므로, 국가 다변화와 진료과목 다변화를 함께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치료·건강관리 수요 확대) 치료·건강관리 수요는 비중은 낮아졌으나 절대 규모와 관심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피부·미용에 이은 두 번째 성장축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음**

- 외래관광객의 치료·건강검진 고려율은 2023년 4.1%에서 2025년 7.0%로 약 70.7% 증가하여 뷰티·미용보다 빠르게 상승하였으며, 참여율도 4.2%에서 7.3%로 확대됨
- 의료소비에서도 대학·종합병원 소비금액이 874억 원에서 1,220억 원으로 39.6% 증가하였으며, 치과·안과 소비도 함께 확대되어 치료형 소비의 절대 규모는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음
- 국가별로는 몽골(치료·건강검진 참여율 21.5%)과 중동(18.8%)이 치료·건강관리 목적의 고관여 시장이며, 카자흐스탄은 대학·종합병원이 소비금액의 약 75%를 차지하고, 몽골은 안과 소비 비중이 9.73%에서 17.52%로 상승하는 등 치료 중심의 고액 소비가 이루어짐. 미국 역시 내과통합·검진센터 수요가 피부·미용과 함께 증가하는 균형형 시장임
- 반면 내과통합·검진센터의 진료과목별 비중은 하락하였으며, 신경외과·소아청소년과·정형외과·산부인과·이비인후과 등은 2025년에도 2019년 환자 규모를 회복하지 못하여, 전체 시장의 확대가 치료 분야 전반의 회복으로 이어지지는 못함
- 이에 따라 건강검진·치료와 관광을 결합한 체류형 상품, 귀국 후 사후관리까지 연계한 서비스 체계, 대학·종합병원의 국제진료 역량 강화 등을 통해 치료·건강관리 수요를 실질적인 유치와 소비로 연결할 필요가 있음

○ **(외래관광객의 의료관광 참여 기반 확대) 의료관광을 방한 관광의 부수 활동이 아닌, 방한 수요를 창출하고 관광 소비를 확대하는 유치 수단으로 위치시킬 필요가 있음**

- 2025년 관광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한 외래관광객 약 5명 중 1명(19.5%)이 의료관광에 참여하였으며, 참여자 중 방한 전부터 의료관광을 고려한 계획형 비중이 61.4%에서 67.7%로 상승하여 의료관광이 방한 동기로 작동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음
- 의료관광 참여자의 1인 평균 지출경비는 베트남을 제외한 주요 국가에서 비참여자의 1.3~2.0배로 나타나, 의료관광 참여 확대는 방한 관광의 소비 규모를 확대할 수 있음을 시사함
- 사전 고려를 동반한 참여가 많은 시장에서는 방한 전 의료서비스와 주변 관광 정보를 함께 제공하고, 사전 고려 응답 없이 참여한 비중이 큰 시장에서는 숙박시설과 관광 안내 채널을 통한 정보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의료관광의 높은 소비를 관광소비 확대로 연결하기 위한 전후방 연계 강화) 의료관광 참여자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비참여자보다 높은 지출 수준을 보였으나, 높은 지출이 체류기간 연장이나 관광활동 확대로 반드시 이어지지는 않아 의료서비스 이용 전후의 일반 관광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의료관광 참여자는 비참여자보다 뚜렷하게 높은 지출 수준을 보이나, 체류기간과 의료관광 외 관광활동 수에서는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음

- 이는 의료관광 참여자의 높은 지출이 체류 연장이나 관광활동의 다양화를 통해서라기보다,

동일한 체류기간 내 의료 관련 지출의 집중을 통해 발생하고 있음을 시사함

- 특히 사전 계획형 시장(일본·중국 등)은 짧은 체류 동안 의료서비스 이용을 중심으로 일정이 구성되어, 의료관광이 '관광 속의 의료'보다 '의료 중심의 단기 방문'에 가까운 형태로 나타남
- 의료관광 참여 확대가 곧 관광 소비 확대로 이어진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의료 이용 전후의 관광 수요를 의도적으로 연결하는 정책적 장치가 필요함

○ **반면 사전 계획 없이 방한 중 의료관광에 참여한 집단은 의료관광과 일반 관광을 함께 소비하는 특성을 보여, 관광연계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음**

- 의료관광을 관광 일정과 분리된 활동이 아닌 관광 경험의 일부로 설계할 때, 높은 지출과 긴 체류·다양한 활동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음을 시사함

○ **(전방 연계) 방한 전 의료관광을 계획하는 단계부터 관광 일정이 함께 구성되도록 의료와 관광의 결합 상품 및 정보 제공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의료기관 예약 단계에서 숙박·교통·관광 프로그램을 함께 안내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의료관광 플랫폼과 일반 관광 정보 채널을 연계할 필요가 있음
- 특히 계획형 비중이 높은 일본·중국·몽골·중동 등은 방한 전 의사결정 단계가 중요한 만큼, 의료서비스 정보와 함께 의료기관 주변 관광자원, 체류 일정 예시 등을 제공하여 의료 중심 일정에 관광 일정을 추가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 의료관광객의 동반자를 대상으로 한 관광 프로그램을 함께 제공하여, 의료 이용 기간 동안 동반자의 관광 소비를 확대할 수 있음

○ **(후방 연계) 시술·진료 이후의 회복기간과 사후관리 단계를 관광 체류로 연결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피부·미용 시술 이후의 회복기간에 참여할 수 있는 웰니스, 미식, 문화체험, 쇼핑 등 저강도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체류 연장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 건강검진·치료 목적의 방문객에게는 검진 결과 확인, 추가 진료 등 의료 일정 사이의 대기 기간을 활용한 관광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 사후관리 및 재진 방문을 재방문 관광 수요로 연결하여, 일회성 의료 방문을 반복적인 방한 관광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의료서비스 이용 전후의 관광 연계 강화) 국가별 의료수요와 소비 강도, 체류기간 및 관광활동의 차이를 고려하여 의료관광시장별 정책 목표를 구분하고, 사전 고려 여부에 따른 참여 특성을 반영하여 정보 제공과 관광 연계 방식을 차별화할 필요가 있음

○ 의료관광 참여자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비참여자보다 높은 지출을 보이나, 그 지출이 나타나는 방식은 국가별로 뚜렷하게 구분됨

- 모든 시장에 체류 연장이나 고가 상품 공급과 같은 단일한 목표를 적용하기보다, 단기 고소비

시장은 경험의 다양성을, 체류형 시장은 체류의 경제적 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시장별 관광 연계의 목표를 달리 설정할 필요가 있음

○ **(단기 고소비형) 중국·일본·대만처럼 체류기간이 짧거나 비참여자와 유사한 시장에서는 숙박일수 증가보다 관광활동의 추가와 비의료 소비 확대를 우선 목표로 설정함**

- 2025년 중국 의료관광 참여자는 평균 5.8일 체류하며 관광활동 3.2개에 참여하여 비참여자(5.6일, 3.2개)와 유사하나, 1인 1일 지출경비는 438.69달러로 비참여자(249.40달러)의 약 1.8배이며 주요국 중 가장 높음
- 일본 참여자 역시 체재기간(3.7일)은 비참여자와 같고 관광활동 수(3.1개)는 비참여자(3.3개)보다 적으나, 1인 평균 지출경비는 약 1.5배 높으며, 대만도 관광활동 수(3.8개)가 비참여자(3.9개)와 유사한 가운데 지출만 약 1.46배 높음
- 방문 전 예약 안내에 의료기관 주변 관광 정보를 함께 제공하여, 관광객이 진료 일정과 관광 일정을 동시에 계획할 수 있도록 함
- 짧은 일정에 맞춘 식음·문화체험·쇼핑·휴식 프로그램을 구성하되, 진료 전후 이용 가능한 시간과 이동거리를 명확하게 제시함

○ **(체류형 복합관광) 미국·싱가포르·태국처럼 비교적 긴 체류와 다양한 활동이 나타나는 시장은 기존 일정 안에서 의료관광과 관광서비스의 연결을 강화함**

- 2025년 미국 의료관광 참여자는 평균 9.4일 체류하며 관광활동 4.9개에 참여하여 비참여자(8.7일, 4.7개)를 상회하였으며, 1인 평균 지출경비도 비참여자의 약 1.41배로 나타남
- 싱가포르(7.7일, 4.2개)와 태국(7.1일, 4.3개)도 참여자의 체재기간과 활동 수가 비참여자보다 높고, 1인 평균 지출경비는 각각 비참여자의 약 1.56배로 나타남
- 이들 시장은 계획형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거나 현지 추가 참여가 활발하여, 이미 계획된 관광 일정 속에 의료관광이 더해지는 경우가 많음
- 관광 일정과 충돌하지 않는 예약·이동 안내를 제공하고, 진료가 없는 날짜에 이용할 수 있는 관광 프로그램을 연계함
- 숙박업체와 협력하여 진료 일정 변경에 대응할 수 있는 체류 지원을 마련하고, 동반자의 관광 수요도 함께 반영함

○ **(고관여 의료목적형) 몽골·중동·러시아처럼 의료 이용이 방한의 핵심 목적인 시장은 의료 일정을 중심으로 회복·대기 기간과 재방문을 관광으로 연결함**

- 2025년 몽골 참여자의 1인 평균 지출경비는 2,011.27달러로 비참여자(1,006.05달러)의 약 2.0배이나, 체재기간(9.5일)과 관광활동 수(3.8개)는 비참여자(9.3일, 4.0개)와 유사함
- 중동 참여자도 1인 평균 지출경비가 2,914.61달러로 주요국 중 가장 높으나 관광활동 수(4.2개)는 비참여자(4.9개)보다 적으며, 러시아는 계획형 참여가 확대되는 동안 참여자의 체재기간이 2023년 18.3일에서 2025년 8.5일로 크게 줄어듦
- 진료·검진 사이의 대기 기간과 시술 이후 회복기간에 참여할 수 있는 저강도 관광·웰니스 프로그램을 의료 일정과 함께 안내함

- 치료·건강검진 수요가 높은 특성을 고려하여 환자 동반 가족의 관광 프로그램을 연계하고, 사후관리 및 재진 방문을 재방문 관광으로 연결함

○ (장기체류·저지출형) 베트남처럼 긴 체류에도 일평균 소비가 낮은 시장은 고가 상품 공급보다 실제 선호 활동과 소비 제약을 파악하여 참여 가능한 관광 경험을 구성함

- 2025년 베트남 의료관광 참여자는 평균 9.4일 체류하며 관광활동 5.1개에 참여하여 비참여자(5.9일, 4.6개)보다 크게 높으나, 1인 1일 지출경비는 193.47달러로 비참여자(241.23달러)보다 낮음
- 의료관광 참여가 지출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 예외적 시장으로, 지인·가족 방문 등 방한 목적과 숙박 형태, 소비 여력 등 체류 특성에 대한 추가 분석이 필요함
- 합리적인 가격대의 체험형 관광상품과 의료관광 정보를 연계하여, 긴 체류기간 동안의 관광 참여를 소비로 이어지게 할 필요가 있음

□ (연구의 한계) 본 연구는 의료관광 관련 세 가지 데이터를 상호 보완적으로 활용하여 국가별 시장 특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으나, 자료별 조사대상과 집계 단위가 다르고 의료관광과 일반 관광 간 직접적인 소비 연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해석에 일정한 한계가 있음

○ (자료 간 대상·기준 차이) 세 자료는 조사대상과 집계 단위가 서로 달라, 같은 국가라도 자료 간 결과를 직접 비교하거나 합산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외국인환자 유치실적은 의료기관에 등록된 환자 수, 의료소비 데이터는 해외 발급 카드의 결제 실적, 외래관광객조사는 관광목적 방한객의 표본 응답을 기준으로 하여, 각각 의료 목적 방한객, 카드 이용자, 일반 관광객이라는 서로 다른 집단을 반영함
- 의료소비 데이터는 카드 결제만 포함하므로 현금·해외 간편결제·사전 송금 등의 비중이 높은 국가는 실제 의료소비가 과소 집계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카드 발급 국가를 기준으로 하여 관광객과 단기 체류자를 구분하기 어려움
- 세 자료는 개인 단위로 연결되지 않아, 동일한 방문객의 의료 이용과 소비, 관광행태를 하나의 흐름으로 확인하지 못함

○ (분석 범위와 기간) 자료별로 확보 가능한 국가와 항목이 달라, 일부 국가는 세 자료를 모두 활용한 종합 분석이 어려움

- 카자흐스탄은 외래관광객조사 표본이 부족하여 참여경로와 관광행태를 분석하지 못하였으며, 러시아는 의료소비 자료가 확보되지 않아 소비구조를 분석하지 못함
- 진료과목별 외국인환자 자료는 일부 국가에 대해서만 제시되어, 호주·카자흐스탄 등은 환자 수 증가를 이끈 진료 분야를 확인하지 못함
- 외래관광객조사의 국가별 표본이 크지 않은 국가는 연도별 변동이 크게 나타날 수 있으며, 2025년 결과는 잠정치를 활용하여 확정치 공표 후 수치가 일부 달라질 수 있음
- 분석 기간이 2023~2025년으로 짧고 코로나19 이후 회복기와 겹쳐, 일부 국가의 높은 증가

율에는 기저효과가 반영되어 있을 수 있음

○ (지출과 가치의 해석) 본 연구에서 의료관광의 '가치'는 방한객의 지출 수준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생산·고용·부가가치 등 경제적 파급효과를 추정한 것은 아님

- 외래관광객조사의 지출경비에는 의료비가 포함되어 있어, 의료관광 참여자의 높은 지출 중 의료비와 숙박·쇼핑·식음 등 일반 관광소비를 구분하지 못함
- 의료관광을 고려하였으나 참여하지 않은 관광객도 지출 수준이 높게 나타나, 참여자와 비참여자의 지출 차이에는 의료관광 자체의 영향뿐 아니라 여행 성향과 소비 여력의 차이가 함께 반영되어 있을 수 있음
- 따라서 의료관광 참여와 지출 수준 간의 관계는 상관관계로 해석해야 하며, 의료관광 참여가 관광소비를 증가시킨다는 인과적 효과로 단정하기는 어려움

○ (참여경로 지표의 해석) 의료관광의 고려·참여 여부는 설문 문항 구조에 따라 정의되어, 실제 의사결정 시점과 이용 형태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음

- '고려'는 방한 전 고려활동 상위 3순위 포함 여부를 기준으로 하므로, '비고려'가 사전 관심이 전혀 없었음을 의미하지 않으며, 계획형 비중과 현지 추가 참여율도 이러한 정의의 영향을 받음
- 또한 외래관광객조사의 의료관광 참여는 응답자가 인식한 참여 여부로, 의료기관에서의 진료·시술 이용과 미용실·화장품 매장 등 뷰티 관련 활동이 일부 혼재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음

□ (향후 연구) 의료관광의 경제적 가치와 인바운드 관광의 질적 성장에 대한 기여를 보다 구체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의료서비스 이용과 일반 관광소비를 연결할 수 있는 자료 기반을 확보하고, 국가별 참여경로와 소비행태에 대한 분석을 고도화할 필요가 있음